

한국어와 문화

제37집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떡’을 중심으로-

쉬 야

TOPIK 쓰기·말하기 배경지식 확장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
-SIOP 모델을 활용을 중심으로-

왕 효 동

통합적 자료를 활용한 감탄사 화용 인지 연구

윤 경 미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 분석

파타마폰 랑스리사왕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문화 분석
-한국과 케냐 대조 중심으로-

한 나

2025. 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한국어와 문화

제 37 집

2025. 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차 례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떡’을 중심으로-	쉬 야	5
TOPIK 쓰기·말하기 배경지식 확장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 -SIOP 모델을 활용을 중심으로-	왕 효 동	53
통합적 자료를 활용한 감탄사 화용 인지 연구	윤 경 미	83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 분석	파타마폰 랑스리사왕	117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문화 분석 -한국과 케냐 대조 중심으로-	한 나	159
__ 한국어문화연구소 연혁		223
__ 휘보		232
__ 정기학술대회		233
__ 편집위원회 규정		23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떡’을 중심으로-¹⁾

쉬 야
(숙명여대)

**목
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교육 내용
 - 3.1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목록 선정 과정
 - 3.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단계별 학습 내용
 - 3.2.1 중급 학습 내용
 - 3.2.2 고급 학습 내용
 4.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의 문화 내용
 - 4.1 관용표현에 나타난 문화 주제 범주
 - 4.2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 내용
 - 4.2.1 음식 문화
 - 4.2.2 사회 문화 및 가치관 문화
 - 4.2.3 한·중 문화 비교
 5.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 방안
 - 5.1 통합 학습의 모형
 - 5.2 학습 방안
 - 5.2.1 중급 학습 방안
 - 5.2.2 고급 학습 방안
 6. 결론
- 참고문헌

1) 본고는 쉬야(2024)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쉬야(2024)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국문 요약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은 결합 구성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가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특히 한·중 양국은 모두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여 많은 공통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그림의 떡', '누워서 떡 먹기' 등과 같은 '떡' 관련 관용표현을 쉽게 볼 수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거의 찾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은 한국의 고유문화를 내포하기 때문에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예전에 결혼식 때 손님에게 국수를 대접하였기에 한국어에서 결혼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국수를 먹다'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결혼식에서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고 사탕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吃喜糖(사탕을 먹다)'나 혹은 '喝喜酒(축하주를 먹다)'로 결혼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이로 인하여 음식 관용표현 및 문화 차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하여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중국인 학습자, 교육 방안, 언어·문화 통합 학습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중 ‘떡’ 관련 관용표현을 언어·문화 통합 학습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용표현은 일반 언어표현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관용표현은 단순히 결합 구성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내포한다(임팔용, 1990; 김계연, 2012:2).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배우는 데에 있어 외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음식 관련 관용표현은 한국의 역사, 풍토, 문화를 더욱 반영하여 나타낸다. 그중에서 ‘떡’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사, 명절, 돌잔치 등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한다. 그리하여 한국어에서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의 떡’, ‘누워서 떡 먹기, 웬 떡이냐?’ 등이 있다. 반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중국에서는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²⁾ 이는 음식 관련 관용표현이 그 나라의 지리, 역사, 문화, 풍토, 생활 양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올바르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2) 중국에서는 ‘남미북면(南米北面)’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북쪽에서는 주로 밀가루로 만든 ‘면(麵)’을 주식으로 하고, 남쪽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중국 남쪽에서 설날에는 쌀로 만들어진 ‘糕(고)’를 먹는 전통적인 풍습도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대 제왕들은 대부분 북방에 정치의 중심지를 세웠고, 그로 인해 중국 문화도 주로 북방 문화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왔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떡’보다 밀가루로 만든 ‘면(麵)’이나 ‘병(餅)’과 관련된 음식 관용표현들이 더 많이 생기기 되었다.

표현이 포함한 한국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조와 형태·의미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를 결합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曹勇(2010); 유언동(2012), 인슈잉(2014), 고명(2017), 초석(2017), 동신기(2017), 무근이(2018), 유금흠(2020), Shen Baixue(2023) 등이 있다.

曹勇(2010)은 ‘음식 문화’, ‘사회 문화’, ‘생태 문화’, ‘어휘적 비교’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음식 속담 사전』(1998)과 중국의 『속담 사전』(2006)에 나타난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음식 속담 교재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선정된 한국어 사전이 한국어 교육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축된 학습 목록의 한국어 교육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언동(2012)은 ‘주식류’, ‘명절류’, ‘절기류’, ‘행사류’, ‘조리 도구’, ‘식기 도구’의 범주로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과 식사 예절을 비교하고 초·중·고급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습자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 시험 문제를 구성하였다.

인슈잉(2014)은 한국어 교재와 토픽(TOPIK) 시험에 제시된 음식 관련 속담을 추출하여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학습 목록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단계별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교재와 시험 자료에만 의존한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출현 빈도만으로 학습 수준을 나누는 것은 부족하다고 본다.

고명(2017)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중국어 관용 사전』에서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선정한 후, 어휘적, 형태·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비교하여 한·중 관용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관용표현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

무근이(2018)는 11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음식 관련 속담을 분석하고, 이를 형식·의미적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또한, 한·중 비교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교재에 수록된 음식 관용표현만을 추출한 점과 일부 속담의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유금흠(2020)은 송재선(1998)의 『음식속담사전』과 왕서전(2008)의 『饮食谚语集成』을 바탕으로, 음식 종류별(밥, 떡, 죽, 과일, 장류, 술, 음식 맛)로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ESA(Engage-Study-Activate) 수업 모형을 활용한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학습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Shen Baixue(2023)에서는 언어와 문화 통합적 접근으로 한·중 ‘떡’ 문화와 관련 속담을 대조하였다. 또한, 언어와 문화 통합 수업 모형과 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속담을 단계별로 분류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

이상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중 대조를 활용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는 떼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표현과 문화를 결합하여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교육 내용

3.1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목록 선정 과정

본 장에서는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학습 목록을 선정하고 단계별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용 자료³⁾에 나타난 ‘떡’ 관련 관용표현을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 말뭉치(버전 1.2)’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떡’ 관련 관용표현을 추출하고자 한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선정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출신 한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떡’ 관련 관용표현을 선출한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4단계)』,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2단계』,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6종의 한국어 교재(『서울대 한국어』, 『이화 한국어』, 『아하 한국어』, 『세종 한국어』, 『새 연세한국어』,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4) ‘구어 말뭉치’는 주로 방송이나 강연과 같은 공적인 구어 자료와 드라마 대본과 같은 준구어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적 독백 자료 2,490건, 공적 대화 자료 19,104건, 준구어 자료인 드라마 대본 4,102건(총 4,102회 분량)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의 최종 학습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 선정된 최종 학습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최종 학습 목록

번호	음식 관련 관용표현 ⁵⁾
1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2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⁶⁾
3	그림의 떡
4	남의 떡 더 커 보인다
5	누워서 떡 먹기
6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7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8	떡고물이 떨어지다 ⁷⁾
9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10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1	싼 게 비지떡
12	웬 떡이냐?
13	찰떡 호흡
14	찰떡 호흡을 맞추다(보이다)
15	찰떡궁합

5)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였다.

6)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는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한국 전통적인 문화를 담고 있기에 본 고의 학습 목록으로 포함된다.

7) ‘떡고물이 떨어지다’는 한국 문화를 내포하기 때문에 본 고의 학습 내용으로 포함된다.

위의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어 고빈도 ‘떡’ 관련 관용표현은 총 15개였다. 다음으로 15개의 ‘떡’ 관련 관용표현을 단계별로 나누고자 한다.

3.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단계별 학습 내용⁸⁾

본 장에서는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대응 관계, 관용표현의 투명성, 관용표현의 구성 단어의 난이도, 관용표현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3.2.1 중급 학습 내용

중급 학습 내용은 주로 한·중 의미는 대응되지만 표현이 다른 유형, 반투명한 유형, 구성 단어의 난이도가 초급이나 중급,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의 떡’, ‘싼 게 비지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급에서 학습할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급 학습 내용

급수	주제	‘떡’ 관련 관용표현
중급	‘떡’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림의 떡, 남의 떡 더 커 보인다, 누워서 떡 먹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싼 게 비지떡, 웬 떡이냐?

8) 구체적 분석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중심으로-」(pp. 117-147)를 참고.

3.2.2 고급 학습 내용

고급 학습 내용은 한·중 의미는 대응되지만 표현이 다른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불투명한 유형, 구성 단어의 난이도가 중급이나 고급인 유형,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고급 학습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고급 학습 내용

급수	주제	‘떡’ 관련 관용표현
고급	‘떡’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떡고물이 떨어지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찰떡 호흡, 찰떡 호흡을 맞추다(보이다), 찰떡궁합

4.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의 문화 내용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관용표현은 제 3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관용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둘째, 관용표현은 한국의 역사, 사회적 배경, 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기에 학습자가 이러한 배경 지식을 모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렵다. 해당 나라의 관용표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해당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에 내포된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교육하는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1 관용표현에 나타난 문화 주제 범주

본 고에서는 김중섭 외(2011)가 분류한 문화 범주들⁹⁾ 참고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문화 주제를 나누고자 한다.

김중섭 외(2011)에서는 문화를 ‘행동 문화’, ‘성취 문화’, ‘정보 문화’로 분류하였으나¹⁰⁾ 본 고의 분석 대상인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되는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취 문화’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즉, ‘행동 문화’와 ‘정보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문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 주제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상생활’ 중의 ‘식’ 문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식문화는 독특한 환경과 깊은 관련을 지어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구성되어왔다. 전통 음식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며 해당 나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정경조, 2018:310). 마찬가지로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고유문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식문화를 1차로 검토하고자 한다.

9) 김중섭 외(2011)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의 문화 범주는 다음 표와 같다.

10) ‘행동 문화’는 의식주, 여행, 가정생활 등과 같은 한국인의 생활 문화와 명절, 관혼상제, 정치, 경제 등과 같은 한국 사회 문화를 말한다. ‘성취 문화’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유산, 한국의 예술과 문학 등을 말한다. ‘정보 문화’는 공공기관이용과 같은 한국의 사회 생활, 가족주의 등과 같은 한국인의 가치관을 말한다.

둘째, 사회 문화의 ‘관혼상제 문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즉, 한국어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 및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에 나타난 제사 문화 및 굿 문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셋째, ‘정보 문화’의 ‘가치관 문화’¹¹⁾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및 ‘떡고물이 떨어지다’에 반영된 한국인의 수용 문화, 신뢰 중시 문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떡’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음식 문화 주제 범주

음식 문화 차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 내용	관용표현 예
1차	행동 문화	일상생활 문화	음식 문화	떡	그림의 떡, 누워서 떡 먹기, 웬 떡이냐? 등
2차	행동 문화	사회 문화	관혼상제 문화	제사, 굿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정보 문화	가치관 문화	가치관, 세계관, 정서, 사고방식; 종교 등	수용, 신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떡고물이 떨어지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문화 내용을 주로 1차 식문화와 2차 사회 문화 및 가치관 문화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에 담긴 문화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11) ‘가치관 문화’에는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민간신앙, 종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펴보겠다.

4.2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 내용

한국 음식 관용표현은 한국의 역사, 문화, 지리, 풍토, 한국의 가치관, 사 고방식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적 내용을 알아야 한국어 음식 관련 관 용표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문금현, 1998). 따라서 본 고에서 주장한 바는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과 한국 문화를 결합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는 반영된 음식 문화를 교육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둘째,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는 나타난 한국인의 가 치관 문화 및 사회 문화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최종 목 표는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원만하게 의사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의 비교 관점을 도 입해야 한다(우인혜, 2004; 성기철, 2004).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한·중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 내용을 한·중 비교 관 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4.2.1 음식 문화

1) 한국

‘떡’은 한국 전통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한국 음식 문화의 결정체를 나타내는 음식이다(김용갑, 2017:19). 쌀을 주식으로 한 한국은 일상적으로 밥을 소비하였으나, 제사, 명절,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떡을 먹기도 하였다(김금숙, 2021:29). 한국의 ‘떡’ 문화는 벼농사 문화와 함께 발전해 온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떡’ 문화는 전통적 의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예의를 중시했기 때문에 ‘떡’은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떡’ 문화가 더욱 발전되었다. 행사에 따라 떡 종류도 다르다. 예를 들어, 추석의 송편, 설날의 떡국, 돌잔치의 백설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도 많이 생성되었다. 예를 들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표현을 통해 ‘떡’은 한국의 제사 문화, 굿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떡’은 나눔과 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였을 때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 주었고, 명절 때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떡을 함께 나눠 먹었다. 또한, 농사철에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송편을 빚어 나눴으며, 사돈 간에는 색떡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눴다(윤서석, 2008:7). 그리고 이사한 후 이웃에게 떡을 돌리거나 잔치가 마친 후 떡을 나누는 풍습도 있었다. 한국어 ‘엮은 떡이 두레반’이라는 ‘떡’ 관련 관용표현을 통해 이러한 나눔과 정을 엿볼 수 있다(여선영, 2016: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떡’은 한국에서 전통 음식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례와 예의, 나눔과 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2) 중국

중국에도 한국의 ‘떡’과 유사한 ‘고(糕)’가 있다. ‘고(糕)’의 역사는 중국 북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가사혈(賈思勰)이 편찬한 『제민요술(齊民要術)』에 기록되어 있다(楊軍, 2022:126). 이 책에서는 ‘고(糕)’의 제조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요나라 시대((遼代) 베이징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고(糕)’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명·청(明清)에는 떡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중(年中) 공급되는 간식으로 발전하였다(李文麗, 2019:178). 이를 통해 ‘고(糕)’는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고(糕)’는 새해, 대보름, 단오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좋은 삶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다. 현재 중국어에서는 ‘고(糕)’ 관련 관용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고(糕)’의 발음은 ‘高(고)’와 유사하므로 ‘步步登高(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으로 올라감)’라는 축복 표현이 생겨났다. 이는 상대방의 승진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말한다.

4.2.2 사회 문화 및 가치관 문화

1) 한국

(1) 제사 문화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¹²⁾

제사는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로 간주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사를 지낸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인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관용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제사는 고대 자연 숭배에서 시작되어 삼국시대부터 조상을 기리는 의식으로 발전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 중심으로 종묘(宗廟)와 별묘(別廟)에서 제사를 올렸으나, 민간 제사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원나라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고려 말부터 조상 제사를 가정에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조선 시대에 유교 의례로 정착되며 국가와 민간에 확산되었다. 17세기 이후 제사는 서민 가정에서도 보편화되었으나, 조선 말기 이후 기독교의 전래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 제사는 변화를 겪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유교식 제사의 사회적 가치가 약화되었지만, 현대에는 간소화된 형태로 여전히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

제사는 한국인에게 종교적 의식, 효의 실천, 친족 공동체 강화,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유교 사회에서 제사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12) 이영춘(2000:82-83)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의식이자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또한, 가족과 친척을 한자리에 모아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며, 오랜 전통과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한국인의 정신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굿 문화 -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굿은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으로서 장례 의식, 제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한국 사회에서는 굿이 오랜 세월 동안 민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장례 의식과 제사 등과 관련된 전통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굿이나 제사에서 떡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으로, 의례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함께 떡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굿을 올리고 소원을 기원하며 떡을 나누는 이 전통은 한국어의 관용표현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의 유래가 되었다.

한국인 조상들이 무당을 찾고 굿을 시켰으며, 삼신과 지신 같은 다양한 자연신들에게 기도한 이유는 샤머니즘이 한국인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과 우주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더 큰 존재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신비로운 우주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이를 창조하거나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려는 마음은 종교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다.

‘굿’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 및 신앙 체계를 보여주며, 조상 숭배와 함께 자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신앙 등을 포함한다.

곳은 영혼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의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진오귀 새남곳’과 같은 의식은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며, 슬픔과 응어리를 춤과 소리로 해소함으로써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한다(평화문제연구소, 1989).

또한, 곳은 인간의 슬픔, 기쁨, 절망과 희망을 모두 포함하는 의례로, 사회의 통합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상징한다. 곳은 신령, 인간,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정신을 잘 나타내며, 한국인의 삶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깨진 조화를 회복하고 모든 존재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삶의 창조적 힘을 되찾으려는 한국인의 정신을 구현한다(조흥윤, 1997:40).

‘곳’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일상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곳을 통해 그동안 쌓인 갈등과 응어리를 풀며, 조화와 평온을 되찾고자 했다. 이 과정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온 생명력이 담겨 있다(차옥송, 2012).

(3) 수용 문화 -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仁)과 예(禮)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미덕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관용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대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떡을 주다’는 것은 상대에게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주어 갈등을 부드럽게 해결하려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는 상대의 입장

을 이해하고 먼저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인의 정서를 나타낸다.

이 표현은 좋지 않은 관계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미운 사람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며 갈등을 풀고 화해하려는 태도는 한국 사회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이러한 관용표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제공한다.

(4) 신뢰 중시 문화 - 〈떡고물이 떨어지다〉

‘떡고물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시루에 찌낸 떡을 떡메로 두드리고 팔가루나 콩가루를 묻혀 제작했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김금숙, 2021:30-31). 『표준』에서는 ‘떡고물’을 비유적으로는 ‘어떤 일을 부정하게 보아주고 얻는 금품’으로 제시하였다.

‘떡’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상 음식이 아닌 설날, 추석, 잔치, 제사 등 특별한 날에 만들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떡고물’은 뇌물로 확장되어, ‘떡고물이 떨어지다’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떡고물이 떨어지다’는 단순히 부수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는 한국이 사회의 관계와 신뢰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 정과 신뢰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2) 중국

(1) 제사 문화

중국 문명은 제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은허(殷墟)¹³⁾ 지역에는 제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상나라(商)는 천지(天地) 등 자연의 제사가 있었지만, 조상 신을 숭배하는 제사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은나라(殷)는 제사를 과도하게 열중하여 사람들을 재물(祭物)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으며, 결국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주나라(周)로 넘어오면서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상황을 줄였으나 제사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였다. 예를 들어, 천지 등 자연에 관한 자세, 조상에 대한 제사, 농경에 관한 제사 등이 있었다. 한나라(漢朝) 이후 도교(導敎)가 발전하면서 도교식 제사가 성행하였으며,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불교가 전래되고 발전하면서 불교식 제사인 ‘재(齋)’가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¹⁴⁾

중국의 제사 문화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결속력을 나타낸다. 궁중 제사든 가묘 제사든 참여자들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람들 간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제사는 문화의 전승을 나타내며, 중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전달하고 이어간다.

13) 현재의 허난성 안양시를 말한다.

14) 이영춘(2000:82-83)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제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며,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확립한다. 예를 들어, 청명절(淸明節)의 묘지 참배는 잡초를 제거하고 조상을 기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회상하고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사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있다. 현대인의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사 방식도 생성하였다. 전통적인 묘지 참배 외에도 가정에서 소규모 제사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제사를 하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떠난 조상에 대한 그리움과 경의를 표현한다.

(2) 굿 문화

‘굿’은 인류가 가진 가장 초기의 종교 형태 중 하나로, 특정 의식(儀式)과 주문(呪文)을 통해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핵심 관념을 지닌다.

‘굿’은 샤머니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원시 시대에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생활 속 많은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굿을 통해 미지의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자연물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고, 이에 주관적인 의식을 부여하여 경외하고 기원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종교 관념인 만물유령(萬物有靈) 사상을 형성했다. 샤머니즘은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는 선량한 신령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신령이다. 사람들은 기도와 의식을 통해 선량한 신령을 기쁘게 하고, 악한 신령이 재난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의식을 하는 사람을 샤먼이라고 한다.

샤머니즘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지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선사 시대 사회에서 샤머니즘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도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결속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원시 종교 신앙은 점차 몰락했지만, 주술적 특성을 가진 샤머니즘 문화는 특정 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 있다.

(3) 수용 문화 -以德報怨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유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에 화합과 포용을 중시한다. 이러한 가치관 문화는 ‘以德報怨(덕으로 원망을 갚다)’이라는 표현에도 반영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품은 원한이 아무리 많더라도 덕으로 대하라는 것을 말한다.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사람의 너그러움과 포용력을 보여주며, 원한을 해소하고 결국 덕으로 덕을 갚는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중요한 지혜이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실현한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유교는 개인의 이익보다 인(仁)과 예(禮)를 덕(德) 중심의 윤리관으로 본다. 공자는 인(仁)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간주하였으며, 맹자는 예(禮)를 도덕적 기본 요소이자 배려의 감정으로 여겼다. 인(仁)과 예(禮)는 인간관계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사회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4.2.3 한·중 문화 비교

음식 문화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떡/고(糕)’ 문화가 있다. ‘떡/고

(糕)’는 전통적 의례로 제사,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다. 사람들은 명절과 같은 중요한 날에 ‘떡/고(糕)’를 먹으며 좋은 삶을 기원한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떡/고(糕)’ 문화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한국의 ‘떡’은 새해 첫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천세병(添岁饼)’이라고 불린다. 이는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를 말한다. 한국어 ‘떡국을 먹다’라는 관용표현에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중국에서 ‘고(糕)’는 처음 등장했을 때 괴물 ‘년(年)’을 물리치기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주술(呪术)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은 ‘떡/고(糕)’는 발전 초기부터 용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떡’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중국의 ‘고(糕)’는 종교적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조상께 올리고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떡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사와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음식임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의 ‘고(糕)’는 제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교적 색채가 한국의 떡만큼 특별히 강조되지 않고 주로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더 크다.¹⁵⁾

한편, 사회 문화 차원에서 한·중 양국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의례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제사 문화가 발달하다. 한국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등과 같은 ‘떡’ 관련 관용표현에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제사 문화가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고(糕)’ 관련 관용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굿’ 문화가 있다. 인간이 자연의

15)李文丽(2019)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자신을 초월하는 더 큰 존재에 의지하고자 하는 종교의 본질을 나타낸다. 한국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떡 본 김에 굿한다.’라는 ‘떡’ 관련 관용표현에서 ‘굿’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이 ‘굿’ 문화가 있지만 ‘떡’과 관련된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치관 문화 차원에서 한·중 양국은 유교 문화의 ‘인’과 ‘예’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화합과 포용을 중시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한국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다. 하지만 중국의 ‘以德报怨(덕으로 원한을 갚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관 문화를 담고 있으나 ‘고’ 관련 관용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떡’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교육할 때, 해당 표현에 내포된 음식 문화, 사회 문화, 가치관 문화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한·중 문화 비교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시키고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더 잘 학습하게 한다.

5.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 방안

5.1 통합 학습의 모형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위하여 언어·문화 통합 학습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미혜(2004:154)는 언어문화 통합 수업에서 문화 교육을 ‘준비 단계 →

문화 이해 단계 → 활용 단계 → 마무리 단계’로 제안하였다.¹⁶⁾ 본고는 이러한 교수 모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문화 통합 학습 모형을 모색하였다.

1단계는 문화 차이 인식 단계이다.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와 문화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 후에 관용표현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워서 떡 먹기’를 가르칠 때 한국의 떡 종류 사진을 활용하여 떡 문화를 인식시킨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을 소개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중 문화와 음식 관용표현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2단계는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통한 학습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중 관용표현과 문화 비교를 활용하여 한국어 음식 관용표현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한·중 문화 비교 내용은 중급에서는 교사 중심의 설명을 위주로 한다. 고급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고급 수업에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관련 자료를 미리 조사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맥,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관용표현과 문화를 연결하여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떡 관련 관용표현을 충분히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흥미도 높일 수 있고 관용표현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3단계는 음식 관용표현 연습·활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용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연습시킨다. 관용표현

16) 준비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이해 단계에서는 교사의 강의, 비디오, 읽기 자료 등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읽기와 듣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활용 단계는 학습한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발표하거나 토론하도록 한다.

의 뜻을 연결하기, 대화의 빈칸 채우기, 역할극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다만 중급에서는 교사가 역할극 내용을 준비하고 학습자에게 연습시키는 반면에 고급에서는 상황 카드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역할극 내용을 직접 만들도록 한다.

4단계는 중급 문화 중심의 활동/고급 문화 심화 활동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루어진다. 중급에서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연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한국 문화를 담고 있기에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고 문화를 이해하면서 관용표현을 배울 수 있다. 고급에서는 한국 문화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가르치고자 한다.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를 통해 문화를 학습할 수 있고 문화를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음식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

5.2 학습 방안

본 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하여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2.1 중급 학습 방안

다음으로 ‘누워서 떡 먹기’를 예로 들어 한·중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활용

한 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1) 문화 차이 인식

1단계에서 한·중 문화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자에게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 차이를 인식하도록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음식 사진을 사용한다. 음식 사진 비교를 통해 한국의 ‘떡’ 문화, 중국의 ‘반찬’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식시킨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어떤 음식이에요? 한국의 ‘떡’과 중국의 ‘반찬’¹⁷⁾ 맞죠?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예로부터 ‘떡’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언어 표현에서 ‘떡’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인은 한국인들이 ‘떡’을 좋아하는 만큼 반찬을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어 언어 표현에서 ‘반찬’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우면 어떻게 말해요? ‘떡’으로 어떻게 말해요? 중국어에서 ‘반찬’을 써서 어떻게 말해요?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한국의 ‘떡’ 관련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국: ‘떡’¹⁸⁾

17) 중국의 반찬은 중국의 일상 식탁,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일반적 식욕을 돋우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8) ‘떡’ 사진은 한국의 naver에서 다운로 받았다.





중국: ‘小菜(반찬)’¹⁹⁾

2)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통한 학습

2단계에서 한·중 언어·문화를 비교하여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한국어의 ‘누워서 떡 먹기’를 제시하고 이 표현의 축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小菜一碟’를 제시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비교를 통해 한국은 구체적인 음식인 ‘떡’을, 중국은 광범위한 ‘반찬’을 사용하여 관용표현을 만든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킨다. 그리고 교사가 한국의 ‘떡’ 문화, 중국의 ‘반찬’ 문화를 비교하면서 관용표현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중 음식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은 ‘떡’으로, 중국은 ‘반찬’으로 관용표현을 만들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킨다. 또한, 해당 관용표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문맥,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사진 등 자료를 함께 사용한다. 중급 학습자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한다.

19) 사진은 시로 생성되었다.

〈표 5〉 한·중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활용한 수업 자료

한국어	중국어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활용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의 ‘누워서 떡 먹기’의 축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음식 관용표현을 축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설명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p>누워서 떡 먹기</p>	<p>小菜一碟²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비교를 통해 한국어에서 구체적 음식 ‘떡’을 사용하여 아주 쉬운 일을 표현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 일반 광범위한 ‘반찬’을 사용하여 관용표현을 만든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킨다. •한국의 ‘떡’ 문화와 중국의 ‘반찬’ 문화를 비교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이해하도록 한다.
<p>- 실제 문맥을 활용하여 관용표현을 제시하기</p> <p>가: 김치를 만들 줄 아세요? 나: 김치? 전 매년 두 번씩 김치를 담그거든요. 김치는 저한테 <u>누워서 떡 먹기</u>예요.</p>		

‘떡’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과 함께 발전해 왔다. 벼농사의 결과물인 쌀로 만든 ‘떡’은 한국의 쌀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김용감, 2017:19). 한국에서 쌀은 주로

20) 사진은 AI로 생성되었다.

주식인 밥으로 먹지만 특별한 날에 별식인 떡으로 먹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떡’은 조선 시대의 의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조선 시대부터 여러 행사에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은 유교적 예의를 중요시하는 국가로서 다양한 의례 행사를 풍속으로 삼았기 때문에 ‘떡’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서 ‘떡’을 쉽게 찾을 수 있다.²¹⁾

한편, 중국의 ‘小菜一碟(간단한 반찬 한 접시)’은 가정식 식탁 위의 반찬 문화에서 유래되었다. 한국에서는 흰 쌀밥과 함께 반찬이 식사 중심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메인(main) 요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반찬을 이용한다. 중국에서는 반찬 문화보다는 메인 요리가 더 보편적이다. 메인 요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찬은 쉽고 양이 적은 음식으로 메인 요리보다 큰 힘이 들지 않는다. 또한, ‘一碟(한 접시)’라는 단위 명사가 더해져 그 가벼움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더욱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매우 쉬운 일을 나타낼 때 ‘小菜一碟’로 표현한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하기 쉬운 일을 드러낼 때 왜 한국어에서는 ‘떡’을, 중국어에서는 ‘반찬’을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중 문화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도 이해할 수 있다.

교사: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한국의 ‘떡’과 중국의 ‘반찬’ 사진을 봤죠? 한국의 떡 종류가 다양하고 중국의 반찬도 많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관

21) 이 내용은 김금숙(2021:30)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용표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한국어에서는 하기가 아주 쉬운 일을 할 때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해요. 한국은 벼농사 문화예요. 벼농사로 얻은 쌀은 보통 밥으로 먹지만, 특별한 날에는 ‘떡’이라는 별식으로도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행사가 많아지고 떡 문화가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국 관용표현에서 ‘떡’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누워서 뭘 하면 좀 편하고 힘이 별로 들지 않는 느낌이지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로 아주 쉬운 일을 표현해요.

반대로, 중국어에서는 ‘小菜一碟’가 같은 뜻이죠. 이 표현은 집밥의 간단한 반찬 문화에서 온 거예요. ‘小菜’는 쉽게 만들 수 있고 양도 적은 음식이잖아요. 메인 요리보다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먹을 때도 큰 노력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하기 쉬운 일을 나타낼 때 ‘小菜一碟’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떡을, 중국에서는 반찬을 사용하여 표현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한·중 음식 문화 차이예요. 잘 이해했어요?”

3) 음식 관련 관용표현 연습·활용

3단계는 학습자가 ‘떡’ 관련 관용표현을 연습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다. 3단계에서는 음식 문화와의 연결을 잠시 배제하고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집중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 주로 ‘해당 관용표현과 대응되는 의미를 연결하기’, ‘대화문에서 관용표현을 채우기’, ‘역할극’을 활동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교사가 역할극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학습자에게 연습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음식 관용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

다. 구체적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연습 활동 1

<p>★ 다음 관용표현과 대응되는 의미를 연결하세요.</p> <p>누워서 떡 먹기 •</p> <p>• 하기 매우 쉬운 일</p>	<p>★ 다음 대화에 어울리는 관용표현을 채우시오.</p> <p>가: 이번 시험이 정말 어렵더라. 나: 다 복습한 내용이라 나한테 누워서 떡 먹기야.</p>
---	---

〈표 6〉에서 제시한 활동을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 대화에서 관용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표 7〉 역할극을 활용한 활동

<p>배경 설정: 학교에서 두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너무 많은 과제와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른 친구는 그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p> <p>등장인물: 나나: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 린린: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p> <p>대화문: 나나: 이번 시험이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린린: 그렇게 고민하지 마. ‘누워서 떡 먹기’처럼 간단하게 생각해 봐! 나나: 누워서 떡 먹기? 그게 무슨 뜻이야? 시험 준비가 그렇게 쉬울 수 있다고?</p>

린린: 응!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과목별로 나눠서 공부해 보는 거야.

각 과목마다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돼.

나나: 그러면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구나.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교사가 준비한 역할극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역학을 나누어 학습자에게 연습시킨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문화 중심의 활동

4단계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텍스트는 일반적 텍스트가 아니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관용표현을 강화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표 8〉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 중심의 이해 활동

제목: 누워서 떡 먹기는 어렵다²²⁾

한국어 관용표현 ‘누워서 떡 먹기’는 ‘아주 쉽고 편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찹쌀떡이나 인절미처럼 길쭉한 떡을 누워서 먹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쉽다는 느낌

22) 사용의 필요에 따라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와 생활방식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한국의 온돌과 안방 문화, 특히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에서는 방바닥이 따뜻한 온돌 구조로 되어 있어 누워 있는 자세가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황이다. 여기서 ‘누워서’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뿐만 아니라 옆으로 기대어 누운 자세도 포함된다. 특히, 보료와 같은 방 안의 전통 가구에 기대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편안했으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이 관용표현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누워서 떡 먹기’는 단순히 언어적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함께 이해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관용표현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출처: 중앙일보; 조현용/경희대 교수·한국어교육 전공)

- (1) 읽어보고 빈칸에 어울리는 음식 관용표현을 채우세요.
- (2) 관용표현의 유래를 찾아보세요.
- (3) 음식 관용표현을 활용하여 신문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위와 같이 ‘누워서 떡 먹기’ 텍스트를 이용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관용표현을 배울 수 있고 관용표현의 유래, 역사적 배경, 문화 등도 학습할 수 있다.

이상으로 ‘1단계 문화 차이 인식’, ‘2단계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통한 학습’, ‘3단계 음식 관용표현 연습·활용’, ‘4단계 문화 중심의 활동’의 4단계 과정을 토대로 중급 교육 방안 예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안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5.2.2 고급 학습 방안

고급 단계에서는 언어·문화 통합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1단계 문화 차이 인식, 2단계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통한 학습, 3단계 음식 관용표현 연습·활용, 4단계 문화 심화 활동’을 거쳐서 고급 교육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만 고급은 중급과 달리 교사의 설명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토론 활동을 위주로 구성한다.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팀 별로 토론을 통해 한·중 언어와 문화 차이를 비교하면서 관용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고급에서는 문화에 대한 심화 이해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고급 학습자가 단순히 한·중 음식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해당 관용표현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 사회 문화, 가치관 문화도 비교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를 예로 들어 한·중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활용한 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1) 문화 차이 인식

1단계에서는 한·중 음식 관용표현에 나타난 음식 소재 및 한·중 음식 문화 차이를 인식시킨다. 여러 떡 종류 사진을 활용하여 한국의 떡 문화가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킨다. 또한, 중국 음식 관련 관용표현에 사용된 국수 사진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한·중 음식 문화 차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한국의 ‘떡’〉



찹쌀떡



가래떡



백설기



인절미

〈중국의 ‘국수’〉



칼국수



란저우 라면

교사: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추석과 같은 명절, 돌잔치 때 어떤 음식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떡이에요. 한국의 떡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찹쌀떡, 가래떡, 백설기, 인절미 등이 있어요. ‘떡’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며 예로부터

한국 전통 음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중 ‘떡’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중국에는 한국의 ‘떡’과 비슷한 ‘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 ‘绿豆糕(녹두떡)’, ‘米糕(쌀떡)’, ‘青团(청단)’ 등이 있는데 제사, 명절 등과 같은 중요한 날에 자주 나타나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찹쌀로 만들어진 ‘고’ 문화보다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국수’ 문화가 더욱 발달해요. 예를 들어, 칼국수, 라저우 라면 등이 있어요. 그래서 ‘국수’와 관련된 관용표현이 있는데 ‘就汤下面’를 예로 들 수 있어요”

2) 언어·문화 통합 비교를 통한 학습

2단계에서 한·중 문화 비교를 통해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의 관용적 의미를 설명한 후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중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이때 한·중 음식 문화 비교는 주로 학습자의 토론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토론을 통해 한국어에서 왜 ‘떡’을, 중국어에서는 ‘국수’를 가지고 관용표현을 만들었는지를 이해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등을 함께 키울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맥이나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표 9〉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활동 예시

한국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중국어: 就汤下面 (끓인 국물에 면을 넣고 면을 익힌다; 주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1. 동영상과 대화문을 활용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대화문을 통해 관용표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시킨다.	
<p>〈상황: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서 음식 준비를 하던 중.〉</p> <p>민수: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 근처에 캠핑장이 있네! 근데 우리 그냥 간단히 먹고 쉬려고 했잖아.”</p> <p>수진: “맞아, 근데 우리가 산 김에 바비큐 재료도 충분히 샀으니까 캠핑장에서 제대로 즐겨보는 건 어때?”</p> <p>영희: “그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u>고</u>,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캠핑도 제대로 하고 좋은 추억 만들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10px;"> <p>민수: “오케이! 그럼 텐트도 대여하고, 장작도 사서 분위기 제대로 내보자!”</p> <p>수진: “좋아! 역시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즐기는 게 최고지!”</p> </div> </div>	

2. 한국어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와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고 비교하도록 한다.
3. 팀을 만들고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음식 문화와 제사 문화를 한·중 비교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한·중 문화 비교를 통해 흥미를 높이고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잘 학습시키고 한국 문화를 더욱 잘 이해시킨다.

〈토론 질문〉: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을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就汤下面’라고 해요. 한국과 중국은 왜 달라요? 여러분 팀별로 토론하세요.

토론 결과:

‘떡’은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제사, 명절,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조선은 유교적 예의를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다양한 의례 행사가 관습으로 자리 잡았으며, ‘떡’ 문화를 더욱 잘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와 같은 ‘떡’ 관련 관용표현이 생겨났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떡’과 비슷한 ‘고’가 존재했으나 ‘고’ 문화보다 밀가루로 만들어진 ‘국수’, ‘병’ 문화는 더욱 발달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국수’, ‘병’으로 만들어진 관용표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天上掉馅饼’, ‘画饼充饥’, ‘就汤下面’ 등이 있어요.”

〈표 9〉에서 보았듯이, 고급 단계에서는 주로 학습자 중심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토론 내용은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및 관용표현에 반영된 문화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어에서는 음식인 ‘떡’으로 관용표현이 만들어진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국수로 관용표현이 생성되었다. 한국어에서는 떡 문화 및 제사 문화가 반영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표현이 생성한 반면에 중국어에서 국수 문화가 반영된 ‘就汤下面’라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중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깊게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토론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사고력 등을 함께 키울 수 있다.

3) ‘떡’ 관련 관용표현 연습·활용

3단계는 ‘떡’ 관련 관용표현의 의미 및 활용에 치중되어 연습하는 과정이다. 4단계에서 문화 심화 활동을 하기 전에 3단계에서 ‘떡’ 관련 관용표현 자체 학습에 집중하여 교육하기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관용표현의 의미를 연결하기, 대화에 적합한 관용표현을 채우기, 역할극 활동을 구성한다. 고급 단계에서 역할극 내용은 교사가 준비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10〉 활동 1

<p>★ 다음 관용표현에 대응되는 의미를 연결하십시오.</p> <p>떡 본 김체 제사 지낸다 •</p> <p>•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p>	<p>★ 대화에 적합한 관용표현을 채우시오.</p> <p>지영: “이따가 우리 팀 회의 발표 자료를 같이 검토해야 할 텐데, 조금 걱정돼요.”</p> <p>민수: “근데 지금 여유 있잖아요? 여기 카페에 노트북도 있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발표 자료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p>
--	--

〈표 10〉에서 본 바와 같이 관용표현에 대응되는 의미를 연결하거나 대화에서 적합한 관용표현을 채우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음식 관용표

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표 11〉 역할극 2

[장면: 바닷가에 도착한 친구들]
(세 친구가 바닷가를 보며 감탄한다.)

유나: 와, 여긴 진짜 멋지다!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다음 장소로 갈까?

재민: 잠깐만, 여기에 횃집이 엄청 많아 보여! 우리 여기서 회 먹고 가면 어때?

수진: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근처까지 온 김에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유나: 그래도 시간 괜찮으려나? 저녁에 체크인도 해야 하는데.

재민: (웃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대로 즐기자! 어차피 바닷가 근처인데 신선한 회 한번 먹어 보자고!

〈표 11〉에서 제시하였듯이 교사가 상황 카드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스스로 대화문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연습할 수 있다. 학습자가 대화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떡’ 관련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4) 문화 심화 활동

4단계는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떡’ 관련 관용표현에 반영된 사회 문화, 가치관 문화를 한-중 비교를 통해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는 수업 일주일 전에 학습자에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에 나타난 문화를 조사해 오게 한다. 수업 시간에 한 팀당 약 3-5분의 시간을 주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제사 문화와 가치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A: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관용표현을 통해 한국의 제사 문화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한국 가정에서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며, 아직까지 다양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사를 통해 효도를 드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공동체 의식과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한국인의 정서, 가치관, 정신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B: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를 통해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실용주의, 기회 활용의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교훈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제시하였듯이 4단계의 언어·문화 통합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학습 모형을 통해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이해시킬 수 있다.

6. 결론

본 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떡’ 관련 관용표현 학습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분류한 다음에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관용표현은 축자적 의미 아닌 제3 의미를 지니고, 또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담는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을 잘 학습하려면 한국의 ‘떡’ 관련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통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떡’ 관련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까지도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모든 음식 소재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음식 소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용 음식 관련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 _____ (2014),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1-1/1-2/2-1/2-2』,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16),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3/4/5』,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_____ (2017), 『함께 배우는 한국어 6』,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6), 『중한사전』,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 고명(2017),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2002),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서울: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국어원(2021),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2)』, URL: <https://klic.korean.go.kr/corpus>.
-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Learners' Dictionary of Korean』, 서울: 신원프라이밍.
- 김계연(2012), 『일·한 양국어의 음식 관련 관용표현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어일문학과.

- 김금숙(2021),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누워서 떡 먹기’의 문화 요소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18(2), 19-46.
- 김용갑(2017), 「한국 맵쌀떡 발달배경」, 亞細亞研究, 60(4), 39-74.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별 2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 동신기(2017), 「한중 음식 관련 관용어의 비교 연구: -사회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 무근이(2018), 「한·중 음식 속담의 비교 연구: -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207-233.
- 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2020), 『새 연세한국어 어휘와 문법 1-6』,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1A/1B/2A/2B』, 서울: 투판즈.
 _____(2015), 『서울대 한국어 3A/3B/4A/4B/5A/5B/6A/6B』, 서울: 투판즈.
 _____(2022), 『서울대 한국어 1A/1B/2A/2B』,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2023), 『서울대 한국어 4A/4B/5A/5B/6A/6B』,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 -언어 문화-. 한국언어문화학」제1(1), 105-123.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교재위원회(2011), 『아하 한국어 1』, 경문사.
 _____(2014), 『아하 한국어 2』, 경문사.

- _____ (2015), 『아하 한국어 3』, 경문사.
- _____ (2016), 『아하 한국어 4』, 경문사.
- _____ (2017), 『아하 한국어 5』, 경문사.
- 쉬야(202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중 언어·문화 통합 학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선영(2016), 「한국의 떡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제25권, 149-186.
- 유금흠(2020), 「중·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의 음식 관련 속담 비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동(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음식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서석(2008), 「한국의 떡문화」,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1(1), 143-163.
- 이영춘(2000), 「중국과 한국의 제사문화와 그 전통」,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82-83.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 1-1, 1-2, 2-2.』, 서울: Epress.
- _____ (2011), 『이화 한국어 2-1, 3-1, 3-2, 4』, 서울: Epress.

- _____ (2012), 『이화 한국어 5/6』, 서울: Epress.
- _____ (2023), 『새 이화 한국어 1-1, 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 (2024), 『새 이화 한국어 2-1, 2-2, 3-1, 3-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인슈잉(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연구 -음식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팔용(1990), 「慣用的表現の二類」, 日本研究(Journal of Japanese Studies (JAST)), 제15호, 135-157.
- 조흥운(1997), 『한국巫의 세계』, 파주: 한국학술정보.
- 차옥송(2012), 「젠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무: 내림굿과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2권, 197-224.
- 초석(2017), 「한국어와 중국어의 속담 비교 연구: -음식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강원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평화문제연구소(1989), 「포토기행: 한국의 기층문화: 굿, 그 신명의 몸짓- 정학봉 무녀의 “진오귀 새남굿”」, 통일한국, 제62권, 59-62.
- Shen Baixue(202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떡 문화 및 관련 속담 교육 연구:-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曹勇(2010), 「한국과 중국의 음식 속담의 비교 연구: 『음식 속담 사전』(1998) 및 중국의 『속담사전』(2006)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文丽(2019), “中韩文化年糕文化对比研究”, 北方文学, 35卷.
- 杨军(2022), “《北行日绿》反映的宋金饮食文化交融”, 中华民族共同体研究, 125-174.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of Korean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tteok'-

Xu Y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mprove Chinese learners' communication skills in Korean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by selecting high-frequency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systematically classifying them into stages, and propos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that integrate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this, foreign learners can not only develop their Korean communication skills but also deeply understand Korean culture.

Korean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are frequently used in daily life by Koreans as they vividly convey the speaker's intentions. If foreign learners fail to properly grasp these idiomatic expressions, it becomes difficult to achieve smooth communication. Furthermore, such idiomatic expressions encapsulate aspects of Korean history, culture, climate, lifestyle, and ways of thinking, enabling learners to gain insight into Korean culture through their stud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education on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to foreign learners.

However, these idioms are not merely literal combinations of words but carry new meanings, making them difficult for learners to understand and express without prior study. Moreover, food-related idioms reflect unique cultural elements of Korea, which is why it is necessary to teach Chinese learners these idiomatic expressions not only for communication but also for cultural understand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elects a list of high-frequency Korean tteok-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based on Korean language educational materials and spoken corpora, explores teaching methods utilizing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and verifies their effectiveness statistically. It has been proven that through a comparative integration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Chinese learners can effectively acquire not only Korean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but also Korean communication skills and cultural understanding.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examine the usage patterns of Korean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found in spoken and written corpora, focusing on various food themes, and select a list of food-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dditionally, it aims to propose teaching methods that integrate language and culture for learners of various language backgrounds, and to apply and verify these methods with diverse learners.

Keywords: Korean Tteok-Related Idiomatic Expressions, Chinese Learners, Education plan, Integrated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TOPIK 쓰기·말하기 배경지식 확장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¹⁾

-SIOP 모델을 활용을 중심으로-

왕 효 동
(숙명여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선행 연구
 4. SIOP 모델을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SIOP 모델을 활용하여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경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SIOP 모델의 8개의 구성 요소와 상황식 PPP교수 학습 모형을 융합하여 쓰기와 말하기 통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논술적 말하기에 대해 비교 분석을 통해

1) 본 논문은 왕효동(2024)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왕효동(2024)으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출제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즉 동일한 논술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는 글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낯선 주제를 선정하여 SIOP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이해가능한 입력한 방식을 통해 배경지식을 확장시킨다. 그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확장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쓰기 및 말하기를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어서 강화를 시킨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습자의 작문 및 발화 텍스트를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도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교육적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경지식 확장이 한국어 학습에서 중요하다. 학습자가 배경지식이 없는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의 보완하기 위해 사전 학습 활동(예: 관련 텍스트 읽기, 토론,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쓰기와 말하기의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쓰기와 말하기를 별도로 지도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두 언어 기능 간의 연계를 경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텍스트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핵심어: 한국어능력시험 논술적 쓰기와 논술적 말하기, SIOP 모델, 배경지식을 확장, 쓰기와 말하기 통합 교육

1. 서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 시험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또한 TOPIK(토픽)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977년부터 2022년까지는 토픽 I 과 토픽 II로 나누어 듣기, 읽기, 쓰기 세 가지 언어 영역에서만 평가해 왔다. 2022년부터는 한국어말하기시험(TOPIK Speaking)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기준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달리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평가(Internet Based Test, IBT)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토픽 I·II와 분리되어 다른 날짜에 개별 시행되고 있으며,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총점은 200점 만점이다(양세정, 2023:541 재인용). 시험 등급은 척도 점수 범위로 0-19점 불합격, 20-49점은 1급, 50-89점은 2급, 90-109점은 3급, 110-129점은 4급, 130-159점은 5급, 160-200점은 6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홍은실 외(2016)에서 말하기 평가 1-6문항은 친숙한 일상 대화부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발언까지 생활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말하기 능력도 함께 고찰되고 전면성이 가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말하기시험의 문제 유형을 분석을 통해 한국어 쓰기시험의 문제 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두 영역에서의 마지막 논술적 문제는 출제 주제 및 출제 방식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언어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비균형적으로 발달하는 현상이 종종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읽기와 듣기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에 쓰기와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표현 능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따지 못한다. 이는 장애를 받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학습자의 성격, 선호도,

전공 등 여러 요인을 받지만, 그 중에서는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의 표현 능력 발휘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가 학습 단계를 오름에 따라 단순히 어휘, 문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내용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문학,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학습 내용을 확장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식성을 높임으로써 한국어로 쓰기와 말하기 같은 응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IOP 모델을 도입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표현 및 응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쓰기와 말하기 통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TOPIK 논술적 쓰기·말하기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는 쓰기 영역에서 마지막 문제 유형으로 주로 사회적 현상이나 시사적 이슈와 관련된 사회, 경제, 교육, 환경 문제 등을 주제로 출제된다. 출제 방식은 약 100글자 안팎의 주제문과 이에 대한 3가지의 하위 과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최근 2023년 91회의 기출 문제 및 모범 답안을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표 1〉 91회 한국어능력시험 논술적 쓰기 기출 문제

54. 다음을 참고하여 600-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개인과 집단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되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의 등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1. 가짜 뉴스가 생겨나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2. 가짜 뉴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3.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표 2〉 91회 한국어능력시험 논술적 쓰기 모범 답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해 이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정통적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역시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가짜 뉴스의 등장도 그 문제 중 하나이다.

가짜 뉴스는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 편협한 사고를 형성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소재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경우 이미지 타격과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뉴스는 혐오를 확산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한다. 나아가 정치 및 외교적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라 말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불법적 행위임을 규정하고, 가짜 뉴스 단속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가짜 뉴스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나아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짜 뉴스가 정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699자)

이상의 <표 1>에서 제시된 논술적 쓰기 문제는 ‘가짜 뉴스의등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600-700자 분량의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생겨나는 사회적 배경’, ‘가짜 뉴스로 인해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에 대한 논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표 2>의 모범 답안을 통해 학습자가 ‘가짜 뉴스’라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짜 뉴스는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 편협한 사고를 형성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소재가 되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경우 이미지 타격과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기도 한다”와 같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 부정적 영향과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는 가짜 뉴스의 발생 원인,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배경지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통해 관련 어휘 및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말하기시험은 기준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달리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 평가(Internet Based Test, IBT)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토픽 I·II와 분리되어 다른 날짜에 개별 시행되고 있으며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총점은 200점 만점이다(양세정, 2023:541 재인용). 시험 등급은 척도 점수 범위로 0-19점 불합격, 20-49점은 1급, 50-89점은 2급, 90-109점은 3급, 110-129점은 4급, 130-159점은 5급, 160-200점은 6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홍은실 외(2016)에서 말하기 평가 1-6문항은 친숙한 일상대화부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발언까지 생활적인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말하기 능력도 함께 고찰된 전면성이

가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말하기시험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말하기 문제 유형은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한국어말하기시험 문제 유형

1번	질문에 대답하기
2번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
3번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4번	대화 완성하기
5번	자료 해석하기
6번	의견 제시하기

이상의 <표 3>을 통해 한국어말하기시험의 문항 구성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6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문항은 1번 ‘질문에 대답하기’, 2번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 3번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4번 ‘대화 완성하기’, 5번 ‘자료 해석하기’, 6번 ‘의견 제시하기’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 한국어말하기시험에서 논술적 말하기를 살펴보기 위해 6번 문항, 즉 ‘의견 제시하기’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의견 제시하기’ 유형은 전문 분야, 사회적 이슈나 추상적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맥락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논술적 말하기 유형 ‘의견 제시하기’는 말하기 평가 문항 중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아래 <표 4>에 제시된 예시 문항 및 모범 답안을 통해 한국어말하기시험에서 논술적 말하

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한국어능력시험 논술적 말하기 예시 문제 및 모범 답안

<p>잘못에 대한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사과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과는 왜 중요하고, 사과를 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십시오.</p>
<p>모범 답안: 사과란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을 한 사람과 상처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실수를 바로잡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과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보여 주기 식의 성의 없는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태도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이러한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됩니다.</p>

현행 한국어말하기시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출 문제가 제시되지 않아 〈표 4〉처럼 예시 문제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표 4〉의 예시 문제를 통해 한국어말하기시험의 6번 문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위에 제시된 예시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제 방식에서는 한국어말하기시험의 6번 문제는 100글자 정도의 주제문에 대한 하위 3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바탕으로 말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제문으로 ‘잘못에 대한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가 제시되며, 이에 따른 하위 과제로 각각 ‘사과란 무엇인가’, ‘인간관계에서 사과는 왜 중요한가’ 및 ‘사과를 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학습자가 ‘사과’라는 화제에 대해 개념적 정의, 중요성 등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범 답안에서 “사과이란... 의미합니다”와 같이 표현된 사례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논술적 말하기는 출제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다음 <표 5>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5> 논술적 쓰기와 논술적 말하기의 출제 공통점

1. 출제 주제 유형	사회적 현상이나 시사적 이슈. 예: 사회 문제, 경제, 교육, 환경 문제와 같은 주제 유형
2. 출제 방식 특징	100글자 안팎의 주제문과 이에 대한 3가지의 하위 과제를 제시하는 형식

<표 5>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논술적 말하기의 출제 공통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출제 주제 유형은 학습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개인적 소재보다는 사회적 주제를 위주로 출제된다. 또한 출제 방식에서는 하나의 주제문이 하위 3개의 소과제의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점으로 출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하나의 논술적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어로도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쓰고 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SIOP 모델과 내용 중심 교수법

SIOP는 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이라고 한다. Sheltered Instruction는 내용 중심 교육이라는 뜻이고, 언어 능력이 제한된 학습자를 위한 설계된 교수법으로, 학습자가 언어와 학문적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전략을 조정하는 접근 방식이다. Observation Protocol는 관찰 지침이라는 뜻인데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즉 SIOP 모델은 언어와 내용의 통합 학습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들이 학문적 내용을 배우는 동시에 목표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IOP 모델은 내용 중심 교수법의 한 유형으로 1996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은 1980년대 이후에 발달한 것으로 내용과 언어를 통합적으로 교수 학습하는 방법이다(김지연, 2012:12 재인용). 용소(2020)에 따르면 내용중심 교수법은 구체적인 교수 패턴이 아닌 교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원리는 다음과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표 6〉 내용 중심 교수법의 네 가지 원리

<p>1. 언어 그 자체만 배우는 것에 목적을 둔 것 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써 언어를 사용할 때 외국어나 제 2언어를 훨씬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 즉 내용 중심 교수법은 언어를 통한 언어 교수가 아닌 내용을 통한 언어 교수이다.</p>
<p>2. 제 2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p>
<p>3. 내용은 제 2언어 학습의 출발점인 인지적, 상호작용적 과정을 활성화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의미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면 다양한 인지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p>
<p>4. 교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4가지 기능-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교수법에서는 듣기, 말하기 기능을 우선으로 한 후, 읽기와 쓰기 순서로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내용중심 교수법은 고정된 교수 순서가 없다.</p>

또한 내용 중심 교수 모형은 몰입학습 모형, 주제 중심 모형, 병존 모형과 보호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보호 모형(SI: Sheltered Instruction)은 Krashen에 의해 만들어진 모형으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들과 함께 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따로 분리된 학급에서 목표어를 사용하여 교과목 내용의 전문가로부터 별도로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이후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보호 교수 모형 중 하나인 SIOP 모델은 가장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된 모형이다(오문희, 2016:13 재인용).

SIOP 모델의 Echevarría(2008)에서 총 8 요소로 나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7〉 SIOP 모델의 8 요소

1. Lesson Preparation	수업 준비
2. Building Background	배경지식 쌓기
3. Comprehensible Input	이해가능한 입력
4. Strategies	전략 사용
5. Interaction	상호작용
6. Practice & Application	연습 및 적용
7. Lesson Delivery	수업 전달
8. Review & Assessment	복습 및 피드백

그리고 SIOP 모델의 8단계는 하휘 30가지 교수 지침을 김지연(2012)에 따라 다음 〈표 8〉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8) SIOP 모델의 단계별의 교수 지침 30

1. 수업 준비	1. 내용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표시되며 학생들과 함께 검토 되어져야 한다.	2. 언어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표시되며 학생들과 함께 검토 되어져야 한다.	3. 연령 및 교육적 배경 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 구성.	4. 고도로 활용되는 보조 자료는 수업을 명확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	5. 학습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모든 학습 숙련도를 고려해야 한다.	6. 수업 내용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언어연습 기회와 통합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준비한다.
2. 배경 지식 쌓기	7. 학생들의 경험과 연계된 명시적인 개념을 활용하라.	8. 과거의 학습과 새로운 개념을 명확하게 관련짓게 한다.	9. 핵심단어를 강조한다.			
3. 이해 가능한 입력	10. 학생들의 숙련도가 고려된 적합한 말하기를 제시해야 한다.	11. 학문적 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	12.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4. 전략 사용	13. 학생들이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14.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비계기술로 학생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15.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질문이나 과제가 있어야 한다.			
5. 상호 작용	16. 교사는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정교한 대응을 촉진시켜야 한다.	17. 언어 목표 및 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룹을 구성한다.	18.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9. 필요하면 보조 교사 (학부모 포함), 자기나라 말로 된 교재나 글을 이용해서 모국어로 핵심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연습 및 적용	20. 강의실에서 새로운 내용 지식을 사용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실습 자료 및 조작 자료를 제공한다.	21. 학생들이 내용 및 언어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활동을 한다.			
7. 수업 전달	23. 수업 전달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되는 내용 목표.	24. 수업 전달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되는 언어 목표.	25. 90% ~ 100% 학생 참여 시키기.	26.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의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8. 복습 및 피드백	27. 핵심 어휘에 대한 종합적 검토.	28. 핵심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29.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30. 수업 시간에 제시된 모든 수업 목표에 대한 학생의 이해 및 학습 내용 평가하기.		

이상의 SIOP 모델의 단계별의 교수 지침 30은 SIOP 모델의 전부적인 내용을 포함된다. 준비 단계에서의 내용과 언어 목표를 명확히 설정,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 구성, 통합 언어 기능 학습 등을 요구한다. 배경지식 쌓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과거 학습과 현재 학습할 내용을 관련짓게 한다. SIOP 모델 2번의 배경지식을 쌓기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눈다. 첫째는 학습자가 과거 경험을 활성화하고 이미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둘째는 새로 배울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의 확장으로 이루어진다.

2.3 배경지식과 한국어능력시험 논술적 쓰기·말하기의 연계성

배경지식은 종종 스키마(Schema)라는 개념과 동일시되고는 한다.²⁾ 스키마는 개인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지식 구조를 의미한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스키마는 학습자의 스키마 활동을 촉진하여 다양한 인지적 과업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내용 이해를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이러한 배경지식은 다시 문화적 지식, 기술적 지식, 종교적 지식, 어휘 지식 등으로 세분화된다. 제 2언어 교육에서 배경지식에 관한 연구는 특히 영어 교육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Leaser(2004)와 Markham & Latham(1987)의 연구에서는 배경지식이 제 2언어 학습자의 읽기와 듣기 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과제 주제에 대한 주제 배경지식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과제 설계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간주되며 이 요인은 과제 기반 이론에서 중요한 변수로 포함되어 왔다.(Skehan, 2014; Robinson,

2) 허재영(2021)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배경지식과 스키마를 동일시하거나 두 개념을 배경지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 Bachman & Palm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 언어 능력 모형에서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바로 세상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orld)을 제시하고 있다.

배경지식이 한국어 표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해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말하기의 평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제시된 논술적 쓰기와 말하기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및 과제 수행’이라는 평가 범주에서 제시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 <표 9>와 <표 10>을 통해 제시한다.

<표 9> 논술적 쓰기 평가내용³⁾

내용 및 과제 수행	1.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2.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3.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표 10> 논술적 말하기 평가내용⁴⁾

내용 및 과제 수행	1. 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표현하였는가?
	2. 주어진 과제를 풍부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3. 답화 구성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3) 쓰기 평가 내용의 일부를 밝힌다

4) 말하기 평가 내용의 일부를 밝힌다.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말하기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배경지식은 수험생의 언어적 표현 능력을 넘어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담화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9>에서 1번의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와 2번의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와 같은 항목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 표현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충족되기 어렵다. 이 항목들은 수험생이 해당 주제에 대해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쓰기 평가에서 수험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내용 구성에서 단조롭거나 피상적인 답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관련 배경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주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며 풍부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하기 평가에서도 배경지식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담화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나 세부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험생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논술적 쓰기와 말하기 평가 내용에서 배경지식은 단순한 참고 요소가 아닌 과제 수행 능력과 표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김선옥(2014)에서는 제 2언어로 글을 작성할 때 주제가 수험생에게 익숙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주제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적 자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Langer(1986)에서도 학습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 문화적인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에 그 주제에 관해서 완전히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학습자가 쓰기 과제에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글쓰기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말하기 영역에서도 배경지식이 없는 주제에 대해 수행을 요구받을 경우 학습자는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꾸준히 확장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3. 선행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SIOP 모델과 관련된 연구는 오문희(2016), 강현주(2015) 등이 있다.

오문희(201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SIOP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문학교육의 교수 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 「동백꽃」을 선정하여 상향식 PPP 교수 학습 모형을 기준으로 SIOP 모델을 그 단계에 해당하는 주요 요소들로 적용시켜 PPP 교수 학습 모형과 SIOP 모델을 3차시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 학습자가 문학 작품의 배경지식 확장을 중심으로 수업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교수이다. 2차시에서는 어휘, 표현 문법의 언어 학습과 작품의 내용 이해로 수업의 제시, 설명, 연습으로 구성하고, 3차시 활용 단계에서 앞서 학습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현주(2015)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배경지식 확장을 위한 SIOP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요구 분석 결과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표현 영역이 어렵다

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에 비해 이해 영역인 읽기와 듣기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극히 적은 6.3% 불과였다. 한국 대학교에 수학하면서 한국어 듣기, 읽기보다는 쓰기와 말하기가 더 어려운 점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요구 조사한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목표는 한국어 능력 증진이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SIOP을 활용한 배경지식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4. SIOP 모델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

SIOP 모델을 활용하여 PPP 교수 학습 모형과 융합시키고 한국어 중·고 급 학습자를 위한 ‘한류’ 및 ‘한류’와 둘러싼 논의 중심 문제는 아래 3가지로 제기하고 이를 학습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하도록 쓰기과 말하기 연계 연습 목표로 설계한다.

〈표 11〉 주제 ‘한류’를 중심으로 하위 3가지 소과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류를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 한류가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한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본 교육 방안은 학습자들이 이상의 3가지 질문을 더욱 논리적으로 쓰기과 말하기를 통해 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류’로부터 작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와 관련 자료, 어휘 등으로 이어지고 , 마지막으로 쓰기과 말하기를 연결되는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수업 준비 - 학습 목표 명확화

내용 영역: 한류의 정의, 주요 특징, 그리고 한류가 한국 및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언어 영역: 학습한 핵심 어휘와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배경지식을 활성화: 수업 초반에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을 자극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 한류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와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1) 퀴즈: “K-POP 그룹 중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무엇인가요?”

2) 질문: “한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한류와 관련된 경험이나 흥미로운 이야기(예: 좋아하는 K-POP 그룹, 드라마 등)가 있나요?”

■ 이해 가능한 입력: 학습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한다.

읽기 자료: 한류 읽기 자표, 보도 자료

시각 자료: 한류 관련 영상과 이미지 자료

■ 전략 사용

1. 정보 습득 및 분석: 한류와 관련된 읽기 자료와 시청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2. 마인드맵 작성: 한류가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 상호작용 촉진: 소그룹 활동과 교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 연습 및 응용

쓰기 과제, 말하기 과제

■ 평가 및 피드백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과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어휘 및 형태소 사용 양상, 화제 진행 유형과 주제 깊이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은 이상의 SIOP모델의 8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화한 교육 방안을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중·고급 학습자에게 배경지식을 확장을 위한 교육 방안

학습 단계	중·고급
수업 시간	50분
학습 목표 (1. 수업 준비)	1. 한류의 정의 및 영향을 이해한다. 2. 핵심 어휘와 개념을 사용해 생각을 표현한다.

수업 단계	학습 내용
도입 (2. 배경지식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목표 및 주제에 대한 소개: ‘한류가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의 사전 지식 정도, 관심사 확인 및 흥미를 유발: “한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한류와 관련된 경험이나 흥미로운 이야기 (예: 좋아하는 K-POP 그룹, 드라마 등)가 있나요?” ▶ 간단한 토론을 이어진다.
제시 (3. 이해 가능한 입력 4. 전략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활동: 읽기 자료 제공 및 어휘 학습 단계 - 읽기 자료에서 선정된 어휘: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 디지털 플랫폼, 소셜 미디어, 문화 소비, 제작 품질, 자리매김, 문화적 혁신, 상호작용 - 어휘 학습 방법: 어휘와 간단한 정의 및 예문 제공 예: ‘소프트 파워: 국가가 문화 아이디어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 시각 자료 활용: - 활동 내용: 한류 관련 통계 차트 및 영상(예: K-POP 공연, 영화, 드라마) 시청 - 시각 자료를 활용한 간단한 질문: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통계 자료를 보고 어떤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나요?”

<p>학습 (5. 상호작용 촉진)</p>	<p>▶ 읽기 자료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목표: 읽기 자료를 통해 한류의 개념, 확산 이유, 영향, 지속 가능 방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활동 내용: 자료를 부분별로 나누어 읽기, 1단락씩 읽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답하도록 한다. - 자료에서 주요 아이디어와 세부 사항을 찾는 활동(마이드맵 작성). - 한류가 글로벌 문화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거나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과제
<p>활용 (6. 연습 및 응용)</p>	<p>▶ 쓰기와 말하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를 주제로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산하여 글쓰기 과제 - 한류를 주제로 말하기 활동
<p>마무리 (8. 평가 및 피드백)</p>	<p>쓰기와 말하기 텍스트의 양적과 질적 비교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두 영역 간의 차이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이상은 본 연구에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SIOP 모델을 활용해 제시한 교육 방안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전 지식 활성화 활동: 학습 주제와 관련된 질문, 시각 자료, 키워드 활동

을 통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리도록 유도한다.

맥락 제공: 읽기 자료, 시각화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학습자의 경험이나 관심사와 맞추어 연결하여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협력 학습: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절에서 SIOP모델을 활용해 읽기, 쓰기와 말하기를 연계한 언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배경지식 확장과 함께 언어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학습자는 ‘한류’라는 주제를 학문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탐구하며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학습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5. 결론

그간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으로 SIOP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내용 기반 교수법과 언어 목표의 통합을 지향하는 SIOP모델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콘텐츠 속에서 목표 언어를 유기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표현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장 적용 측면에서는 다층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교사의 이중언어적 전문성 확보, 학문적 목표와 언어 목표의 균형 잡힌 수업 설계, 그리고 문화 간 이해를 반영한 평가 체계 구축 등이 실제 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장벽으로 드러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확정된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목표 언어 사용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문화 간 감수성을 함양하는 통합적 교수 모델 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기능 전달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진정한 의미 협상 도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연(2012). “SIOP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초
등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
학원.
- 강지혜(2010). “다문화 영미 그림책 활용 SIOP model에 기반한 어휘 활동을
통한 내용 및 언어 통합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오문희(2016). “SIOP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문학교육 방안 연구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
문학과.
- 용소(2020). “내용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문화와 한국어 통합 교육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수업 수필 <설>을 중심으로-”, 중앙대
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
- 홍은실, 박현정, 조수진, 민병근, 안현기, 오예림, 강석한(2016). “학문 목적 한
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한국어 교육 27.4
(2016): 243-268.
- Echevarria외(2008), 『MakingcontentcomprehensibleforEnglishlearners:
the SIOPmodel』, Boston:Pearson.

ABSTRACT

A teaching and learning instruction plan to expand TOPIK writing and speaking background knowledge

-With a focus on using the SIOP-

Xiaotong Wa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tudied an educational plan to expand background knowledge for middle and high-end Korean learners using the SIOP model. To materialize this, an integrated education plan for writing and speaking was proposed by fusion of eight components of the SIOP model and a bottom-up PPP teaching learning model.

Specifically, there are many things in common in the ques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ssay writing and essay speaking in the Korean proficiency test. In other words, Korean learners can not only write but also speak on the same essay topic. Therefore, in this study, Korean learners select relatively unfamiliar topics and expand background knowledge through a method that can understand various data through the SIOP model. Next, the ability to express writing and speaking sequentially using the expanded background knowledge on the subject is then reinforced. Finally, it is possible for the teacher

to provide specific feedback by comparing the learner's writing and speech texts.

Through the above research,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educational importance. First, the expansion of background knowledge is important in learning Korean. Prior learning activities (e.g., reading related texts, discussing, using audiovisual materials, etc.)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to supplement background knowledge on topics where learners do not have background knowledge. Second, an integrated education of writing and speaking is necessary. Rather than teaching writing and speaking separately, it should be designed so that learners experience the connection between two language functions by using them complementarily. Finally, it is important to provide customized feedback. Specific feedback should be provided based on the learner's text. Through this, learners can grasp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by helping to develop text production ability.

Keywords: Korean proficiency test essay writing and essay speaking, SIOP model, background knowledge expansion, writing and speaking integrated education

통합적 자료를 활용한 감탄사 화용 인지 연구

윤 경 미
(숙명여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감탄사 교육의 중요성
 - 2.2.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 3.2. 연구 자료
4. 연구 결과 및 분석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탄사 인지 방식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탄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 79명을 대상으로 감탄사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탄사가 사

용된 다양한 맥락을 제시하기 위해 동영상 자료(드라마, 예능, 시사 프로그램)와 웹툰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의 의미를 맥락과 화자·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를 특정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Hall(1976)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조화를 반영하는 함축적 표현으로 기능하는 반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명시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탄사의 교육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감탄사 학습이 단순한 어휘 습득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감탄사의 의미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감탄사 인지의 문화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감탄사의 교육 방안을 실제 학습 환경에서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탄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감탄사 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

핵심어: 한국어 감탄사 교육, 감탄사 인지도, 동서양 문화권 학습자,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감탄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효율적인 감탄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는 단순한 문법적 구조를 넘어 화용적 기능과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감탄사는 발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담화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감탄사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억양, 표정, 몸짓)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감탄사가 단순한 문법적 요소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화용적 표현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탄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홀(Edward T. Hall)은 문화를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의사소통에서 맥락이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로 구분하였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메시지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비언어적 요소(맥락, 상황, 분위기,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즉, 발화 자체보다 주변 정보와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표현된 언어 자체보다 발화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정보 전달이 명확한 언어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

지며 대화에서 맥락적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발화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문맥보다 문장 자체가 중심이 되며 발화 내용의 명확성과 직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감탄사의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정서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조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맥락적 해석이 중요하다. 반면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보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 및 정보 전달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감탄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감탄사의 학습과 교육은 단순한 단어 습득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감탄사를 독립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어휘의 하나로 보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감탄사는 맥락적 요소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탄사의 화용적 요소를 반영한 교육 접근법을 탐색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감탄사 교육의 중요성

감탄사는 구어에서 자주 활용되며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대화의 흐름을 조정하고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탄사는 발화 맥락, 화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친밀도 등의 요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는 감탄사를 교재를 통해 접하지만 감탄사가 담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감탄사가 본문이나 대화 예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감탄사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탄사는 어휘 색인 목록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주요 문장의 보조적인 역할로 나타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습, 가치관, 사고방식 등 언어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감탄사의 적절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정애(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탄사는 인간 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개별 문화만이 갖는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 ‘거참’, ‘깜짝이야’, ‘만세’, ‘아야’와 같은 한국어 고유의 감탄사는 학습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탄사의 학습과 활용은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담화 내에서의 적절한 사용은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감탄사의 의미는 단순한 언어적 해석을 넘어 발화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감탄사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하지 않으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는 감탄사가 어휘적 요소로 다루어지거나 단순한 감정 표현 도구로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감탄사는 맥락적 해석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2.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Hall(1976)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이론은 감탄사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감탄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발화 상황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가 조정되는 화용적 요소이므로 감탄사의 교육적 접근을 논의할 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고맥락 문화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물리적 맥락 안에 있거나 의사소통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의 구성 요소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 반대로 저맥락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언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맥락이나 참여자 내부에는 정보나 의미가 거의 담겨져 있지 않다.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그들 주변 환경과 주위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언어적인 의사소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고맥락 문화에서 많은 정보는 대체로 환경 안에 존재하며 심지어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언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Porter와 Samovar 1994, 고경숙(2008)에서 재인용).

고맥락 문화에서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비언어적 신호(억양, 표정, 몸짓 등)에 내재되어 있으며 메시지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직접적이지 않고 암묵적이며 함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단순한 어휘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서적 조화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감탄사는 맥락 의존적이며 발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언어적 표현 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의사소통에서 언어 메시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발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명확한 언어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맥락보다 발화의 문자적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감탄사의 사용 방식이 고맥락 문화권과 비교할 때 덜 암시적이며,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감탄사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맥락 문화권의 학습자는 감탄사를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감탄사 교육에서 상황별 의미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저맥락 문화권 학습자는 감탄사를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감탄사가 함축하는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감탄사의 사용이 맥락 의존적인지, 발화 자체의 명확한 의미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탄사 학습과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 차이가 감탄사의 사용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감탄사 교

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감탄사의 학습이 단순한 어휘 습득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맥락과 문화적 함의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논점 중 하나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감탄사의 인지 및 이해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감탄사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용 감탄사로 선정한 60여 개의 감탄사가 담화 상황에서 사용될 때 한국어 학습자가 감탄사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는 총 86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으며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 3명과 응답의 정확도가 낮은 3명을 제외한 총 79명의 응답 데이터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1) 응답자의 언어권별 구성을 살펴보면 동양어권 학습자가 50명, 서양어권 학습자가 29명으로 다소 불균형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비율 차이는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2024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는 중국(34.5%), 베트남(26.8%), 몽골(5.9%), 우즈베키스탄(5.8%), 일본(2.5%) 순으로 나타나 동양어권 학습자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동양어권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로 판단된다.

3.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감탄사 인지도 조사를 위해 동영상 자료(드라마, 예능, 시사 프로그램)와 웹툰 자료를 활용하였다.

감탄사의 의미는 음성적 요소(억양, 강세, 속도 등)와 시각적 요소(표정, 몸짓, 시선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동영상 자료는 비언어적 요소(억양,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를 제공하여 화자가 해당 감탄사를 사용하게 된 맥락과 감탄사 발화 후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들을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감탄사의 실제 발음, 속도, 강세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감탄사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감탄사의 의미 기능 해석이 주 목적일 경우, 시각적·청각적 요소가 많을 경우 감탄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변 정보(배경 소리, 음악, 배우의 연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감탄사의 화용적 의미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 다른 요인들이 간섭 변수가 될 수 있다.

웹툰 자료는 시각적 정보는 제공하지만 음성적 요소가 배제됨으로써 감탄사 해석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적인 장면을 기반으로 감탄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학습자가 감탄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비언어적 요소가 빠져 있어 감탄사의 실제 의미 전달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감탄사는 음성적 요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웹툰 자료는 이러한 음성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감탄사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자료와 웹툰 자료를 통합, 활용하였다. 설문 조

사 후 응답자를 동양어권 학습자와 서양어권 학습자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설문 조사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그림 1>~<그림 8>과 같이 한국어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는 담화 상황 영상, 웹툰 자료 60여 개를 보여 주고 해당 감탄사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학습자가 생각한 응답이 보기에 없을 경우 의미 기능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²⁾

<그림 1> 감탄사 ‘아니요’ 인지도 조사 자료



2) 감탄사 의미 기능의 보기는 다음과 같으며 33번~36번, 기타 응답은 학습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다. 보기 항목은 한국어 능력 6급 이상의 학습자 3명에게 pre-test를 실시하여 조율하였으며, 모든 문항을 개방형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보기의 개수가 다소 많더라도 구체적인 의미 기능이 제시되는 것이 응답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감탄	2. 기쁨	3. 대답(긍정)	4. 깨달음	5. 안심	6. 반가움
7. 겸손	8. 행동유발	9. 체념	10. 떠오름	11. 부름	12. 부탁
13. 주의집중	14. 되물음	15. 시간끌기	16. 불확실한 태도	17. 대답(부정)	18. 어이없음
19. 놀람	20. 당황	21. 힘들	22. 불만	23. 곤란	24. 슬픔
25. 아픔	26. 안타까움	27. 좌절	28. 속상함	29. 화남	30. 피로움
31. 당연함	32. 자랑	33. 충격	34. 실망	35. 불안	36. 긴장
기타: 걱정, 공감, 긴장, 놀림, 동의, 만족, 망설임, 미안함, 부끄러움, 불신, 시원함, 신남, 싫음, 역겨움, 응원, 짜증, 회상, 흥분					

<그림 2> 감탄사 ‘하’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3> 감탄사 ‘싯’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4> 감탄사 ‘흥’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4> 감탄사 ‘흥’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6〉 감탄사 ‘짹(짜잔)’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7〉 감탄사 ‘악’ 인지도 조사 자료



〈그림 8〉 감탄사 ‘이런’ 인지도 조사 자료



60여 개의 문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5$)를 보이는 것은 50 개였으며, 교차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해석한 결과 동양어권 학습자와 서양어권 학습자가 감탄사를 화용적으로 다르게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동양어권과 서양어권 학습자들이 감탄사의 화용적 의미를 다르게 인지하고 사용함을 보여 준다. 이는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감탄사가 단순한 어휘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적 함의를

포함하는 화용적 요소임을 시사한다.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권의 특징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등은 고맥락 문화로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비언어적 요소(표정, 몸짓, 분위기 등)에 담겨 있으며 맥락 의존도가 높아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환경, 대화의 전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발화의 많은 부분이 맥락적 요소(비언어적 신호, 대화의 배경, 화자의 의도 등)에 의존하며 메시지가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의 나라들은 저맥락 문화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메시지의 대부분이 말이 글을 통해 직접 전달되며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메시지 자체에 명확히 담겨 있다. 또 맥락 의존도가 낮아 대화의 배경이나 분위기보다는 대화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설문 조사 항목 중 몇 개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감탄사 ‘네?’의 인지도 조사 결과

p<.05

감탄사	의미 기능	구분		전체	χ ²	p
		동양	서양			
네?	되물음	0(0%)	1(3.4%)	1(3.4%)	21.524	0.006
	놀람	37(74%)	19(65.5%)	56(70.9%)		
	당황	6(12%)	0(0%)	6(7.6%)		
	힘듦	1(2%)	0(0%)	1(1.3%)		
	불만	1(2%)	0(0%)	1(1.3%)		
	곤란	4(8%)	0(0%)	4(5.1%)		
	좌절	1(2%)	4(13.8%)	5(6.3%)		
	충격	0(0%)	2(6.9%)	2(2.5%)		
	실망	0(0%)	3(10.3%)	3(3.8%)		
	전체	50(100%)	29(100%)	79(100%)		

한국어 감탄사 ‘네?’를 어떤 의미 기능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양어권 학습자는 대부분 놀람(74.4%), 당황(12%)으로 인지하였다. 서양어권 학습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놀람(65.5%)으로 동양어권 학습자와 동일하지만 이외에 좌절(13.8%), 실망(10.3%), 충격(6.9%)으로 인지한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조화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네?’를 대체로 직접적인 감정 표

현보다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놀람과 발생한 상황에 대한 당황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언어적 표현이 감정 전달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서양어권 학습자들이 ‘네?’를 단순히 놀람으로만 인지하지 않고 ‘좌절’, ‘충격’, ‘실망’과 같은 감정으로 더 세분화하여 응답한 것은, 저맥락 문화에서 감정과 정보 전달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며 발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네?’라는 감탄사를 단순히 놀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부여하여 더 명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탄사 ‘네?’의 학습자 인지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동양어권 학습자: 놀람(74%), 당황(12%)으로 인지. 맥락적 반응 중시
- 서양어권 학습자: 놀람(65.5%), 좌절(13.8%), 실망(10.3%), 충격(6.9%)으로 해석. 언어적 표현 중시.
- 문화적 차이: 고맥락 문화에서는 상황적 반응, 저맥락 문화에서는 명시적 감정 전달 강조.

다음의 <표 2>는 감탄사 ‘여보’의 인지도 조사 결과이다.

〈표 2〉 감탄사 ‘여보’의 인지도 조사 결과

p<.05

감탄사	의미 기능	구분		전체	x ²	p
		동양	서양			
여보	부름	29(58%)	14(48.3%)	43(54.4%)	29.550	0.005
	주의 집중	7(14%)	2(6.9%)	9(11.4%)		
	놀람	1(2%)	0(0%)	1(1.3%)		
	불만	3(6%)	0(0%)	3(3.8%)		
	곤란	4(8%)	0(0%)	4(5.1%)		
	안타까움	1(2%)	0(0%)	1(1.3%)		
	속상함	0(0%)	5(17.2%)	5(6.3%)		
	화남	5(10%)	1(3.4%)	6(7.6%)		
	괴로움	0(0%)	3(10.3%)	3(3.8%)		
	걱정	0(0%)	4(13.8%)	4(5.1%)		
	전체	50(100%)	29(100%)	79(100%)		

감탄사 ‘여보’의 인지도 조사는 늦은 시간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술을 여러 병 마시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게 다 뭐야? 내일 출근은 어찌려고. 그만 마셔, 여보.”라고 하는 장면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감탄사 ‘여보’의 인지 결과에서도 동양어권 학습자들이 아내의 발화를 부름(52%), 주의 집중(14%), 곤란(8%), 화남(10%)으로 주로 해석한 것은 발화가 이루어진 상황,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의 전반적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발화를 남편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부름’과 ‘주의 집중’으로 인지한 것이다. 인터뷰에서도 다수의 학습자들은 감탄사 ‘여보’가 발화 맥락에서 남편을 부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로 이름 대신 ‘여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표현한 것 같다.”고 응답하여 아내와 남편 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단순히 남편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맥락적 의도가 있는 발화로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여보’를 주의 집중의 신호로 해석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는 동양어권 학습자들이 감탄사를 담화의 흐름을 조정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환기하는 도구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반영한다. 아내가 남편의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탄사 ‘여보’를 사용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들이 아내의 발화를 부름(48.3%) 이외에 속상함(17.2%), 괴로움(10.3%), 걱정(13.8%)과 같은 감정으로 해석한 것은 저맥락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에 부합한다. 학습자는 “아내가 남편을 부름으로써 그의 주의를 끌고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여보’가 아내의 속상함을 표현한다고 해석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저맥락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일치한다.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아내의 발화에서 남편의 행동에 대한 실망과 걱정의 감정을 읽어 내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걱정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발화의 언어적 표현이 화자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아내의 발화에서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속상해하며 괴로워하는 구체

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읽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동양어권 학습자: 부름(52%), 주의 집중(14%), 곤란(8%)으로 인지.
 맥락과 상호작용 중심 해석.
- 서양어권 학습자: 부름(48.3%), 속상함(17.2%), 걱정(13.8%)으로 인지.
 아내의 구체적 감정에 초점.
- 문화적 차이: 고맥락 문화에서는 관계 중심적 이해,
 저맥락 문화에서는 정서의 명시적 표현 중시.

감탄사 ‘여보’와 관련하여 동양어권, 서양어권 모두 ‘부름’으로 인지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으나 이외의 응답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감탄사 ‘짤’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 3〉 감탄사 ‘짤’의 인지도 조사 결과

p < .05

감탄사	의미 기능	구분		전체	χ ²	p
		동양	서양			
짤 (짜잔)	기쁨	3(6%)	4(13.8%)	7(8.9%)	19.965	0.018
	깨달음	0(0%)	2(6.9%)	2(2.5%)		
	반가움	0(0%)	1(3.4%)	1(1.3%)		
	행동유발	0(0%)	1(3.4%)	1(1.3%)		
	부름	5(10%)	6(20.7%)	11(13.9%)		
	주의집중	9(18%)	3(10.3%)	12(15.2%)		
	시간끝기	1(2%)	0(0%)	1(1.3%)		

	놀람	0(0%)	1(3.4%)	1(1.3%)		
	자랑	32(64%)	9(31%)	41(51.9%)		
	신남	0(0%)	2(6.9%)	2(2.5%)		
	전체	50(100%)	29(100%)	79(100%)		

감탄사 ‘짤’은 외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 중 한 명이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차려 두고 동료들이 주방으로 들어 오자 두 팔을 벌려 음식을 보여 주며 ‘짤!’이라고 발화하는 장면이다.

감탄사 ‘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동양어권 학습자는 ‘짤’을 주로 자랑(64%)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강조하거나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맥락적 신호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감탄사가 발화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능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짤’이 자신의 성취나 결과를 강조하고 이를 드러내는 의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짤’을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신호인 주의 집중(18%)으로 해석한 응답도 많았다. 이는 동양어권에서 감탄사가 청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대화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맥락 문화에서는 발화 자체보다 발화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짤’이 단순히 화자의 감정 표현을 넘어 담화의 흐름을 조율하는 도구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양어권 학습자의 응답 중 가장 많은 것 역시 ‘짤’을 자랑(31%)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지만 동양어권 학습자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 이는 서양 문

화권에서 감탄사가 발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사랑과 같은 의미를 별도의 발화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서양어권에서는 감탄사 ‘짤’만으로 사랑의 의도를 완전하게 전달하기보다는 감탄사를 사용한 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취나 결과를 언어적으로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메시지는 명확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된다는 특징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서양어권 학습자는 ‘짤’을 사용한 뒤 “내가 이걸 해냈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의미를 보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감탄사를 맥락적 신호로 사용하는 동양어권 학습자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와 달리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 ‘짤’만으로도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감탄사가 단독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와, 감탄사가 언어적 메시지를 보조하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 서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 ‘짤’을 기쁨(13.8%)의 표현으로 해석한 비율이 동양어권 학습자에 비해 높는데 이는 저맥락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화자의 내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서양어권에서는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짤’을 화자의 즐거움과 기쁨, 흥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 동양어권 학습자: 사랑(64%), 주의 집중(18%)으로 인지. 성취 강조 중심.
- 서양어권 학습자: 사랑(31%), 기쁨(13.8%), 부름(20.7%)으로 인지.

정서적 기능 중시.

•문화적 차이: 동양 문화권은 기능적 해석, 서양 문화권은 감정 표현 중시.

감탄사 ‘짤’의 경우 ‘자랑’으로 인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동양어권과 서양어권의 응답 비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감탄사 ‘악’의 인지도 조사 결과이다.

<표 4> 감탄사 ‘악’의 인지도 조사 결과

p<.05

감탄사	의미 기능	구분		전체	x ²	p
		동양	서양			
악	행동유발	4(8%)	2(6.9%)	6(7.6%)	26.486	0.003
	불확실한태도	0(0%)	1(3.4%)	1(1.3%)		
	어이없음	0(0%)	3(10.3%)	3(3.8%)		
	놀람	11(22%)	15(51.7%)	26(32.8%)		
	당황	0(0%)	1(3.4%)	1(1.3%)		
	곤란	3(6%)	0(0%)	3(3.8%)		
	아픔	27(54%)	6(20.7%)	33(41.8%)		
	화남	2(4%)	0(0%)	2(2.5%)		
	괴로움	3(6%)	0(0%)	3(3.8%)		
	충격	0(0%)	1(3.4%)	1(1.3%)		
	전체	50(100%)	29(100%)	79(100%)		

다음으로 감탄사 ‘악’의 인지도 조사는 편의점에서 학생 고객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던진 물건이 직원의 얼굴에 맞고, 그 순간 직원이 ‘악’이라고 발화하는 장면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감탄사 ‘악’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악’을 주로 아픔(54%), 놀람(22%), 곤란(6%)으로 해석하였으며 일부는 행동 유발(8%)의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동양어권 학습자들이 감탄사를 신체적 감각과 연관 지어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악’이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악’이라는 감탄사를 “신체적 고통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악’을 놀람(51.7%)의 의미로 가장 많이 해석하였으며 아픔(20.7%), 어이없음(10.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서양어권 학습자들이 감탄사를 보다 직접적인 감정 표현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신체적 통증보다는 순간적인 놀람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감정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들은 인터뷰에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파서 사용한 것보다 갑자기 겪은 일 때문에 놀랐다고 생각한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에겐 물건을 던져서 어이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저맥락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발화자의 정서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차이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발화의 의미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맥락, 비언어적 요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발화자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악’이라는 감탄사를 단

순한 언어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신체적 감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즉각적인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즉, 감탄사가 발화자의 신체적 경험(얼굴에 물건이 맞는 상황)과 결합하여 이해되며 해당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발화의 의미가 언어적 표현 자체에 집중되며 의사소통에서 감탄사는 정서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명확한 언어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악’을 신체적 고통을 나타내는 반응보다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당혹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감탄사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맥락 문화권에서 감탄사가 단순한 반사적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언어적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를 신체적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한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를 순간적인 감정 표현의 도구로 이해하는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동양어권 학습자: 아픔(54%), 놀람(22%), 곤란(6%)으로 인지.

신체적 감각과 맥락적 요소를 중심으로 감탄사를 해석. 감탄사를 발화자의 신체적 반응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경향을 보임.

•서양어권 학습자: 놀람(51.7%), 아픔(20.7%), 어이없음(10.3%)으로 인지.

감탄사를 순간적인 감정 표현의 도구로 이해. 신체적 고통보다는 놀람이나 당혹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해석.

•문화적 차이: 동양 문화권은 감탄사를 신체적 경험 및 상황적 맥락과 결합하여 해석.

서양 문화권은 감탄사를 정서적 반응을 명확히 전달하는 언어적 도구로 사용.

마지막으로 감탄사 ‘이런’의 인지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감탄사 ‘이런’의 인지도 조사 결과

p<.05

감탄사	의미 기능	구분		전체	x ²	p
		동양	서양			
이런	체념	5(10%)	2(6.9%)	7(8.9%)	35.029	0.001
	떠오름	2(4%)	0(0%)	2(2.5%)		
	주의집중	0(0%)	2(6.9%)	2(2.5%)		
	되물음	4(8%)	0(0%)	4(5.1%)		
	당황	0(0%)	2(6.9%)	2(2.5%)		
	불만	3(6%)	0(0%)	3(3.8%)		
	곤란	6(12%)	5(17.2%)	11(13.9%)		
	슬픔	5(10%)	0(0%)	5(6.3%)		
	아픔	0(0%)	1(3.4%)	1(1.3%)		
	안타까움	8(16%)	11(37.9%)	19(24.1%)		
	좌절	5(10%)	2(6.9%)	7(8.9%)		
	속상함	12(24%)	0(0%)	12(15.2%)		

	괴로움	0(0%)	2(6.9%)	2(2.5%)		
	실망	0(0%)	1(3.4%)	1(1.3%)		
	고민	0(0%)	1(3.4%)	1(1.3%)		
	전체	50(100%)	29(100%)	79(100%)		

감탄사 ‘이런’이 사용된 장면은 관광지지의 티켓이 매진되었음을 알게 된 후 화자가 예상했던 계획이 어긋났을 때 발화되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동양어권 학습자와 서양어권 학습자 간의 감탄사 해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동양어권 학습자는 속상함(24%), 안타까움(16%), 곤란(12%), 좌절(10%), 슬픔(10%) 등의 의미로 인식하였고 서양어권 학습자는 안타까움(37.9%), 곤란(17.2%), 주의 집중(6.9%), 당황(6.9%), 괴로움(6.9%) 등으로 해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의 의미를 단순한 언어적 요소가 아니라 상황과 감정을 결합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탄사를 화자의 감정적 상태(속상함, 안타까움)와 결합된 표현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웹툰에서 볼 수 있는 맥락적 요소(시각적 정보)인 표정, 몸짓 등의 움직임도 감탄사의 의미를 감정적 반응과 연결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터뷰에서 한 학습자는 “말하는 사람이 손을 머리에 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 실망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맥락 문화에서 감탄사의 의미를 발화 상황과 감정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경향, 비언어적 요소와 결합하여 의미가 확장되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서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 ‘이런’의 인지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습자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서 ‘이런’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한 실망보다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이 현재 상황이 곤란함을 표현하는 것 같다”, “들어갈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의미도 갖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는 저맥락 문화에서 감탄사가 맥락적 해석보다 상황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동양어권 학습자: 속상함(24%), 안타까움(16%), 곤란(12%), 좌절(10%)로 인지.
발화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결합한 표현으로 이해.
- 서양어권 학습자: 안타까움(37.9%), 곤란(17.2%), 주의 집중(6.9%), 당황(6.9%)으로 인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
- 문화적 차이: 동양 문화권은 화자의 감정과 맥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비언어적 요소와 결합하여 의미 확장.
서양 문화권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능 외에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한국어 감탄사에 대한 동서양 학습자의 응답 차이는 감탄사가 발화 상황과 맥락적 단서,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 준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관계와 신뢰를 중요시하며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화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도 청자가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과 분위기까지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관계보다 사실과 논리에 집중하며 대화의 맥락, 분위기보다 말이나 글의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감탄사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언어적 표현의 학습 및 사용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저맥락 문화권의 학습자들은 감탄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 전달 도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감탄사가 사용된 맥락보다는 사전적 의미와 용법을 학습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감탄사의 사용이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어 감탄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학습자가 감탄사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맥락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감탄사는 단순히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는 언어 요소가 아니라 발화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지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대화에서 오해를 초래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감탄사의 교육은 학습자가 해당 표현의 의미를 다양한 맥락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문화적 함의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감탄사의 의미는 주로 발화 맥락과 사회적 상황에 의존하여 결정되며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머!’라는 감탄사는 놀라움, 반가움, 긍정적인 감탄 등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발화 시점의 상황적 단서와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가 감탄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탄사의 사용 의도를 오해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양어권과 서양어권 학습자 간의 감탄사 해석 차이에서 드러나듯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은 감탄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탄사를 가르칠 때는 이를 정확

히 이해하도록 돕는 화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어 감탄사의 교육은 이해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표현 교육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 교육은 학습자가 감탄사의 화용적 의미와 맥락적 변화를 파악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는 감탄사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표현 교육은 이러한 이해를 실질적인 발화 능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며 학습자가 감탄사를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감탄사 교육은 이해와 표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동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를 발화 맥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함축적이고 복합적인 정서를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를 특정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화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감탄사 교육에서 발화 맥락과 언어적 명시성을 조화롭게 다루어야 함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

서양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비언어적 요소(억양, 표정, 강세, 맥락 등)가 감탄사의 의미 기능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한국어 감탄사를 맥락 안에서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동양어권 학습자들에게는 감탄사가 세부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그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인지도 조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어권 학습자:

- 맥락 중시: 발화 상황,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속에서 함축적이고 암시적으로 이해
- 암시적 해석: 감탄사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인식
- 명시적 표현 학습: 상황에 따라 감탄사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감정으로 이해하도록 학습
- 다양한 맥락에서의 유연성 훈련: 감탄사가 맥락에 따라 암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명시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학습하도록 지도

•서양어권 학습자:

- 명시적 전달: 감탄사를 화자의 심리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
- 구체적 해석: 감탄사의 의미를 특정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
- 맥락적 변화 이해: 발화 맥락에 따라 감탄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지도
- 암시적 의사소통 훈련: 한국어 감탄사의 함축적 의미와 암시적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도록 유도

인지도 조사 결과 감탄사가 발화 맥락, 사회적 관계,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감탄사 교육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발화 맥락, 문화적 비교, 감정 표현의 복합성, 비언어적 요소와의 연계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감탄사의 화용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감탄사 인지 방식이 문화적 배경, 특히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동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의 의미를 발화 상황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서양어권 학습자들은 감탄사를 특정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감탄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탄사 인지도 조사 결과를 통해 감탄사는 단순한 어휘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화용적 요소로 학습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서양어권 학습자는 감탄사의 맥락적 변화와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감탄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서양 학습자가 한국어 감탄사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감탄사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실러버스 설계 및 적용 과정은 다루지 못한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탄사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경숙(2008), 「문화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사의 역할」, 언어와 문화, 4(3), 1-2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정은(2004), 『한국인의 문화간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 김한샘(201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백락 문화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2009), 「한국어 빈말 인사 표현의 사용 양상과 특징」, 언어와 문화, 5(1), 65-8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오승신(1994), 「感歎詞의 本質」, 이화어문논집, 13, 71-8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 이정애(2011), 「NSM에 기초한 국어 간투사의 의미 기술」, 한국어 의미학 36, 313-333, 한국어의미학회.
- 이준호(2008),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의문문 교육 연구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문문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9, 281-30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혜영(2016), 「한국어교육에서의 비교문화적 화행 연구와 교육적 적용」, 국어국문학 176, 91-113, 국어국문학회.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최윤희, 김숙현(1997),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범우사.
-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dward T. Hall(1976), Beyond Culture, Anchor Books. 최효선 역(2013), 『문화를 넘어서』, 한길사.

Porter, R. & Samovar, L.(1994),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Porter, R. & Samovar, L.(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7th Ed.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설문 조사 자료

· 도서 및 웹툰

백종원(2019), 『백종원의 도전 요리왕 3: 이탈리아』, 위즈덤하우스.

조경규(2020), 『오무라이스 잼잼』, 송송책방.

네이버 웹툰 <불편한 편의점>

· 방송 프로그램

JTBC <아는 형님>

MBC <일당백집사>

TVING <술꾼도시여자들>

tvN <갯마을 차차차>

ABSTRACT

A Cognitive-Pragmatic Study of Exclamations through Integrated Data

Yun, Kyung-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Korean language learners perceive interjections based on their cultural backgrounds and to explore effective directions for interjection education. To achieve this, an interjection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with 79 advanced Korean learners, utilizing video materials (drama, entertainment,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and webtoon materials to present various contexts in which interjections are used. The results indicate that East Asian learners tend to interpret interjections based on contex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whereas Western learners tend to perceive interjections as tools for directly expressing specific emotions. This finding aligns with Hall's (1976) high-context and low-context culture theory, which suggests that interjections function as implicit expressions reflecting soci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harmony in high-context cultures, whereas they serve as explicit tools for conveying emotions in low-context cultures.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nterjection educa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interjection learning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vocabulary acquisition but should also include understanding the semantic variations of interjections across different contexts and their appropriate use. Whil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mpirically analyzing the cultural differences in interjection perception,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apply or verify interjection teaching methods in actual learning environments.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experimental studie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interjection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jection teaching methods that consider various learner variables.

Keywords: Korean exclamation education, exclamation recognition, East and West cultural learners, high context culture, low context culture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 분석*

파타마폰 랑스리사왕
(숙명여대)

**목
차**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4. 조사 결과 분석
 - 4.1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에 대한 분석
 - 4.2 변인에 따른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에 대한 분석
- 5. 불평 및 사과 화행 교육 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한국어 화행 중인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 양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변인에 따라 사용한 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

* 본 논문은 파타마폰 랑스리사왕(2024)의 내용 일부를 요약하고 수정한 것이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파타마폰 랑스리사왕(2024)으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핵심만 간단히 요약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성결혼이민자에게 언어소통과 문화로 인한 차이는 한국에서의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점 중 하나이다. 특히 가정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서 청자에게 적절한 의사표현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화행은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은 여러 변인과 출신국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는 불평 상황에서 본인의 불쾌함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반면, 태국인의 경우는 태국 사회의 'ความอ่อนน้อม(Khwamonnom)' 즉 겸양과 'ความเกรงใจ(kwamkreangjai)' 즉 기탄의 정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한편, 사과를 표현할 때도 태국인들은 직접 사과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청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와 더불어 언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적절한 화행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의 양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변인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불평 화행, 사과 화행, 화행 전략, 담화분석론

1.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는 건수가 한국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보다 더 많았다. 2023년에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는 통계에서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혼인 건수가 많았으며, 중국 그리고 태국 국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에서 10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을은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임을 알 수 있다.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 이로 인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관련된 연구 또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의사소통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은 언어소통과 문화에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겪게 된다. 한국사회에는 남편과 모국어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하거나 통번역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다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때문에 서로 오해,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화해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현실이다. 그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배울 필요가 있는 화행은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태국인 결혼이민자 경우에는 KOSIS 통계의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3년 총계 291명, 2014년 총계 439명, 2015년 총계 543명, 2016년 총계 720명,
2017년 총계 1,017명, 2018년 총계 1,560명, 2019년 총계 2,050명, 2020년 총계 1,735명,
2021년 총계 1,589명, 2022년 총계 1,932명 그리고 2023년 2,017명이다.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을 표현할 때 국적과 사람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전략이 달라진다. 중국인과 한국인 경우는 불평 상황에 모두 자기의 불편함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편이지만 일본인 경우는 문화 방식 차이로서 한국인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느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태국인은 ความอ่อนน้อม(Khwam-on-nom) 즉 겸양과 ‘ความเกรงใจ(kwam-kreang-jai)’ 즉 기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거나 표정으로만 표현하기도 한다.³⁾ 그래서 태국인은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하거나 솔직한 마음을 감추어서 침묵식(Silence)으로 사용한다.⁴⁾ 한편, 사과 표현할 때도 태국인은 직접 사과하는 것보다 설명하고 청자에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언어 차이기 때문에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도 당황스럽고 적절한 표현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은 다른 화행보다 많지 않았고, 특히 결혼이민자의 불평과 사과 화행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의 전략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3) 타나폰 빠리감신(2019),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4) Worrawan Fuangkajonsak(2005)에서 태국인과 일본인의 사과 화행 전략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일본인이 태국인보다 사과 화행이 많이 사용한다. 즉, 분명한 잘못을 없어도 사과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태국인이 그렇지 않았다. 일본인은 사과할 때 책임과 인정 전략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사과 표현을 한다. 반면, 태국인은 직접적인 사과 표현하는 것보다 설명하고 청자에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차이를 볼 수 있다.

첫째,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불평 및 사과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둘째,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친밀도, 사회적 지위, 거주 기간, 학력, 직업, 결혼 상태에 따른 초혼자와 재혼자 등의 변인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2. 선행 연구

이 장에서는 한국어 불평 화행과 한국어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평 화행에 관한 연구는 언어권 비교 연구, 타나폰 빠리감신(2019)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태국어 모어 화자와 사회적인 변인의 불만도, 반응 방식, 불편 화행 유형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불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이 많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거나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간접불평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형상은 문화 차이라고 한다. 홍승아(2010)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에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평 화행의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 이상 거주한 학습자의 경우 거의 모든 불평 화행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는 Phengsomboon, Chanamas(2015)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화행 전략에 대해 담화완성테스트(DCT)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태국인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전략 사용 빈도가 더 높았으며, 사과 화행할 때 길게 사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사과할 때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임을 주장하였다. 자이팡위안(2021)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과 화행 및 사과 응답 화행의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하였다. 분석한 교재에서는 사과 전략을 제시하지만 사과 응답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사용 방식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현 상황이 다양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교육 방안 부분에서는 사과 화행 및 사과 응답 화행을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상황마다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할극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태국인에 관련된 논문이 부족하고 특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논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태국인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고 여러 변인에 따라 사용한 전략이 차이와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불평 및 사과 화행 개념

본 연구에서는 불평과 사과 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불평 화행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과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화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 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감정들을 청자에게 직접 불평(Direct Complaint) 혹은 간접 불평(Indirect Complaint)으로 전달해야 하는 행위이다. 화자는 청자와 관계 및 위치에 따라 불평을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불평 전략을 택하여 사용한다. 즉, 청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자의 위치가 화자보다 낮은 경우나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경우에는 불평 또는 불만 감정들을 타협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면, 화자와 친밀하거나 청자의 위치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갈등(Conflict) 또는 폭력(Violence)이 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주로 표현한다. 그러나 간접 불평을 사용하면 청자에게 부정적 평가(Negative Evaluation)가 되거나 갈등이 생기는 등 불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침묵(Silence)과 무시(Ignore) 전략을 사용한다. 불평 화행은 다른 화행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청 화행과 가장 결합한다.

그리고 사과 화행은 화자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정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청자에게 사과해야 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행위는 본인이 했던 행동과 잘못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인정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반면, 무의식적인 행위는 화자가

청자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잘 모르고 실수로 해서 사과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사과하는 조건은 화자가 했던 과거 행위로 인해 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사회 규범을 위반한 책임을 알고 있어서 사과하는 것, 화자가 청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 청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 화자가 청자와 갈등을 방지하는 것, 화자가 청자와 상호작용적 대화를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선호하는지 변인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불평 화행 전략에 관한 연구는 Olshtain과 Weinbach(1985), 미즈시마 히로코(2003), 최연숙(2013), Sittitam Ongwuttiwat(2021), 김경령(2023)을 살펴보고 제시한 전략들을 적합하게 차용하여 본 논문의 분석 전략을 구성하였다. DCT를 통해 비언어적 행동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사용한 태국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 전략을 ‘질책하기’, ‘비난하기’, ‘명백한 나무람이 없음’, ‘반감을 표현하기’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무응답’과 ‘다른 행동하기’의 경우는 Sittitam Ongwuttiwat(2021)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화자가 불쾌함을 그대로 느끼지만 청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 갈등을 완화시켜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갈등 감소하기’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 1〉 본 연구의 불평 화행 분석 기준

전략		세부 전략	설명	예시 ⁵⁾
직접 불평	질책하기	완화하여 질책하기	청자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간접 질책한다.	예)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명백하게 질책하기	청자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직접 질책한다.	예) 너 항상 지각하네.
	비난하기	완화하여 비난하기	청자의 나쁜 행위를 완화하여 비난한다.	예) 조심하라고 말했는데요.
		명백하게 비난하기	청자의 나쁜 행위를 명확하게 말한다.	예) 야! 너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곤란하지.
	반감 표현	짜증내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한다.	예) 참! 짜증 나네.
		비꼬는 표현하기	기분이 나쁘게 비웃는 태도로 말하거나, 생각과 반대로 의미를 말한다.	예) 좋네요. 남의 이미지를 훼손했으니...
간접 불평	명백한	이해하기	불평하지 않고 동정하고 상황을 이해한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요.
	나무람이	암시하기	불평 행위 힌트를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예) 그 지난주 빌린 책...
	없음	요구/제안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청자에게 불평 행위를 수정할 수 있게 제안한다.	예) 빌렸던 거 빨리 주면 좋지.
		갈등 감소하기	불평 혹은 불쾌함을 느끼지만 청자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사용한다.	예) 그렇구나, 천천히 와도 돼

5) 예시는 위에 살펴본 논문들에서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사과 화행 전략은 Olshtain과 Cohen(1983), Blumkulka와 Olshtain(1984), 그리고 태국인 사과 화행에 관련된 Thasanee Mekthawornwathana(1999)과 Chanamas Phengsomboon(2015) 연구를 살펴보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적합하게 설정하여 ‘사과 표현하기’,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책임 인정하기’, ‘보상 제시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그리고 ‘사과 부인하기’로 나누어 <표 2>과 같이 사과 화행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사과 화행 분석 기준

	전략	설명	예시
직접 사과	사과 표현하기	‘미안하다’ 등의 표현과 같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요청하는 전략이다.	예) 미안해. 용서해 줘.
간접 사과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화자가 모든 원인에 대해 청자의 오해와 분노를 풀기 위해 설명하는 전략이다.	예) 일찍 일어났는데 버스가 늦게 왔어요.
	책임 인정하기	화자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략이다.	예) 제가 좀 늦었네요.
	보상 제시하기	화자가 잘못된 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보상하는 전략이다.	예) 파손한 가방은 내가 갚아줄게.
	재발 방지 약속하기	화자가 청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같은 상황이 없도록 표현하는 전략이다.	예) 앞으로 잊지 않을게.
	사과 부인하기	화자의 행위를 잘못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를 부인한다.	예) 아~ 그렇게 된 줄 몰랐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실험 피험자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로 총 80명이다. 거주기간과 결혼상태 변인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거주기간에 따라 나누었으며, 집단1은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포함하고 집단2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결혼 상태에 따라 구분한 집단3은 초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단4는 재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총 80명을 본 연구의 피험자로 설정하였다.

3.2. 자료 수집 도구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 불평과 사과를 끌어내는 상황으로 구성된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ask: DC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 상황을 각각 9개씩 설정하여, 총 18개의 상황을 구성하였다.⁶⁾

6) 상황 설정한 기준은 김경령(2023)에 구성된 상황을 차용하여 연구의 대상을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표 3〉 DCT 불평 화행 상황 구성

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력	상황
+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1〉 당신의 남편은 빨래나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o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2〉 남편의 친동생이 태국에 며칠 동안 가려고 해서 캐리어 가방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돌려줬을 때 캐리어 가방의 바퀴가 하나 빠져 있는 상태로 말을 안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3〉 당신의 시어머니는 주말이나 매달 집에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자 = 청자	〈상황4〉 당신은 친한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와 점심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식당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다른 일이 생겨서 점심시간에 못 온다며 대신 저녁에 만나자고 합니다.
	화자 > 청자	〈상황5〉 당신은 회사에 먼저 들어왔는데 그 이후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친구처럼 일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당신과 대화했던 비밀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6〉 당신의 친한 상사가 이번 주 당신의 쉬는 날에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부탁을 듣고 그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더니 상사가 부탁한 말이라서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7〉 새로 이사 온 이웃 사람은 밤에 술자리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8>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당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9> 당신은 예약한 병원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약 접수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표 4> DCT 사과 화행 상황 구성

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력	상황
+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1> 당신은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 컴퓨터가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실수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감염되었습니다.
o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2> 당신은 오늘 남편의 친동생과 쇼핑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잊어버려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봤더니 그 동생의 전화를 10통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3> 당신은 시어머니와 시장에 갈 약속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당신은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와서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4> 이번 주 일요일은 당신의 친한 친구의 생일입니다. 당신이 갈 거라고 약속했지만 못 가게 되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5> 당신은 한국어를 함께 배웠던 동생에게 한국어 책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가 책 한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화자 < 청자	<상황6> 당신은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갈 겁니다. 하지만 옷장에 예쁜 옷이 별로 없어서 급하게 친한 언니에게 옷을 빌리려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친밀도	화자 = 청자	<상황7> 당신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실수로 살았던 집 주소를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던 집에 직접 가서 물건을 찾으려 합니다.
	화자 > 청자	<상황8> 당신은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분실센터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화자 < 청자	<상황9> 당신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 일어나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친밀도는 화자와 청자가 친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0친밀도는 화자와 청자가 어느 정도 친하거나 아는 사이 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친구, 동료, 상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친밀도는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나간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화자와 청자의 힘의 관계에 따라 상대적 권력을 설정하였다. 화자=청자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같은 지위의 남편, 한국에서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는 친구 등을 설정하였다. 화자>청자는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생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화자<청자는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어머니, 상사, 친한 언니로 정하였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가 사용한 불평과 사과 화행 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불평과 사과 화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 대상과 목적을 적절하게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는 불평과 사과 화행을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설문 조사 플랫폼인 구글 폼 (Google Forms)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결과 분석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4. 조사 결과 분석

4.1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에 대한 분석

피험자 80명이 9개 문항에 응답한 전체 불평 및 사과 전략 수는 1,440개였다. 불평 화행의 경우는 ‘요구/제안’ 전략이 가장 많았고 ‘갈등 감소하기’ 전략과 ‘이해하기’ 전략으로 순서로 나타났다. 사과 화행의 경우는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전략을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과 부인하기’ 전략과 ‘사과 표현하기’ 전략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 과 같다.

〈표 5〉 불평 및 사과 전략의 사용 분포

순위	불평			사과		
	전략	횟수	빈도(%)	전략	횟수	빈도(%)
1	요구/제안	189	26.25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273	37.92
2	갈등 감소하기	124	17.22	사과 부인하기	126	17.5
3	이해하기	113	6.94	사과 표현하기	138	19.17
4	명백하게 질책하기	99	4.31	책임 인정하기	66	9.16
5	짜증내기	68	9.44	보상 제시하기	101	14.03
6	명백하게 비난하기	50	0.42	재발 방지 약속하기	16	2.22
7	완화하여 질책하기	32	13.75	총합	720	100%
8	완화하여 비난하기	31	4.44			
9	암시하기	11	1.53			
10	비꼬는 표현하기	3	15.7			
	총합	720	100%			

위 표를 통해 불평 화행에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세요’나 ‘~으면 좋겠어요’ 요구/제안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괜찮아~’라고 표현하는 갈등 감소하기 전략과 이해하기 전략을 주로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는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거나 화자가 아주 화가 났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평을 표현하는 것보다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거나 갈등을 피하고자 전략을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예1 가,나,다)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예의가 있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예1 라).

예1) 가. 여보 나는 당신이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10년5, 상황1, 요구)

나. 죄송한데 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초혼1, 상황7, 제안)

다. 괜찮아~ 그럼 내가 점심 먹고 근처에서 구경하고 있을게. 천천히 와도 돼~(10년19, 상황4, 이해하기)

라. 네, 주말에 회사 특근이 없거나 바쁘지 않으면 자주 뵈러 갈게요.(초혼1, 상황3, 이해하기+예의가 있게 한현하기)

한편, 사과 화행에서 결과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보다 설명 또는 변명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를 살펴보면, (예2 가)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사과 표현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설명 또는 변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예2 나)같이 두 개의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먼저 '죄송합니다'와 같은 사과 표현을 전달하고 나서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설명 또는 변명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사과하려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예2 다).

예2) 가. 이 주소로 택배가 왔는데 찾으러 왔어요.(10년4, 상황7,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처음에 폰 놓고 왔는데 다시 집에 가느라 늦

있습니다.(3년9, 상황3, 사과 표현하기+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다. 동생아, 언니가 진짜 미안해.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약속을 깜박했어. 다음에 만나면 선물 사줄게. 너무 미안해 진짜.
(초혼13, 상황2, 사과 표현하기+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보상 제시하기)

사과 화행의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 ‘사과 부인하기’ 결과가 나왔으며,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과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과 부인하기는 화자가 하는 행위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함을 느끼고 사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사과하기 싫거나 무응답하는 행동들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불쾌감을 느낀 상황과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적⁷⁾으로 유의한 의미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Kruskal Wallis⁸⁾의 H근사 유의 확률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직접 불평 ‘명백하게 질책하기, 명백하게 비난하기’ 전략과 간접 불평 ‘갈등 감소하기’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 집단의 전략 차이를 볼 수 있으며,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네 집단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전략을 사용할 때 전략을 선택하는 데 집단 분류 기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7) 파타마폰 랑스리사왕(2024),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화행 전략 연구 -불평 및 사과 화행을 중심으로- 통계 내용을 요약하였다.

8) Kruskal Wallis의 H검정은 3집단 이상의 집단 분포를 비교하여 동일한지 유의확률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미한다. 즉, 같은 국적 사람이지만 다양한 변인에 따라 사람들은 선택하는 전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해하기, 암시하기, 요구/제안, 짜증내기, 비꼬는 표현하기, 완화하여 질책하기, 완화하여 비난하기’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네 집단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전략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 불평 ‘요구/제안’ 전략은 모든 집단이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피험자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주세요’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요청 화행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민정(2010)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는 어떻게 불평 화행을 사용하는지를 제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불만 상황에서 직접 불평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은 주로 직접 불평과 행동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시정 요청 전략을 가장 많이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불평 직접적으로 표현은 ‘-(였/았어)야지(요)’, ‘-지 마(세요)’와 같은 문법을 함께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태국인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태국인의 이미지나 특징은 마음씨, 성격, 태도 등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태국인들이 태국어로 발화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고운 단어와 말투를 사용하여 원만해 보이고 행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태국인의 대표적인 성격 특징이다. 게다가 태국어의 경우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경어법이 있어서 발화할 때 화자가 청자를 보다 신경쓰는 것이다. 태국 사회에서는 ‘평화 나라’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태국의 국가를 보면 **ไทยนี้รักสงบแต่ถึงรบไม่ขลาด**(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겁쟁이가 아니라 싸울 때도

씩씩하게 잘 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국인은 평소 고운 말을 사용하지만 억울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한 상황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태국인 성격의 특징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불평 상황에서 직접이나 간접 전략 사용을 택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사과 화행 경우 통계적인 결과는 ‘사과 표현하기, 책임 인정하기, 보상 제시하기’ 전략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사과 표현하기는 표현할 때 화자가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사과하는 것인지,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사과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사과 부인하기’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 집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미(2008)에서는 실제 한국인의 사과 화행을 분석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 연구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사과 화행은 직접 화행과 간접화행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분석한 결과에서 직접 화행이 간접 화행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미안해요. 오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죄송해요’ 등과 같이 사과 표현과 간접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어서, 태국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다.

4.2. 변인에 따른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에 대한 분석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 거주기간, 학력, 직업, 결혼 상태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과 더불어 초혼자와 재혼자 등의 변인에 따라 사용한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위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2.1. 사회적 변인

먼저, 친밀도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친밀도)와 (-친밀도) 상황에서 전략을 비슷하게 사용하였는데, (o친밀도)는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친밀도의 경우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10년19, 상황1)’ 화자가 청자와 친한 사이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말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o친밀도의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제가 저녁 약속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요.(초혼13, 상황4)’ 어느 정도 친한 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친밀도의 경우는 ‘늦게까지 노는데, 이제 그만 좀 자면 좋겠네요. 우리가 내일 출근해야 돼서 좀 조용할 수 있으면 좀 조용하게 놀아요. 잘 부탁드립니다.(10년10, 상황7, -친밀도)’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불쾌함이 많더라도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자 한다.

한편 사과 화행의 경우는 (o친밀도)와 (-친밀도)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사용하였으나, (+친밀도) 상황에서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친밀도의 경우는 ‘미안해. 나 몰랐었어. 다 한글이니까, 조심할게.(초혼14, 상황1)’ 가장 친한 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현하였는데, (예4나) o친밀도의 경우

와 (예4다) -친밀도의 경우는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사과하기도 하고 사과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보면 ‘친구야,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네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생일 축하해 친구야.(재혼12, 상황4, 0친밀도)’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의 택배 봤어요? 제가 주소를 잘 못 입력해서 실수로 옛날 집주소로 택배를 보냈어요.(10년19, 상황7,-친밀도)’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 변인 경우는 상대적 권력에 따라 화자<청자는 유의한 차이가 보였는데, 화자=청자와 화자<청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화자>청자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보다 권력이 많기 때문에 불평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반면, 화자=청자와 화자<청자의 경우는 네 집단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청자의 경우는 태국인이 전반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태국 사회와 문화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태국과 한국의 문화는 비슷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한 말투 또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태국에서는 ‘어른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졌다. 이는 사회 과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symphathetic), 이해(understanding) 문화 때문이며, 이는 태국 사회의 공통되는 미덕(Moral)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태국의 ‘ความอ่อนน้อม(Khwamonnorn)’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평 화행 전략을 사용할 때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로 태국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험자의 응답은 ‘여보 집안일을 좀 도와줘요.(초혼6, 상황1, 화자=청자)’, ‘캐리어 가방 바퀴가 빠진 게 몰라서 그래? 나중에 말을 좀 해줘야지 XX아!!(10년3,

상황2, 화자>청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끔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자주 찾아가겠습니다.(3년5, 상황3, 화자<청자)’ 등이 있다.

한편, 사과 화행의 통계적으로 결과는 상대적 권력에 따른 화자=청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보였는데, 화자>청자와 화자<청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청자와 같은 사회적 지위(화자=청자)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른데, ‘사과 표현하기’,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책임 인정하기’, ‘사과 부인하기’와 같이 여러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화자가 청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화자>청자)인 경우와 화자의 사회적 지위가 청자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화자<청자)인 경우에는 권력 차이가 있어서 사과할 때 상대방이 가장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과 화행 전략 사용은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험자 응답을 살펴보면 ‘미안해.(3년2, 상황1, 화자=청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늦잠 자서 연락 못 받았어요.(10년17, 상황2, 화자>청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죠? 집에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3년3, 상황3, 화자<청자)’ 등이 있다. 결과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네 집단이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 전략을 사용할 때 친밀도와 사회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 거주기간

본 연구에는 거주기간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초혼 집단과 재혼 집단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집단과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한국어 불평 및 사과

화행 사용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 사용 전략 경우는 ‘명백하게 질책하기’가 유의한 차이가 보였는데, ‘완화하여 질책하기, 완화하여 비난하기, 명백하게 비난하기, 이해하기, 암시하기, 요구/제안, 갈등 감소하기, 짜증내기’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거주기간 변인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명백하게 질책하기 전략은 차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해외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거나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보다 한국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이 더 많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지만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가방 어떻게 쓰길래 왜 이렇게 됐어? (3년5, 상황2, 30세)’ 과 ‘짐 이렇게 어떡해?(10년12, 상황2, 48세)’ 두 집단의 응답을 보면, 한국에서 3년을 살았지만 10년을 거주한 피험자보다 한국어 수준이 높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거주기간 변인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큰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과 화행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은 ‘보상 제시하기’ 전략이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나 다른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 화행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에 영향을 받았지만 불평 화행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험자 응답을 보며, ‘안녕하세요. 저 여기 전 세입자인데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 주소가 여기 주소 돼 있는 줄 모르고 시켰어요. 혹시

택배 보셨나요?(3년3, 상황7, 33세) 또한 ‘집주소를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택배 찾아 봐요.(10년1, 상황7, 39세)’ 등이 있다.

3년집단 피험자와 10년집단 피험자가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빈도와 응답을 살펴본 결과, 다른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어 학습자보다 거주 기간 변인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로 결혼이민자 대상 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좋아해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아닌, 생활하면서 한국어가 필요해서 공부한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보다 개인 배경 또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어 수준 변인이 영향을 더 줄 수 있다고 본다.

4.2.3. 학력

학력 변인에 따른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 사용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피험자의 학력은 학사(66.25%), 고등학교(16.25%), 석사(12.5%), 그리고 중학교(5%)로 구분하였다. 먼저 불평 화행 결과에 따르면,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네 집단이 사용하는 불평 화행 전략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 피험자와 석사 피험자들은 직접 불평 표현을 많이 사용한 반면, 간접 불평 표현은 석사 피험자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비꼬는 표현하기 전략 경우는 학사 피험자만 사용하였지만 다른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분석 결과, 불평 화행에서 학력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과 화행은 네 집단이 사용하는 ‘사과 표현하기’, ‘책임 인정하기’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보상 제시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사과 부인하기’ 전략은 유의한 차

이가 보이지 않았다. 사과 표현하기 전략은 중학교 피험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안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직접 사과 표현을 사용하며, 이러한 이유는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책임 인정하기 전략 경우 학사 피험자들이 많이 사용하며, ‘미안해, 내가 잘못 했어’와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먼저 사과를 표현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 또는 실수한 행동을 바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네 집단이 사용하는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력 배경은 다른 분야에서 학습할 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언어를 학습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은 불평 화행의 경우 학력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과 화행 경우는 학력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2.4. 직업

피험자의 직업은 주부(63.7%), 통번역사 (17.5%), 회사원(11.3%), 기타(7.5%)로 구분하였다. 먼저, 불평 화행 전략은 ‘이해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직접 불평의 경우 통번역사 피험자가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간접 표현은 회사원 피험자가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직업에 따라 학력과 달리 비꼬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험자 응답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직업은 상황에 따라 한국어로 대처할 때 한국어를 자주 쓰지 않는 직업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3) 가. 제가 이 메뉴를 안 시켰는데, 혹시 잘못 보낸 거 아닐까요? 만약
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세요. 안 되면 그냥 먹을게요.(상황8,
10년16, 통역사)
- 나.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데, 주문한 음식으로 바꿔주세요.(상황
8, 3년4, 회사원)
- 다. 저기요 이 메뉴 주문 안 했어요.(상황8, 재혼10, 주부)
- 라. 여기요. 이것을 주문하지 않았습시다.(상황8, 초혼14, 기타)

한편, 사과 화행에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은 ‘재발 방지 약속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직접 사과의 경우는 회사원 피험자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접 사과는 모든 전략이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과 화행은 불평 화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업 여부에 따라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태국인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은 직업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2.5. 결혼 상태

마지막으로 결혼 상태 변인에 따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불평 및 사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혼생활 경험이 없는 초혼자(집단3)와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재혼자(집단4)를 구분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목표 변인 요소로 인한 분류에 따라 3년 거주 집단과 10년 거주 집단을 제외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결혼 상태에 따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두 집단이 사용하는 불평 화행 전략은 ‘이해하기’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4(재혼)는 집단3(초혼)에 비해 이해하기 전략을 더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였다. 결과에서 직접 불평 경우를 보면, 집단3(초혼)은 집단4(재혼)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간접 불평의 경우는 집단4(재혼)가 집단3(초혼)보다 이해하기, 암시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요구/제안, 갈등 감소하기 전략은 집단3(초혼)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재혼자가 초혼자보다 불평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혼자의 경우는 결혼생활과 이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가정 속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불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혼자보다 인식이 충분하고 적절한 대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과 화행은 ‘사과 표현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사과 표현하기 전략의 경우 집단4(재혼)는 집단3(초혼)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집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평 화행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재혼자와 초혼자가 관계 유지에 대한 생각이나 각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4) 가. 야! 이거 왜 나한테 말 안 해?(상황2, 초혼3, 불평 화행)

나.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상황2, 재혼11, 불평 화행)

다. 서방님~ 컴퓨터 이상해요.(상황1, 초혼4, 사과 화행)

라. 오빠 미안해 나 잘 못 했어요.(상황1, 재혼18, 사과 화행)

분석 결과, 결혼 상태 변인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불평 및 사과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두 집단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5. 불평 및 사과 화행 교육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불평 및 사과 화행에서 사용하는 전략 분석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불평 화행을 사과 화행보다 더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처럼 발화하기 위하여 불평 화행 전략 인식을 이해해야 하고 적절한 직접 또는 간접 불평 화행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과 화행의 경우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과해야 할 상황에서 대부분 간접적으로 사과하거나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사과 화행의 전략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사과 표현을 강조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재와 ‘서강한국어’ 교재를 통해 불평 및 사과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휘, 표현, 문법을 탐색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이 포함된 사적 상황과 공적 상황을 구성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식 교수

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을 사용하고자 한다.

5.1. 수업의 모형

학습 목표	불평 및 사과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
주요 학습 내용	-았/었어야지(요), -았/었으면 좋겠다. 직접 불평(질책하기, 짜증내기) 간접 불평(갈등 감소하기, 요구/제안) 직접 사과(사과 표현하기) 간접 사과(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학습자 정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중급
수업 소요 시간	50분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준비물 및 지도상 유의점
도입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 학습 내용을 노출시킨다.	3분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제시한다.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 때.. (영상 30초)) -직접과 간접 전략을 제시하면서 불평 전략 차이점을 설명하여 전략 인식시킨다.		
	<p style="text-align: center;">직접 불평</p> <p>1. 질책하기 질책하기 전략은 화자가 기분이 아주 나빠서 청자에게 질책한다.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다. 질책하기 전략은 완화하여 질책하기와 명백하게 질책하기를 나누었다.</p>		

예)

-너 항상 지각하네. (완화하여 질책하기)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죠?(명백하게 질책하기)

2. 짜증내기

짜증내기 전략은 화자가 청자의 행동이나 말이 마
음에 듣지 않아서 짜증내는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
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예) 참! 짜증나네, 너무 짜증나!

간접 불평

1. 갈등 감소하기

갈등 감소하기 전략은 불쾌함을 느끼거나 화자가
화가 났지만 청자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사용하
나.

예) 그렇구나, 천천히 와도 돼요. / 그래요? 괜찮아
요. 나중에 봐요.

2. 요구/제안

요구/제안 전략은 화자가 청자에게 잘못 행위를 수
정할 수 있게 요구 또는 제안한다.

예) 빌렸던 책을 빨리 주면 좋지.

-불평 어휘 및 표현 아래와 같이 제시한 후 문법을 가
르친다.

<u>어휘 및 표현</u>	<u>문법</u>
불쾌하다	-았/었어야지(요)
실망하다	-았/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답답하다	
짜증나다	
지긋지긋하다	
마음에 안 들다	

10분

PPT,
영상

	<p>-았/었어야지(요) (=아/어야 하는데 왜 안 했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A: 아침에 약속이 있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B: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면 알람을 맞추고 잤어야 지요.</p> <p>-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 랄 때 사용하는 문법이다. A: 수업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B: 쉬는 시간이 짧아요. 쉬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 어요.</p> <p>-는구나 새롭게 알게 되거나 감탄 또는 공감할 때 사용하는 문 법이다. A: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B: 그래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구나.</p>	
연습	<p>-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대화문을 읽고 대화문에서 나 온 문법을 표시한다. 교사가 그룹 2인을 정해주고 그 그룹 활동을 통해 연습시킨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상황> 당신의 남편은 빨래나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을 도 와주지 않았습시다.</p> <p><대화문> A: 여보 왔어? B: 네, 퇴근길이라 지하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았 어요. 밥은? 김치찌개는 다 먹었어? A: 응 다 먹었지.</p> </div>	

B: 여보, 왜 부엌이 이렇게 됐어? 다 먹었으면 설거지를 했어야지.

A: 당신이 좀 해주라.

B: 이거는 또 뭐야? 아침 운동했을 때 입었던 거 아니야? 왜 아직도 빨래 안 했어?

A: 까먹었다! 아침에 호민이가 전화 와서 정신없이 빨리 나갔어.

B: 그랬어? 그런데 여보, 나도 하루 종일 밖에 갔다 와서 피곤해요.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서로 불편하지 않게.

A: 알았어. 미안해~ 자기도 하루 종일 고생했구나, 지금 바로 할게.

-사과 상황에서 직접 사과 표현을 강조한다.

사과 표현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20분

PPT

직접 사과

1. 사과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전략은 화자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직접 사과 표현한다.

예) 미안해요 / 죄송합니다 / 사과할게요 / 용서해 줘요

간접 사과

1.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전략은 화자가 청자의 화를 풀기 위해 잘못된 이유 혹은 원인을 설명한다.

예) 일찍 일어났는데 버스가 늦게 왔어요.

	2. 재발 방지 약속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전략은 화자가 앞으로 같은 상황이 없도록 미리 약속을 표현한다. 예)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활용	-불평 및 사과 전략과 문법을 활용해서 개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자 학습자들은 편하게 고민 상담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15분	
마무리	-마무리하고 문법 학습지 숙제를 알려준다	2분	학습지

6. 결론

본 연구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의 사용 전략을 살펴보고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의 양상과 여러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해당 내용은 조사 결과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는 불평 화행 상황에서 ‘요구/제안’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화행 전략은 ‘직접 질책하기, 명백하게 비난하기, 갈등 감소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간접 질책하기, 완화하여 비난하기, 이해하기, 암시하기, 요구/제안, 짜증내기, 비꼬는 표현하기’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사과 화행에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전략을 선호한다.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의 차이는 ‘사과 표현하기, 책임 인정하기, 보상 제시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설명하기 또는 변명하기, 재발 방지 약속하기, 사과 부인하기’ 전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황에 따른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다르게 나타냈다. 이를 통해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명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전략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태국 사회, 언어적, 문화에 영향을 받고 여러 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여러 변인에 따른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불평 화행에서 사회적 변인의 친밀도에 따라 (0친밀도)는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화자>청자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이는 관계 중요성, 모국어의 문화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사과 화행의 경우에는 (+친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화자=청자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과해야 할 의도와 관계 유지 필요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불평 및 사과 화행이 친밀도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 및 사과 화행 전략은 두 집단 모두 화행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와 학습 배경이 다르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지만 유창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학력의 경우는 불평 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과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변인은 불평 화행과 사과 화행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보

다 직업을 통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한국어 유창성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상태 변인에 따라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초혼자와 재혼자의 한국어 불평 및 사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불평 화행 전략에서는 ‘이해하기’ 전략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과 화행은 ‘사과 표현하기’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불평 및 사과 화행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기에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교육계에서 부족한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만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의 표정, 억양,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같이 연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태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한국어 교육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5-31쪽
- 김경령(2023),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평 화행 전략 사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20(1), 1-26.
- 김동희(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공손표현 사용양상: 고부간 불평상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김소연(202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과화행 교육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수연(2016), 「TV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에 나타난 고부갈등 요인 분석」, 국내석사 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즈시마 히로코(2003), 「한국어 불평 화행의 중간언어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멘드바야르 아노다리(2023),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과 화행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현경, 박덕유(2023). 「한국어 불평 화행의 분석과 교육 모형: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2), 697-718.
- 사정정 (2013), 「중국여권 학습자 대상 ‘사과(謝過)’ 화행문화 교육방안」, 국내 석사 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자이팡위안 (202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사과 화행 및 응답 화행 분석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미경 (2018), 「한국어 사과 화행의 실현 양상 -세종 구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9(0), 127-154.
- 조은희 (201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하진 (2022),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사과 응답' 대화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민정 (2010),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미 (2008), 「한국어 사과 화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최주리 (2021), 「한국인 대학원생과 캄보디아 유학생의 간접불평 응답전략 양상과 인식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29(3), 281-304, 10.14353/sjk.2021.29.3.11
- 최연선 (2013),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절 화행 전략 양상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숙 (2013). 「구두 DCT와 회고적 보고 방법을 활용한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타나폰 빠리깜신 (2019).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승아 (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1, 131-142.
- NAN SHANJI (2020). 「한·중 사과 화행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Olshtain, E., & Cohen, A. (1983). Apology: A speech act set. In N. Wolfson, & E. Judd (Eds.),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pp. 18-36). Rowley, MA: Newbury House.
- Olshtain, E., & Weinbach, L. (1983). *Complaints-A study of Speech Act Behavior among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Hebrew*.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 Phengsomboon Chanamas (2015),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화행 전략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Thasanee Mekthawornwathana(1999), *The Speech Act of Apologizing in Thai*, Master's thesis,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 complaint, apologies*. Berlin: Mouton de Gruyter.
- WANG YANFANG (2020),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Worrawan Fuangkajonsak(2005), *A Comparative Study of Strategies Used in Apology by Japanese and Thais*, Bachelor's thesis,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 Yang Yujing (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참고 교재 및 사이트>

김설희 외(2019), 『서강한국어 뉴시리즈 4B, 서울』,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남성우 외(2021).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https://kcenter.korean.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ABSTRACT

Analysis of Thai Female Marriage Immigrants' Use Of Korean Complaints and Apologies

PATAMAPORN RANGSRISAWA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complaints and apologies in the Korean language used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from Thailand and to analyze the strategies used according to various variabl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culture is one of the difficulties. Especially in a family's uncomfortable situations, that should be an appropriate expression for listeners. If they're communicating explanations or solutions with the wrong expression, it will turn into serious conflict situations immediately. Therefore, the most necessary speech act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 be seen as complaint and apology.

However, the way of expressing emotions or using strategies may differ depending on various variables and country of origin. In the case of Koreans, they clearly express their discomfort in a situation of complaint. But Thai people are familiar with the emotions of Thai

society's 'Khwamonnom' or modesty and 'kwamkreangjai' or consideration for others. They prefer to express themselves indirectly or not to the other person even if there are many complaints. At the same time, even when expressing an apology, Thai people have the characteristic of explaining the wrong behavior and using expressions that the listener will not be offended by rather than directly apologizing. It is true that Thai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not communicate appropriate speech and behavior when communicating in Korean because there are language differences along with these differences in mindse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complaints and apologies used for Thai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alyze how different strategies are used according to various variables, and present an educational plan based on this.

Keywords: Thai female marriage immigrants, speech act of complaints, speech act of apologies, speech act strategy, discourse analysis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문화 분석

-한국과 케냐 대조 중심으로-

한 나
(숙명여대)

목
차

1. 서론
 2. 한국어 속담 교육의 현황
 - 2.1. 속담 제시 방법
 - 2.2. 속담의 선정 기준과 사용 빈도
 - 2.3. 속담의 난이도 분석
 3.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 및 문화 비교
 - 3.1. 주제 분류별 속담 비교
 - 3.2. 한국과 케냐의 속담에 내재한 종교성
 - 3.3. J.D.BODLEY에 의한 문화 접근법
 4. 한국 및 스와힐리어 문화 대조 분석
 - 4.1. 케냐와 한국 문화의 유사점
 - 4.2. 한국과 케냐 문화의 차이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속담과 케냐 속담을 통하여 두 문화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와힐리어와 한국어 관련 선행 연구가 없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간 케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본 연구가 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속담, 외국인 학습자, 한국 문화, 케냐 문화, 문화적 차이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케냐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속담에 나타난 문화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언어는 말을 사용하지만, 각 언어의 표현법도 다르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로서 각기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 모두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반영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언어는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치이다.

한국과 케냐는 1964년에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2000년 이후에나 한국

어가 케냐 대학에서 외국어로 가르쳐지기 시작했으며, 지금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케냐에서 가장 큰 두 대학교인 케냐타 대학교와 나이로비 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케냐타 대학교에 있는 세종학당은 초급, 중급, 고급, 문화, 비즈니스 한국어, 토픽 수업과 통번역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나이로비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문학, 문화 자격증 과정과 나이로비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문학, 문화 자격증 과정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원래 학생 수가 적었지만, 지금은 지속해서 학생 수가 늘고 있다. 또한, 이 대학들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하여 장학금을 수혜받고 한국의 주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어를 배울 때 단순히 문법과 어휘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속담과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한 사회의 지혜와 가치를 전승해 온 문화적 요소로, 이를 통해 언어 학습자는 해당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속담은 한 문화의 기본 요소를 관찰하고 지각할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 가치는 본질적이다.¹⁾ 속담을 공부하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언어만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한국어 속담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 특히 케냐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Eta and Mogu(2012) "아프리카 철학에서 인식론을 주장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한다. 속담은 또한 사회로 가는 창이 되기도 한다." (번역)

Ojo Esther Titilayo(2015). 요루바 문화와 정체성의 창으로서의 속담(번역)

속담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적 관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속담을 통해 한 사회의 가치와 믿음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구전의 일부인 속담은 지식, 예술 사상, 문화적 자료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고 보존되고 전달되는 인간 소통의 한 형태이다. 그리하여 속담은 수 세기 전의 생각, 가치, 믿음을 연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문법이나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희승(1982)은 “속담은 말 중의 보옥이요, 말 속의 꽃이요, 말 속의 별이다. 그리하여 속담은 그 민족의 독특한 예지와 정서와 심리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민족을 알려면 그 속담을 알아야 하고 그 속담을 모르고는 그 민족을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²⁾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속담은 모든 민족이 가진 공통적인 문화 요소로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한다.

2. 한국어 속담 교육의 현황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등장하는 속담을 분석하여 케냐 학생들에게 적절한 속담 교육

2) 이기문, [속담 사전] (서울:일조각, 1981), p.vi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용 속담 목록을 선정하고, 교재에서 속담이 제시되는 방식과 그 장단점을 검토하여 케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탐색한다.

속담 난이도 평가는 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한국·케냐 문화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사들이 케냐 문화를 이해하고, 스와힐리어 속담과 연계하여 한국 속담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교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해외에서 사용되는 교재로 나뉜다. 국내 교재로는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출판한 교재와 『속담 100』이 포함되었다. 해외 교재로는 나이로비 세종학당에서 사용하는 ‘세종한국어’ 교재와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울대학교 출판 ‘사랑해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재에서 초급 단계에는 속담이 포함되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만 초급 단계에 속담 2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재를 제외하면, 다른 교재들은 모두 중급 및 고급 수준에서만 속담을 다루었다.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속담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종학당에서 사용하는 ‘세종한국어’ 교재에서는 단 1개의 속담이 고급 단계에서만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서도 속담은 중급 및 고급 수준에서만 출제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케냐 학생들에게 적합한 속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 표에서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표 1〉 분석 대상인 한국어 교재

교재	대학교	속담 교육 내용	
		단계별	속담 개
경희 한국어	경희대학교	중급~고급	77
서강 한국어	서강대학교	중급~고급	26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중급~고급	60
연세한국어	연세대학교	중급~고급	90
서울한국어	서울대학교	중급~고급	7
말이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초급~고급	34
속담100 관용어100	-	-	100
아하 한국어	숙명여자대학교	고급	16
사랑해요 한국어	나이로비 대학교	중급	-
세종한국어	케냐타 대학교	중급	1

2.1. 속담 제시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등장하는 속담을 분석하여, 케냐 학생들에게 적절한 속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11개의 주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속담 출제 방식을 분석한 결과, 속담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1. 속담 교육 수준별 현황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속담은 중·고급 수준에서만 다루어지며, 초급 단계에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초급 학습자를 고려하여 빈도가 높고 쉬운 속담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1.2. 교재별 속담 교육 방식

(a)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교재: 중·고급 단계에서 속담을 포함하며, 예문과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 연세대 교재: 속담을 중·고급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지만, 속담의 수가 많아 학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c) 서울대 교재: 중·고급 단계에서 21개의 속담을 포함하나, 속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d) 이화여대 교재: 총 34개의 속담을 포함하며, 초급 단계에서도 2개의 속담을 다룬다. 하지만 일부 속담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e) 『속담 100 관용어 100』: 속담의 의미 설명과 예문을 제공하나, 문화적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

(f) 숙명여대 『아하, 한국어 5』: 속담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지만, 문화적 배경 설명이 부족하다.

(g) 세종학당 『세종 한국어 6』: 중급 단계에서 속담을 포함하지만, 체계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h) 서울대 『사랑해요 한국어』(나이로비대 사용): 초·중·고급 단계에서도 속담을 포함하지 않는다.

2.1.3.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속담 출제 경향

속담은 주로 듣기, 읽기, 어휘·문법, 쓰기 영역에서 빈칸 채우기, 문단 구성 등의 형태로 출제되며, 중·고급 수준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2.1.4. 속담 교육의 개선 방향

- 초급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한 속담이나 쉬운 어휘를 포함한 속담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재별 속담의 수를 조정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단계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속담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설명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케냐 학생들에게 적합한 속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2〉 각 교재 속담의 수

교재 \ 단계	초급	중급	고급	합계
경희대학교	없음	37	40	77
서강대학교	없음	18	6	24
성균관대학교	없음	22	38	60
연세대학교	없음	34	58	92
서울대학교	없음	7	-	7
이화대학교	없음	23	11	34

속담100 관용어100	100
숙명대학교	12
세종학당	1
서울대학교(서울 사랑해요)	없음

케냐에서 사용되는 사랑해요 한국어 교재에는 속담이 포함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외국인 학습자용 교재에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급 수준의 속담이 케냐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고급 수준의 일부 속담은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케냐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난이도의 속담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재는 속담의 의미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모국 속담과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재는 많지 않다. 또한, 동일한 속담이 교재마다 다른 난이도로 제시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위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를 고급 단계에서 다루지만, 성균관대학교 교재에서는 중급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속담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언어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속담은 중국어권 학습자에게는 쉬울 수 있어 초급 단계에서 가르칠 수 있지만, 영어권이나 스와힐리어권 학습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중급 또는 고급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케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난이도별로 구분하며 스와힐리어 속담과 비교하여 분류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교재에서 속담의 수와 구성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며, 일부 교재에서는 속담과 관용 표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초급 단계에서는 속담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훈적인 속담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은 속담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김나영(2008)은 속담을 선정할 때 사용 빈도와 문화적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종철(1998)은 사용 빈도가 높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며 의미가 명확한 속담을 교육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안경화(2001)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속담을 강조하며, 의미와 주제가 언어 및 문화적 사고방식을 잘 반영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금현(1998)은 속담과 관용 표현을 선별할 때 형식적 특성, 일상적 사용 빈도, 의미의 명확성, 외국인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김정아(2002)는 학습자의 수준과 한국 문화 배경을 반영한 속담을 선정하였으며, 이동규(2005)는 교육용 속담을 교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빈도와 의미 변화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김선정·김성수(2006)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80개의 속담을 선정한 뒤, 한국인 대학생 대상 설문을 통해 60개 속담을 교육용으로 추려냈으며, 이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효정(2007) 역시 사용 빈도가 높고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속담을 교육용으로 선정하였으며, 송현아(2008)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어의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평가하여 단계별 교육용 관용어를 구성하였다.³⁾

3) 본 연구는 헤마(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케냐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마의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인도 학습자를 위한 속담을 선정하였으

본 연구는 헤마(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케냐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헤마의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인도 학습자를 위한 속담을 선정하였으며, 한국어 교재에서 3회 이상 등장하는 속담을 추출한 뒤, 설문 조사를 통해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정된 속담을 인도 속담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속담을 이해하는 정도와 학습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핵심 기준으로 속담을 선정하지만, 설문 방식은 다르게 적용한다. 학습자들에게 속담의 난이도를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대신, 속담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속담의 난이도는 의미의 명확성에 따라 반투명형(초급), 반 불투명형(중급), 불투명형(고급)으로 구분된다(김나영, 2008.8 재인용).

- 반투명형 속담은 개념적 의미를 통해 함축적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번역이 용이한 속담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반 불투명형 속담은 개념적 의미로 함축적 의미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문화적 설명이 필요한 속담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이 해당한다.

- 불투명형 속담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문화적 배경

며, 한국어 교재에서 3회 이상 등장하는 속담을 추출한 뒤, 설문 조사를 통해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정된 속담을 인도 속담과 비교하여 학습자가 속담을 이해하는 정도와 학습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핵심 기준으로 속담을 선정하지만, 설문 방식은 다르게 적용한다. 학습자들에게 속담의 난이도를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대신, 속담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시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설명이 필수적인 속담으로 말이 씨가 된다, 개천에서 용 난다 등이 있다.

최은규(2002)는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며 폭넓게 쓰이는 표현이 학습자에게 유용하며, 한국 문화 이해에도 적합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속담을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냐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정리하고자 한다.

〈표 3〉 교육용 속담의 선정 과정

선정	사용빈도	한국어 자료에서 많은 중복된 속담의 제시 빈도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빈도 조사 확인
배열	난이도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의 대조분석
		케냐인 학생들 난이도 평가 조사(온라인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 빈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용 빈도는 한국어 교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속담과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출제 여부를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사용 빈도를 참고하면서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속담을 중심으로 교육용 속담을 선정할 예정이다.

난이도 기준은 학습자의 언어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속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용 빈도가 높은 스와힐리어 속담과 한국어 속담을 대조 분석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국어와 스와힐리어에서 유사한 속담, 둘째,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 셋째,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 넷째, 표현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속담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Brown(2007)이 소개한 Clifford Prator(1967)의 6단계 난이도 구분을 활용하여 대조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속담 목록을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속담의 난이도를 직접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고, 한국과 케냐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2.2. 속담의 선정 기준과 사용 빈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속담의 양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용 속담 선정 기준으로 사용 빈도를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속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속담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며, 김정아(2002)는 3회 이상 등장하는 속담을 교육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여 교재에서 3회 이상 등장하는 속담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73개의 속담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사용 빈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매겼다. 연구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빈도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73개의 속담 목록을 도출하였다.

〈표 4〉순위에 따라 속담의 중복 비율 목록

속담	교재 제시 빈도	TOPIK 제시 빈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9	8
낮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7	6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9	3
말 한마디 천 냥 빚 갚는다	8	4
싼 게 비지떡	6	5
밑 빠진 독에 물 붓다	2	8
세 살이 버릇 여든까지 간다	2	7
하늘의 별 따기	6	3
식은 죽 먹기,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은 읊는다	5	3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5	2
가는 말이 장날이다	6	2
밑 빠진 북에 물 붓다	0	8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림의 떡, 돌다리도 두들려도 보고 건너라,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4	3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3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	5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누워서 침 뱉다, 울며 겨자 먹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2	4
입에 쓴 약은 몸에는 좋다, 등잔 밑이 어둡다, 산 넘어 산,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 한다	3	3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꿩 대신 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2	3

우물 안 개구리, 땅 짚고 헤엄치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티끌 모아 태산, 누워서 떡 먹기	3	2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4	1
금강산도 식후경, 공든 탑이 무너지라	3	1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1	3
계란으로 비위치다	0	4
시작이 반이다, 세월이 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3	0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걱정 팔자, 꼬리가 길면 밟힌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개천에서 용 난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⁵⁷ . 김칫국부터 마신다	2	1
옥에 티, 지성이면 감천이다., 모르는 게 약,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쇠뿔도 단김에 빠다,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	1	2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0	3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4	0
제 눈에 안경	2	2
총 속담 수	73개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용 속담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와 TOPIK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속담 73개를 선정하고, 중복

빈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이를 통해 선정된 속담들은 케냐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단계(초급, 중급, 고급)에 맞춰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익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3. 속담의 난이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속담의 난이도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선정된 73개의 속담을 단계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속담과 스와힐리어 속담을 비교 분석하고, 스와힐리어 사용자의 속담 이해도를 평가하여 체계적인 난이도 구분을 시도한다.

2.3.1.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유사한 속담

속담 비교는 의미와 표현 방식이 유사한 속담,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른 속담,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 표현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속담의 네 가지 기준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비 온 뒤에 낙이 온다”는 스와힐리어 속담 “Baada dhiki Faraja”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Safari ya maili elfu huanza kwa hatua moja”와 의미가 유사하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케냐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속담 목록을 구성할 예정이다.

〈표 5〉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유지한 속담

	한국 속담	스와힐리어 속담
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Baada ya dhiki Faraja
2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Safari ya maili elfu huanza kwa hatua moja
3	쇠뿔도 단김에 빼다	chuma kiwahi kingali moto

1~3까지 속담은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모두에서 표현 방식은 그리고 의미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속담들이다.

2.3.2. 의미가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

의미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의 예로는 한국어 속담 “티끌 모아 태산”과 스와힐리어 속담 “haba na haba hujaza kibaba”(작은 것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운다)를 들 수 있다. 두 속담 모두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속담들은 서로 다른 언어적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 중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의미가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속담

	한국 속담	스와힐리어 속담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Kwendako mema hurudi mema
2	돌다리도 두려도 보고 건너라	Haraka haraka haina baraka(빨리 빨리 축복이 없다)
3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Nyumba nzuri si mlango fungua uingie ndani(좋은 집은 문이 아니고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알 수 있다)
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Umoja ni nguvu utengano ni udhaifu / kidole kimoja hakivunji chawa (단결은 강한, 분리는 약함/ 손가락 하나로 이가 부러지지 않는다)
5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Kila ndege huruka kwa ubawawe(모두 새는 날개로 날아간다)
6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Kosa ni mama wa mafanikio (실수는 성공의 엄마다)
7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Baada ya dhiki Faraja(그 투쟁이 위안이 된 후에)
8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Achanikaye kwa mpini hafi njaa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9	산 넘어 산	Siku ya nyani Kufa Miti yote huteleza (원숭이 죽은 날이 모두 나무 다 미끄러워진다)
10	티끌 모아 태산	Haba na haba hujaza kibaba(희소성과 희소성이 부성을 채우다)
11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Achanikaye kwa mpini hafi njaa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12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Nyumba nzuri si mlango fungua uingie ndani(좋은 집은 문이 아니고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알 수 있다)
13	입에 쓴 역은 몸에 좋다	Mchumia juani hulia kivulini(햇빛 속의 농부가 그늘에서 먹는다)
14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Palipo na Moshi Pana moto/ dalili ya mvua ni mawingu (연기가 있을 때 불이 난다/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라)
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Sumu ya sindano inakuwa sumu ya ng'ombe
16	공든 탑이 무너지랴	Mchumia juani hulia kivulini (햇빛이 속의 농부가 그늘에서 먹는다)
17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Fahali wawili wakipigana nyasi ndio huumia (황수 두 마리가 싸우면 풀이 다친다)
18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Ajuaye mengi hasemi mengi (많이 아는 자가 많이 말하지 않는다)
19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Maziwa yakimwagika hayazoleki (우유 쏟아지면 다시 사라지지 않는다)
20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Umoja ni nguvu utengano ni udhaifu (단결은 강함, 분리는 약함)
21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Chema chajiuza kibaya chajitembeza
22	금강산도 식후경	Mkate mwingi ni bora kuliko wimbo wa maneno mengi (많은 떡이 많은 말의 노래보다 낫다)
23	등잔 밑이 어둡다	Nyani haoni kundule

위에 바와 같이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소감에 의미 같지만, 표현 방식 다른 속담들이 1~23까지다.

2.3.3.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

한국어 속담을 스와힐리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국 문화 깊이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와 같은 속담은 한국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스와힐리어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담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려면, 속담이 형성된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습자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과 스와힐리어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속담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문화적 비교와 맥락 설명하기

예를 들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은 가까운 곳일수록 주의를 덜 기울여 실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전통 생활에서 촛불과 등잔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스와힐리어 학습자들에게 이 속담을 설명할 때,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을 예로 들어 먼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상실한 상황을 표현하는 속담이므로 한국 농촌 사회에서 닭과 개가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맥락을 함께 설명하면 효과적이다.

- 시각 자료와 이야기 활용하기

속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림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설명할 때, 낮과 한글 자음 ‘ㄱ’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진다.

-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 설명하기

일부 속담은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 이를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스와힐리어 문화에도 비슷한 믿음이나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 비교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속담의 핵심 교훈에 집중하기

속담의 구체적 표현보다 그 속담이 전달하는 핵심 교훈에 집중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스와힐리어에는 비슷한 교훈을 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거나 학습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예시를 제시하면 한국 속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속담이 나타내는 상황과 주제 연관시키기

속담이 사용되는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강자들 간의 다툼 속에서 약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설명할 때,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상황을 예로 들거나, 스와힐리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을 찾으면 학습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은 다양하며,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는 속담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언어의 속담을 대조 분석하여 각 문화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담은 특정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스와힐리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화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스와힐리어 속담에서 직접적인 대응 표현을 찾을 수 없는 한국어 속담 목록이다.

〈표 7〉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

	속담
1	시작이 반이다
2	세월이 약
3	까막귀 날자 배 떨어진다
4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5	말이 씨가 된다
6	개천에서 용 난다
7	꼬리가 길면 밟힌다
8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9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10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11	지성이면 감천이다
12	꿩 대신 닭
13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4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15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16	굽어 부스럼
17	우물 안 개구리
18	모르는 게 약
19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20	밑 빠진 독에 물 붓다
21	땅 짚고 헤엄치기
22	누워서 침 뱉다
2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은 읊는다
24	계란으로 비위 치다
25	김칫국부터 마신다
26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안다
27	제 눈 안경
28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다
29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30	누워서 떡 먹기
3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32	말 한마디 천 냥 빚 갚는다
33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34	식은 죽 먹기
35	싼 게 비지떡
36	하늘의 별 따기

37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8	그림의 떡
39	낮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40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41	남의 떡 더 커 보인다
42	친구 따라 강남 간다
43	걱정도 팔자
44	아 다르고 어 다르다
45	옥에 티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을 비교·분석하여 두 언어 간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탐구하고, 케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속담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속담은 각 문화의 역사, 사회적 배경,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 간의 의미적·표현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 중 표현 방식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두 문화가 일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담의 의미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케냐 내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과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한국 속담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속담을 통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 속담에 대한 케냐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케냐 학습자들의 한국 속담 이해도를 분석하고, 속담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 의미와 표현이 유사한 속담
 - 의미는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른 속담
 - 한국에만 존재하는 속담
- ②.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한국 속담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
- ③.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공했을 때 한국 속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본 연구는 57명의 스와힐리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교사들이 케냐 및 스와힐리어권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속담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케냐의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설문에 응답한 한국어 학습자의 기본 사항

설문 항목		빈도(명)
성별	여자	41
	남자	16

연령	18세 이하	0
	19~24 세	30
	25~34 세	23
	35~44 세	4
	45~54세	0
교육	고등학교	11
	학사 학위	42
	석사 학위	4
한국어 공부 기간	6개월 이하	27
	6개월~1년	16
	1~2년	5
	2~3년	2
	3년 이상	7
한국에 간 목적	관광	6
	학생	8
	직업	2
직업	학생	49
	취업자(작장인 플랜스 등)	8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스와힐리어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로,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41명 대 16명), 19~24세 연령대(30명)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6개월 이하(27명)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41명이었다.

2.3.4. 한국 속담 이해도 분석

설문에서는 난이도별(초급, 중급, 고급)로 속담을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선택하게 하고,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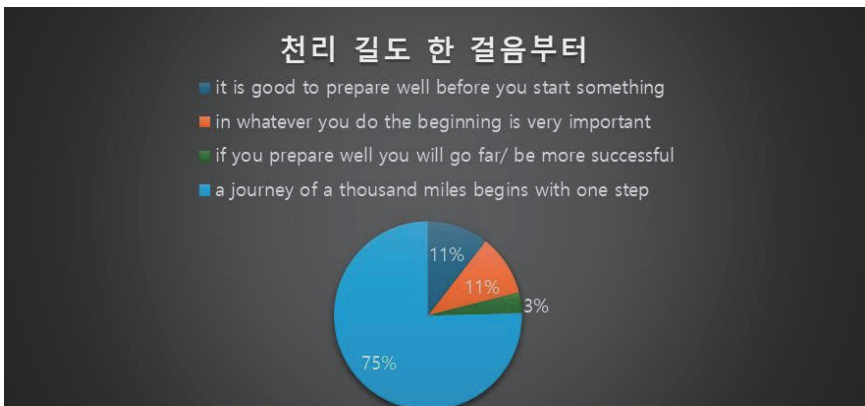
- 초급 속담: 문법이 쉽고 스와힐리어 속담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중급 속담: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며, 스와힐리어 속담과 표현 방식이 일부 다르다.

- 고급 속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속담으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급 속담은 스와힐리어 속담과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예를 들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5%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의미가 비슷한 스와힐리어 속담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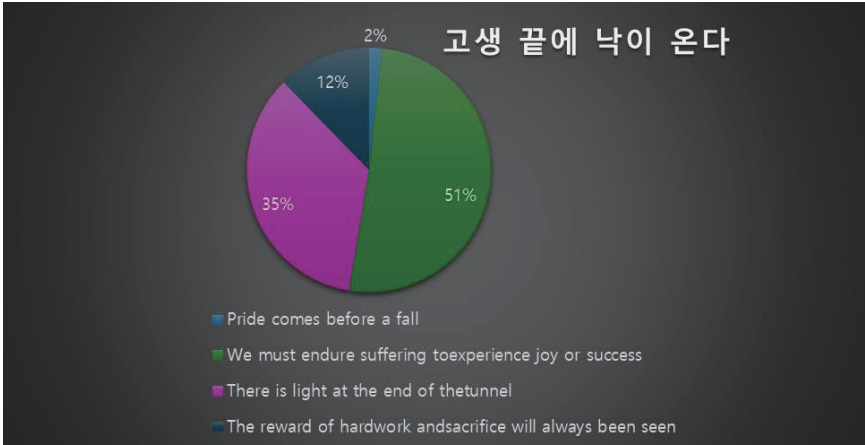
〈차트1〉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설문조사 결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에 대해 51%의 학생이 정확히 이해했으며, 49%는 그렇지 못했다. 이 속담은 “고난 뒤에 좋은 일이 온다”는 보편적 교훈을 담고 있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스와힐리어 속담 ‘baada ya dhiki faraja’(고통 후 위로가 온다)와 ‘mwisho wa mateso ni furaha’(고난의 끝에 행복이 온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연관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49%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지 못한 이유는 번역의 미세한 차이와 문화적 맥락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이 표현 방식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 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속담이 사용되는 방식과 맥락이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학생들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2〉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학생들은 의미가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이 있을 경우, 한국 속담을 더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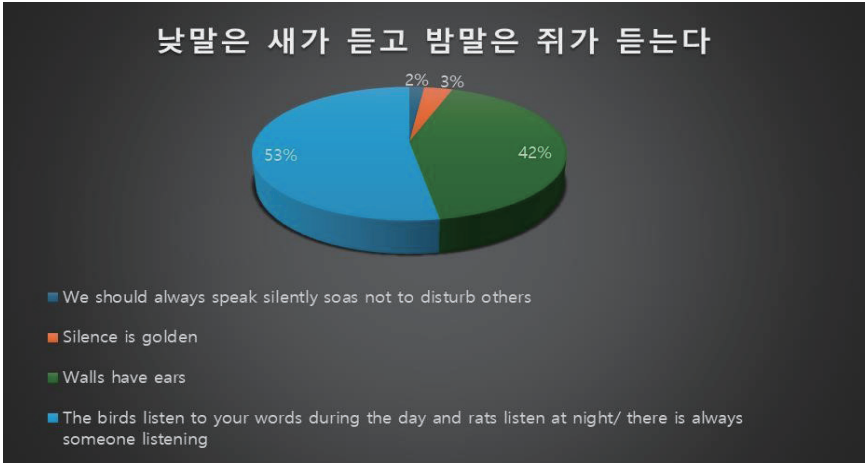
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언어의 속담이 유사한 어휘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정확한 대응 속담을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 속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해 수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한국 속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번호	속담	옳은 답 선택한 학생 수(%)	잘 못 답을 선택한 학생 수(%)	%
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6	14	100
2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75	25	100
3	쇠뿔도 단김에 빼다	74	26	100
4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77	23	100
평균		78	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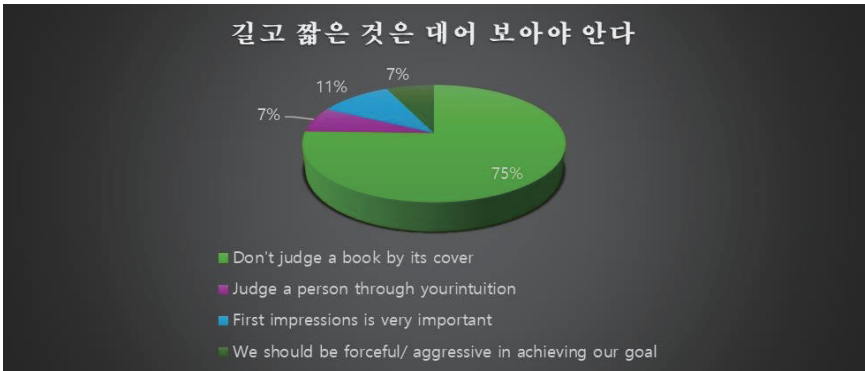
중급 수준의 한국 속담은 스와힐리어에 유사한 표현이 있지만, 방식의 차이로 정답률이 50%에 그쳤다. 예를 들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서 53%가 정답을 맞혔으나, 47%는 오답을 선택했다. 의미가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 덕분에 많은 학생이 뜻을 설명할 수 있었다.

〈차트3〉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속담에서 75%의 학생이 정답을 선택했다. 경험을 통해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교훈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으며, 번역과 설명이 도움을 주었다. 또한,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이 있어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차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차트 4〉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7%의 학생이 속담을 정확히 이해했으며, 정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이 존재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깊이 있는 설명까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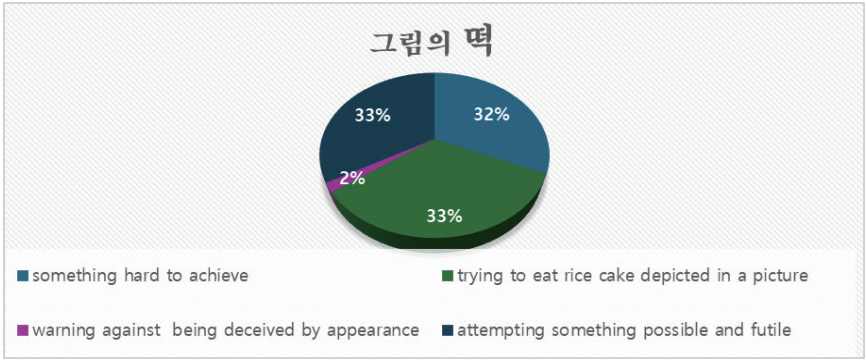
〈표 10〉 스와힐리어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한국 속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번호	속담	옳은 답 선택한 학생 수(%)	잘 못 답을 선택한 학생 수(%)	%
1	월송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93%	7%	100%
2	등잔이 밑이 어둡다	65%	35%	100%
3	좋은 약 입에 쓴다	63%	37%	100%
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51%	49%	100%
5	티끌 모아 태산	65%	35%	100%
6	농친 고기가 커 보인다	68%	32%	100%
7	빈 수레가 요란하다	97%	3%	100%
8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95%	5%	100%
9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75%	25%	100%
10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98%	2%	100%
11	셋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95%	5%	100%
12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2%	18%	100%

13	쇠 불도 단김에 빠다	60%	40%	100%
1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68%	33%	100%
15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86%	14%	100%
평균		77%	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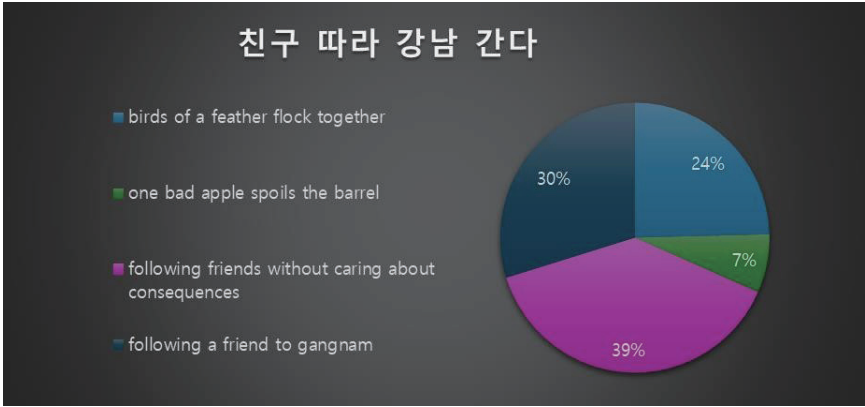
고급 수준 속담의 정답률은 49%로 낮았으며, 특히 ‘그림의 떡’은 32%만 정답을 맞혔다. 이는 ‘떡’ 개념이 한국 문화에만 존재해 학생들이 직역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적 차이가 속담 이해에 장애물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트5〉 그림의 떡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속담의 정답률은 39%에 불과했으며, 많은 학생이 ‘같은 종류의 새들이 모인다’(24%) 등으로 오해했다. 이는 속담이 가진 ‘타인의 영향’이라는 개념이 스와힐리어 문화에서 덜 강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직역된 해석이 의미 전달에 실패하면서 오해를 초래했다.

〈차트6〉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속담들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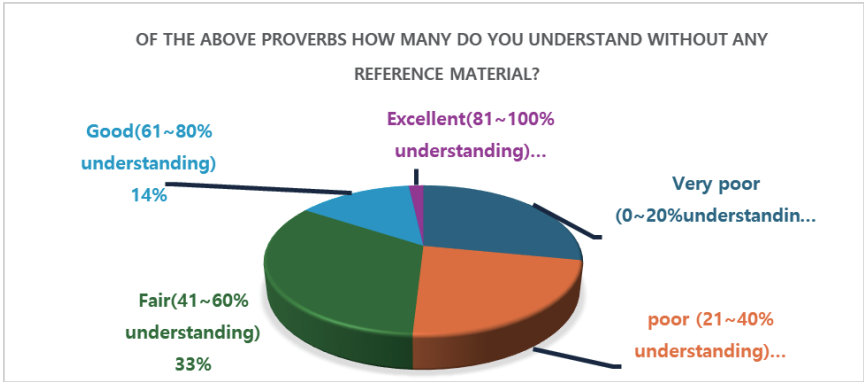
〈표 11〉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번호	속담	옳은 답 선택한 학생 수(%)	잘 못 답을 선택한 학생 수(%)	%
1	시작 반이다.	49%	51%	100%
2	핑 대신 닭	32%	68%	100%
3	그림의 떡	32%	68%	100%
4	남의 덕 더 커 보인다	56%	44%	100%
5	싼 것이 비지떡	75 %	25%	100%
6	제 눈 안경	88%	12%	100%
7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42%	58%	100%
8	모르는 게 약이다	39%	61%	100%
9	친구 따라 강남 간다	39%	61%	100%

10	누워서 떡 먹기	61%	39%	100%
11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49%	51%	100%
12	셋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54%	46%	100%
13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16%	84%	100%
14	위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	68%	32%	100%
15	김칫국부터 마신다	40 %	60%	100%
16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은 읊는다.	42%	58%	100%
평균		49%	51%	100%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속담의 평균 정답률은 49%로, 많은 학생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정답률이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68%가 맞았으며, 이는 스와힐리어 문화에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51%의 학생이 참고 자료 없이 한국 속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해, 문화적 배경 지식이 속담 이해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었다.

〈차트7〉 위에 있는 속담 중에 참고 자료 없이 얼마나 이해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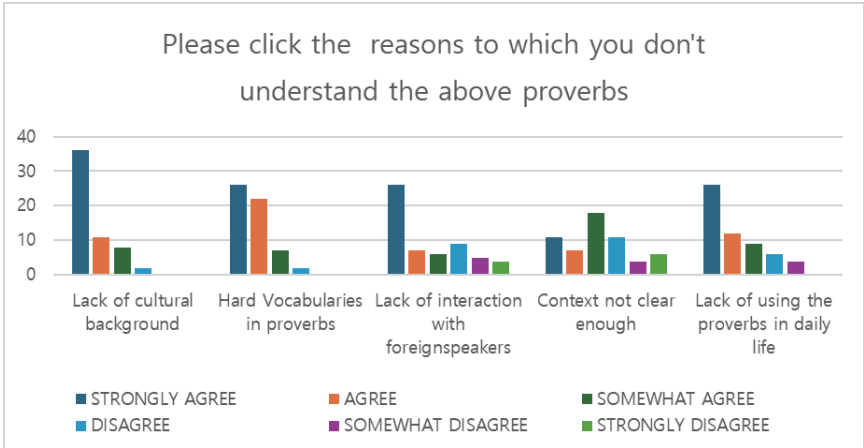
2.3.5.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한국 속담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

학생들이 한국 속담을 이해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문화적 배경 부족(63%), 어려운 어휘(45.6%), 외국어 사용자의 상호작용 부족(45.6%), 일상 생활에서 속담 사용 부족(45.6%), 그리고 맥락이 불분명함(19.3%)이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문화적 차이로, 예를 들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개념이 스와힐리어 문화에서는 덜 강조되었다. 또한, ‘외양간’처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속담은 이해가 어려웠다. 한국어 사용 기회가 적거나 속담이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으면 학습이 더 어려워졌으며, 비유적 표현이 많아 맥락 없이 접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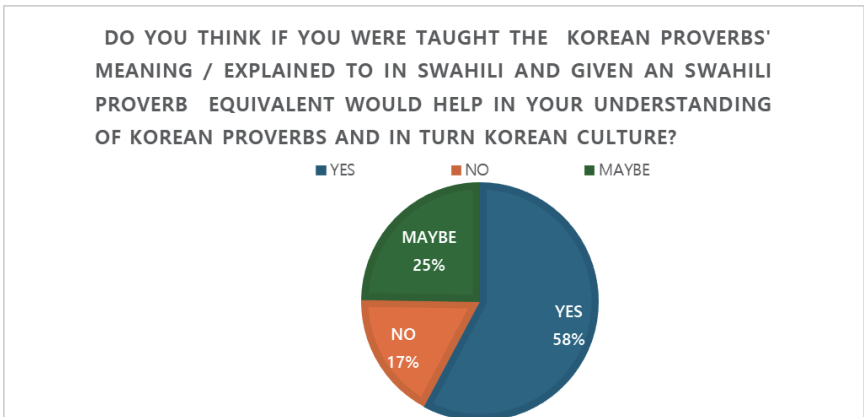
이 연구 결과는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1〉 위에 있는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이러한 결과는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트8〉 한국 속담과 의미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한국 속담을 이해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문화적 배경 부족(63%), 어려운 어휘(45.6%), 외국어 사용자의 상호작용 부족(45.6%), 일상 생활에서 속담 사용 부족(45.6%), 그리고 맥락이 불분명함(19.3%)이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문화적 차이로, 예를 들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개념이 스와힐리어 문화에서는 덜 강조되었다. 또한, ‘외양간’처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속담은 이해가 어려웠다. 한국어 사용 기회가 적거나 속담이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으면 학습이 더 어려워졌으며, 비유적 표현이 많아 맥락 없이 접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frac{\text{한국 속담을 맞힌 학생 수}}{\text{전체 학생 수}} \times 100\%$$

(i) 초급 수준의 속담은 전체 속담 중에서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명의 학생이 초급 속담을 정확하게 답했으며, 오답을 선택한 학생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학생의 78.9%가 해당 속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ac{\text{한국 속담을 맞힌 학생 수}}{\text{전체 학생 수}} \times 100\% \qquad \frac{45}{57} \times 100\% = 78.9\%$$

(ii) 중급 수준의 한국 속담은 초급 속담과 달리 동일한 어휘 구성과 표현 방식을 가진 유사한 스와힐리어 속담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명의 학생이 속담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스와힐리어 속담을 제시할 수 있었다. 반면,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은 13명에 불과했다.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77.1%가 정답을 선택했으며, 이는 초급 속담보다 약간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3/4 이상의 학생들이 속담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frac{\text{한국 속담을 맞힌 학생 수}}{\text{전체 학생 수}} \times 100\%$$

$$\frac{44}{57} \times 100\% =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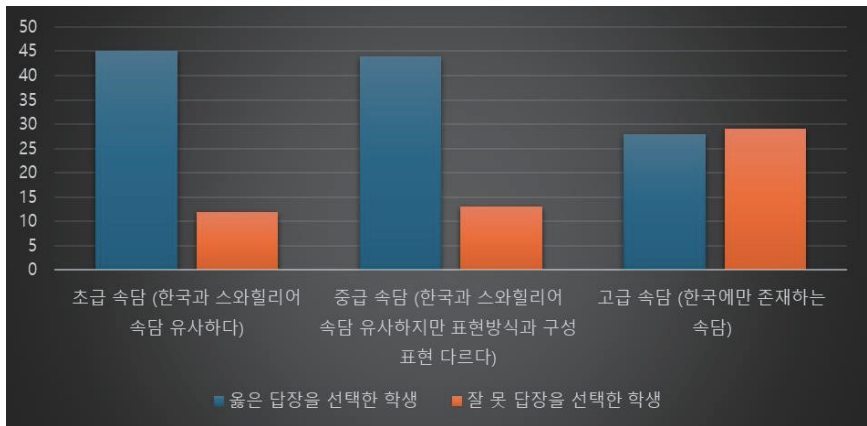
(iii) 스와힐리어 속담과 유사한 표현이 없는 고급 수준의 한국 속담은 케냐 학생들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로 나타났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28명, 오답을 선택한 학생은 29명으로, 정답률은 49.1%로 평균 이하였으며, 오답률은 50.9%로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학생들이 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경우,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frac{\text{한국 속담을 맞힌 학생 수}}{\text{전체 학생 수}} \times 100\%$$

$$\frac{28}{57} \times 100\% = 49.1\%$$

학생들이 한국 속담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래프 2 〉 한국 속담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 결과



3.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 및 문화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과 케냐 속담을 분석하여 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한다. 한국 속담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케냐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공통된 개념이 반영된 속담은 이해가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 비교를 통해 한국 속담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속담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 문화의 분류 기준을 검토하였다. 김중섭 외(2011: 15-22)는 한국 문화를 예술, 교육, 생활, 가족, 취미와 여가, 역사 등으로 나누었으며, 강현화(2011: 79-87)는 이를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정희(2015: 81-84)는 재미교포 아동 대상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문화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김중섭 외(2011:16)의 문화 전문가 검증은 바탕으로 속담을 언어생활, 일상생활, 사고방식의 세 가지 상위 주제로 분류하고, 하위 주제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교훈, 언어 표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류된 문화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속담의 문화 주제 분류⁴⁾

번호	상위 주제	하위 주제
1	일상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2	언어생활	말/ 언어
3	사고방식	교훈, 지능, 심성

4) 이 논문의 일부는 김중섭 외(2011: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속담에 반영된 문화를 주요 주제로 3개의 문화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에 하위 항목을 설정한 것이다. 다른 연구들이 속담에 반영된 문화를 분류하려 했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좁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케냐 속담과 한국 속담 간의 차이점 분석에 도움이 된다

3.1. 주제 분류별 속담 비교

3.1.1. 일상생활과 관련된 속담 비교

일상생활 속담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로 구분되며, 이는 각 민족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케냐의 관련 속담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생활 방식이 속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3〉 한국과 케냐의 일상생활이 관련된 속담 비교

	한국어	케냐
의생활	바늘이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짚신도 짝이 있다(짝이 있기 마련이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Mwizi ni mwizi hakuna mwizi mkubwa au mdogo 2)없음 3) marafiki kama Chanda na pete
식생활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다 팽 대신 닭 남의 떡 더 커 보인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데 김치 국부터 마신다 싼 것이 비지떡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림의 떡	Achanikaye kwa mpini hafi nja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생활	1)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1)dalili ya mvua ni mawingu
기타	1)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2) 술과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다-찬구는 술과 같다, 오래 될 수 있다 3)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1)mchumia juani hulia kivulini (햇빛이 일하는 사람은 그림자에서 먹어요- 열심히 일한 뒤 성공이다) 2)없다 3)없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은 인간관계, 도덕성,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① **의생활:** 한국 속담 “바늘이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작은 잘못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짚신도 짝이 있다”*는 인연의 존재를 시사한다. 스와힐리어 속담 “Mwizi ni mwizi hakuna mwizi mkubwa au mdogo”와 “Marafiki kama Chanda na pete”도 도덕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바늘 가는 데 실 간다”에 대응하는 표현은 없다.

② **식생활:** 한국 속담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기회 활용을,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기대를 경계하는 의미를 가진다. 스와힐리어 속담 “Achanikaye kwa mpini hafi njaa”도 노력과 보상을 강조하지만, 정확한 대응 속담은 없다.

③ **주생활:** 한국의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와 스와힐리어의 “Dalili ya mvua ni mawingu”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④ **기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작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는 의미이며,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오랜 관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스와힐리어 속담 “Mchumia juani hulia kivulini”*는 노력 후 보상이 따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두 문화는 인간관계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3.1.2. 언어생활과 관련된 속담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과 케냐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속담을 분석하여 양국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속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속담에 나타난 ‘말’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표현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언어적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문화는 인간관계와 노력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지만, 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정 가치나 개념을 더 강조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속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며,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4〉 양국의 언어생활이 관련된 속담 비교

언어	한국어	스와힐리어
긍정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다	kwendako mema hurudi mema Maneno ni kama fumo yakitoka mdomoni hayarudi maneno ya mpole humpoza mwenye hasira(부드러운 말은 화 를 가라앉힌다/Kauli njema ilitoa nyoka pangoni(기쁜 소식은 동굴 속의 뱀을 준다. /maneno mazuri baraka (좋은 말은 축복이다
부정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없음 debe tupu haliachi kuvuma(빈 수 레가 더 요란하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은 모두 언어의 힘과 책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말 사용과 긍정적 소통의 중요성을 전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와 스와힐리어의 “maneno mazuri hutoa nyoka pangoni”는 부드러운 말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말이 씨가 된다’와 “maneno ni kama fumo yakitoka mdomoni

hayarudi”는 언어의 영향력을 경고하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kwendako mema hurudi mema”는 존중이 긍정적 관계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밀 유지와 경계심에 대한 교훈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와 “kuta zina maskio”는 말이 쉽게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말은 적을수록 좋다’와* “neni moja ni uzito lakini maneno mengi ni mzingo”는 불필요한 말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말로 온 공을 갚는다’와 “kipande kimoja cha dhahabu hakitofautishi na kimoja cha shaba”는 행동이 말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결국, 두 문화는 언어의 신중한 사용과 책임감을 중시하며, 상호 존중을 통한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표 15〉 양국 언어생활 속담들의 다양한 기능

스와힐리어 언어생활 속담들이 다양한 기능	한국어 언어생활 속담들이 다양한 기능
1. 말보다 행동 사용 경고(예: kipande cha dhahabu hakitofautishi na kipyaa cha shaba)	1. 말보다 행동 사용 경고(예 말로 온 공을 갚는다)
2. 말을 상처 입은 상처 치료하거나 갈등 해결(예 maneno mazuri baraka / 좋은 말이 증복이다)	2. 말을 상처 입은 상처 치료하거나 갈등 해결(예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3. 적게 말하는 게 실수를 줄인다(예, neni moja ni uzito lakini maneno mengi mzingo)	적게 말하는 게 실수를 줄인다(예 말은 적을수록 좋다)
4.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 (예 maneno ni kama fumo yakitoka mdomoni hayarudi)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예 길은 갈 탓, 말은 할 탓/말이 싸가 된다)

<p>5.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해야 한다(예, kwendako mema hurudi mema)</p>	<p>말그대로 자신이 남에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해야 남도 자신에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해준다는(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p>
<p>6. 비밀히 한 말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 (예, kuta zina maskio)</p>	<p>비밀히 한 말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 (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p>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은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한국어)와 “Kuta zina masikio”(벽에도 귀가 있다, 스와힐리어)는 모두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음을 경고하지만, 한국어 속담은 구체적인 어휘를, 스와힐리어 속담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부 한국 속담은 스와힐리어에서 대응 표현이 없으며, 특히 부정적인 언어생활과 관련된 속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 속담은 언어 사용의 태도를 강조하며, 스와힐리어 속담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한다. 결과적으로, 두 언어의 속담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신중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3.1.3. 사고방식에 관련된 속담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과 케냐의 속담을 비교하여 각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속담을 ‘교훈’, ‘심성’, ‘사리’, ‘기타’*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양국 언어 속담의 의미와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6) 사고방식에 관련된 속담 비교

사고	한국어	스와힐리어
교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Baada ya dhiki Faraja(고생 끝에 낙이 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Safari ya maili ndefu huanza kwa hatua moja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	Baada ya dhiki Faraja (문제 온 뒤에 성공) Ajuaye mengi hasemi mengi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말이 안 해요) Mchumia juani hulia kivulini (햇빛이 아래 알 하는 사람은 그림자에서 먹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Kosa ni mama wa mafanikio (실수는 성공 업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Haraka haraka haina baraka (빠르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Nyumba nzuri si mlango fungua uingie ndani(좋은 집은 문이 아니고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알 수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Nyumba nzuri si mlango fungua uingie ndani(좋은 집은 문이 아니고 열어서 안에 들어가서 알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없음
	공든 탑이 무너져라	Mchumia juani hulia kivulini (햇빛이 속의 농부가 그늘에서 먹는다)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Achanikaye kwa mpini hafi njaa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소 귀에 경 읽기	mwambie anayekiskiza(들은 사람에게만 말해줘요)/ asiyefunzwa na mamaye hufunzwa na ulimwengu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강남에서 용 난다.	Maziwa yakimwagika hayazoleki(우유를 쏟아지면 다시 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심성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걸 다르고 속 다르다	kila ndege huruka kwa ubawawe (각 새 자기 날개를 날아요) 없음
사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Umoja ni nguvu utengano ni udhaifu/ kidole kimoja hakivunji chawa (통일은 힘고 이별은 약이다) Fahali wawili wakipigana nyasi ndo huumia (황수 두 마리 싸우면 풀이 아프다) Umoja ni nguvu utengano ni udhaifu(단결은 강한,분리는 약함)

〈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며, 사고방식·심성·사리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속담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한국어)와 “Baada ya dhiki faraja”(스와힐리어)는 역경 후의 성장을 의미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Maziwa yakimwagika hayazoleki”(쏟아진 우유는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문제 발생 후 해결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속담이다. 이는 한국과 케냐에서 중요한 경제 자원이 다름을 반영한다. 또한, “소 귀에 경 읽기”처럼 비유적 표현을 쓰는 한국어 속담과 달리, 스와힐리어 속담은 “Mwambie anayekuskiza”(들을 사람에게만 말하라)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두 문화는 유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속담을 공유하지만, 사용되는 어휘와 비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와 인생 교훈을 다룬 속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보이지만, 식생활과 관련된 속담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유사한 표현이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3.2. 한국과 케냐의 속담에 내재한 종교성

3.2.1. 케냐의 종교와 스와힐리어 문화가 속담에 미친 영향

케냐는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 종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이며, 그중 이슬람교는 스와힐리어 및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와힐리어는 아랍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면서 이슬람 문화의 요소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케냐 사회에서 국민 정체성, 가치관, 도덕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와힐리어 속담 역시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며, 가족, 공동체, 환대, 성별 역할 등의 개념을 강조한다.

가족과 공동체는 케냐 문화의 중심이며, 이는 속담을 통해 강화된다. “Mtoto umleavyo ndivyo akuavyo”(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속담은 가족 내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Mkono mmoja hauuguzi moto”(한 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공동체 내 협력과 상호 지원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공동체 중심적인 케냐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며,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환대와 공동체 의식은 케냐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Mgeni njoo mwenyeji apone”(손님이 오면 주인이 변명한다)는 환대가 공동체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동체주의가 더욱 강조되는 케냐에서는 보다 강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한다.

한편, 성별 역할과 관련된 속담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Mwanamke ni pambo la nyumba”(여성은 가정의 장식품)와 “Kazi ya mwanamke ni jikoni”(여성의 일은 부엌에 있다)와

같은 속담은 여성을 가정 내 역할로 한정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 및 경제적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속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케냐의 스와힐리어 속담은 이슬람 문화와 아프리카 전통이 융합된 공동체 중심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속담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환대와 협력의 개념이 강화된다. 그러나 성별 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과 케냐 간의 상호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양국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2.2. 종교의 영향이 강한 한국의 문화 배경

한국 속담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의 종교 및 철학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이는 한국인의 삶과 사고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속담은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시대와 문화적 변화에 따라 재해석된다. 본 연구는 한국 속담 속에 반영된 주요 가치들을 분석하여 그 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① **유교적 가치**-유교는 조선 시대(1392~1897) 동안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가족, 사회 질서, 도덕적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속담 속에는 유교의 핵심 가치인 효(孝), 장유유서(長幼有序), 예의(禮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지도자의 도덕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반영한 속담도 존재하지만 현대적 가치관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② **불교적 가치**-불교는 업(業), 무상(無常) 등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업보 사상을 반영하며, “산 넘어 산”은 인생의 도전과 극복을 의미한다. 또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사찰 체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③ **샤머니즘의 영향**-샤머니즘은 자연과 조상의 영혼, 운명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며, 속담 속에서도 이러한 신념이 드러난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말의 힘을 강조하며, “말이 씨가 된다”는 언어가 현실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인간관계의 밀접한 연결성을 나타내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징조와 우연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다.

④ **신유학적 가치**-조선 시대 신유학은 유교적 가르침을 심화하여 윤리적 통치와 자기 절제를 강조하였다. “정직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도덕적 이상을 반영하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큰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과 성실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였다.

3.3. J.D. BODLEY에 의한 문화 접근법

문화는 한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체계이다. J.D. Bodley는 문화를 사회적, 역사적, 행동적, 규범적, 기능적, 상징적, 정신적,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문화가 사회 조직과 개인의 행동, 집단 기억, 문제 해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한국 속담은 한국 문화의 핵심 요소로서,

공동체의 가치관과 윤리를 반영하며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기여한다. 속담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지혜를 담고 있으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 속담을 J.D. Bodley의 이론적 틀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가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 속담은 이러한 문화적 차원을 반영하며, 사회적 문화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가 계층 구조와 권위 존중을 강조한다. 역사적 문화는 “늙은 말이 길을 안다”를 통해 조상의 지혜와 세대 간 지식 전수를 나타낸다. 행동적 문화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로 협력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한다. 규범적 문화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에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보여준다. 기능적 문화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를 통해 문제 해결과 적응력을 반영하며, 상징적 문화는 “산 넘어 산”을 통해 공동체의 도전과 연대 의식을 나타낸다. 정신적 문화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로 신중함과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조적 문화는 문화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속담은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체화되는지를 보여주며, Bodley의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례가 된다.

4. 한국 및 스와힐리어 문화 대조 분석

4.1. 케냐와 한국 문화의 유사점

본 절에서는 한국과 케냐 속담의 분석을 통해 두 문화 간의 공통된 가치

관을 살펴본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교사가 문화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와 협력의 가치는 두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속담 “백지 장도 맞들면 낫다”는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스와힐리어 속담 “Umoja ni nguvu, utengano ni udhaifu”는 단결이 곧 힘이며 분열은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연대감을 중시하는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둘째, 인내와 지혜의 중요성이 속담을 통해 표현된다. 한국 속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는 꾸준한 노력이 성공의 기반이 됨을 강조하며, 스와힐리어 속담 “Haraka haraka haina baraka”는 성급한 결정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을 경고한다.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노력과 점진적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케냐에서는 신중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강조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셋째, 자연과 환경과의 조화는 두 문화 속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한다. 한국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스와힐리어 속담 “Samaki mkunje angali mbichi”는 조기 교육과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속담 모두 자연을 은유적으로 활용하여 인간 삶의 교훈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교훈과 경고의 역할이 속담을 통해 나타난다. 한국 속담 “싼 게 비지떡”은 가격과 품질의 관계를 통해 신중한 선택을 강조하며, 스와힐리어 속담 “Asiyefunzwa na mamae hufunzwa na ulimwengu”는 가정 내 교육의 중요성을 경고한다. 두 문화 모두 속담을 통해 윤리적 가치와 올바른 행동을 장려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스와힐리어 속담은 공동체 정신, 인내, 자연과의 조화, 도덕적 가치 등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두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4.2. 한국과 케냐 문화의 차이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속담을 통해 두 사회의 가치관, 삶의 관점, 의사소통 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분석한다.

① **공동체 vs. 위계질서** - 한국은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지도층의 도덕성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됨을 강조한다. 반면, 케냐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존중을 강조하며, “Kidole kimoja hakivunji chawa”(손가락 하나로 이를 잡을 수 없다)라는 속담은 협력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케냐 문화에서는 위계보다는 집단적 조화와 협력을 우선시한다.

② **인내와 견딤 vs. 실용주의와 적응력** - 한국에서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인내와 끈기가 성공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반면, 케냐 문화는 보다 실용적이고 적응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Mwenda pole hajikwai”(천천히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은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중시한다.

③ **간접적 의사소통 vs. 직접적 표현** -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조화를 중시하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처럼 신중한 언어 사용이 강조된다. 이에 반해, 케냐는 보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며, “Kuchoma moto hawezi kumaliza njaa”(불을 피운다고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④ **사회적 조화 vs. 개인 표현** - 한국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은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케냐에서는 개인의 독

창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한다. “Kama samaki akigoma, hutoka pua”(물고기가 버티면 코로 나온다)라는 속담은 개인의 저항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한다.

⑤ **부와 물질적 성공에 대한 견해** -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처럼 개인의 노력과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반면, 케냐에서는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Mali ya bahili huliwana warithi”(구두쇠의 재산은 상속자가 소비한다)라는 속담을 통해 재산이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케냐는 각각 위계와 공동체, 인내와 적응, 간접성과 직설적 표현,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표현, 그리고 개인 성공과 공동체의 변영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문화적 차이를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속담을 분석하여 한국과 케냐의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스와힐리어 사용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스와힐리어와 한국 속담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여 본 연구의 의의가 더욱 크다. 속담은 한 사회의 가치와 관습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본 연구는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한국 속담을 선정하여 한국과 케냐의 문화적 차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

하고, 2장에서는 한국 속담의 정의 및 범위를 논의하며, 스와힐리어 화자를 위한 한국 속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속담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속담의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속담은 이해가 쉬웠던 반면, 차이가 큰 속담은 해석이 어려웠다. 4장에서는 ‘사고’, ‘언어’, ‘생활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속담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와힐리어 속담은 공동체, 인내, 도덕적 교훈 등의 가치를 공유하나, 한국은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권위 존중과 집단주의, 인내를 강조하는 반면, 케냐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갈등 해결 방식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 목록을 제시하여 한국어교육에 기여하며, 두 문화 간 비교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가 한국과 케냐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속담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참고 문헌

[교재]

- 김사엽(1953), 1.『속담론』, 대던 출판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8), 『한국어 중급1』, 경희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8), 『한국어 중급2』, 경희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8), 『한국어 고급1』, 경희대학교출판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8), 『한국어 고급2』, 경희대학교출판부.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4』,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5』,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6』, 교보문고.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3A』,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3B』,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4A』,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5A』, 문진미디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6A』, 투판즈.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3-2』,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4-2』,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5-1』,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5-2』,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6-1』,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6-2』,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논문]

- 강현화(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고영원(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교사와 학습자의 속담 인식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0-198
- 김도환(1993), 「한국 속담 활용 사진」, 한울어커데지.
- 김정화·최은규(2002),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 서울:국제교육진흥원.
- 김문창(1979), 「속담론 서설. 논문집 제13집, 강원대학교.
- 김나영(2008),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교훈적 속담 교육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200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58-136.
- 김선정-김성수(2006), 「한국어 속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 제시, 「외국어 교육」, 한국외대 교육학의 13권 2호, 44-98.
- 김선정(2007), 「살아있는 한국어 속담 편」, 서울:language PLUS, 448-586.
- 김정숙(1997), 「한국어 속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58-100.
- 김정아(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속담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8-369.
- 김선정-김성수(2006), 「한국어 속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 제시, 「외국어 교육」, 한국외대 교육학의 13권 2호, 36-44.
- 김정화(2002), 최은규. 「속담 언어의 일반 의미론적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8-168.
- 김하나(2002), 「문화교육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8-222.

- 김현정(2002),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35-66.
- 김순아(2013), 「다문화 소재를 통한 영어 학습 동기 준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2019), 「장화매 플립러닝 기반 한국어 말하기 수업 적용 연구- 중국 내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30(1), (한국어 교육).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무승현(2002), 「한국과 인도네시아 속담에 속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58-456.
- 박정안(2001), 「속담의 국어 교육적 의의와 지도 방법」,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 박진경(2004), 「속담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98-101.
- 백해숙(2009), 「속담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학원 석사학위논문, 285-356.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재운(1998:13), 「韓國俗談의構造分析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경희(2002), 「속담의 교훈성에 대하여」, 한국어교육학회, 122-148.
- 조현용(2007), 「한국어 속담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2.
-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456-777.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기문(1980), 「한국의 속담」, 감성문화 재단.

- 이을환(1985:308), 「언어에 관한 속담」,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청파문집 8집.
- 이동규(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속담. 관용어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1-189.
- 이효정(200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12-156.
- 양지선(2006), 「동남아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121-144.
- 원수은(200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4-172.
- 조현용(2000),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재윤(1989), 「국어 속담의 문법구조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문화의 교육 방안」, 서울대학교.
- 이효정(200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1997), 「속담 사전」, 서울:일조각.124-126.
- 역은이 김은경(2006), 「댕기 끝에 진주 같은 우리말 속담」.
- 이동규(2005), 「중·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6-400.
- 이동혁(2009),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 이효정(200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철(1997), 「교육용 속담의 선정 연구」, 「호선어문연구」 5호, 호선대학교 국어문학과.

- 이희승(1982), 『국어사전』, 민중서림, 56-101.
- 임지룡(1995:197),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2005),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56-179.
- 이규태(1980), 「속담에 비친 한. 미인의 특성」,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속담의종합적검토를위하여.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6-150.
- 송암지(2000), 「속담 맛 보기」.
- 송현아(2008),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연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1-169.
- 송명수(1989), 「언어에 관한 속담의 의미 기능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4-131.
- 서석현(1974), 「속담의 비교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45-157.
- 방과후(1997), 「재미 있는 속담」 풀이정 철역음.
- 한쟁영(2005), 「외.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헤마(2009),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속담 교육 연구- 인도인 한국어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2-154.
- Alkaya(2001), Hirsch, Kett & Trefil,2002; Mieder, 2007.
- Bodley J.H.(1994), Cultural anthropology: tribes, states and the global system.111-139.
- Brown, H. 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5th edition) 이흥수, 박주경, 경외역, 외국어 교수 학습의 원리, 서울:Person Education Korea.
- D, Angelo(1977), Lakoff & Turner, 1989 ; Mider, 2004 ; Norrick, 1985 ; Ridout & Witting, 1969).

- Henry M Karakacha, Omboga Zaja, Rayya Timmamy(2021), Proverb Usage and the silencing of Women's voices : An exploration of and Arabic Proverbs.Journal of the institute of studies.University of Dar es Salaam. Kioo cha Lugha VOL 19(1),95-108.
- Josphehine Dzahene-Quarshie(2021), Viewing gender through the eyes of proverbs:Reflections of Gender Ideology in the Akan and Swahili societies. Department of Modern languages.University Of Ghana.Journal of Pragmatics 174;128-142.
- Knappert,J(1975), Studies on Swahili Proverbs.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 Kobia,J(2016), A Conceptual Metaphorical Analysis of Swahiliproverbs with reference to chicken metaphor.InternationalJournal Of Education and research, 4(2):217-228.
- Mkota ,A(2009), Kamusi ya Methali za Kiswahili(Maana na Matumizi). Nairobi, Vide- Muwa Publishers.121-113.
- Mumali.H. Karakacha(2021), Depiction of women in Swahili and Arabic proverbs: The Implications of proverbial Wisdom in inscribing Femininity and Masculinity.
- Valdes,Joyce Merril(1986), Culture Bound Cambridge.CambridgeUniversity Press.56-100.

[사전]

국립국어원(2001), [표준국어대사전 v1. 0], 두산동아.

정종진(1993),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태학사.

이기문(1993), [동아 새 국어사전], 동아 출판사.

이기문(1997), [속담 사전] 일조각.

이기문(2005), 『동아 새 국어사전』, 동아 출판.

송재선(1998), 『여성 속담 사전』.

ABSTRACT

CULTURAL DIFFERENCES REFLECTED IN PROVERBS

- Focusing on Kenya and Korea -

Hanna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Kenya through an analysis of Korean proverbs, highlighting their educational value for Swahili-speaking learners. As interest in Korean culture grows among Kenyan students,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pose challenges in mastering the language. Since no prior research has compared Swahili and Korean proverb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contrasting worldviews. By selecting key proverbs, it explores their role in cultural education and language learn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ntrastive analysis.

The study reviews Korean proverbs, their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their presence in textbooks and proficiency exams. A survey of 57 Kenyan learners found that culturally similar proverbs were easier to understand, while unfamiliar cultural concepts posed challeng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Swahili proverbs revealed shared values like humility and cooperation but differing views on hierarchy, communication, and success. The findings reinforce proverbs as effective tools for cultural education, aiding Swahili speakers in learning Korean and deepening cross-cultural understanding.

Keywords: Korean culture, Kenyan culture, Korean education, Proverb education, Cultural differences,

■ 한국어문화연구소 연혁 ■

- 2004. 3. 1 한국어문화연구센터 설립
- 2004. 3. 8 베네차대학 두르소 교수 초청 특강
- 2004. 5. 29 제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공연문화학회와 공동 개최
- 2004. 10. 18 제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국어국문학 전공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 2004. 11. 6 제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공연문화학회와 공동 주최
‘고구려 고분 벽화와 공연문화의 전통’
- 2005. 4. 7 연구소 설립 발의서 제출
- 2005. 5. 1 연구소장 정병헌 교수님 발령 (총장)
- 2005. 7. 1 연구소 간사, 운영위원 및 책임연구원 발령 (총장)
- 2005. 8. 9 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 2005. 11. 5 제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드라마학회와 공동 주최
‘외국 드라마의 한국수용’
- 2005. 11. 제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2005. 12. 연구보고서 발간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2006. 2. 15 제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2006. 2. 28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54. 박순녀>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6. 2. 28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56. 한말숙>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6. 5.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선정
- 2006. 5. 20 제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연문화학회와 공동 개최

2006. 6. 국립국어원 사업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연구> 계약
2006. 11. 한국어문화연구총서 1 『우리 시대의 여행 소설』 발간, 태학사
2006. 11. 28 『한국여성인문사전』 발간, 태학사
2006. 12. 한국어문화연구총서 3 『한국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발간,
태학사
2006. 12. 1 제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한국여성문인사전』 출판기념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06. 12. 연구보고서 발간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2007. 1. 2 2006년도 교외연구비 수탁실적 우수연구소 선정
2007.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75. 송원희>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72. 김남조>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 한국어문화연구총서 2 『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 발간, 태학사
2007.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제1집 발간
2007. 3. 1 연구소장 구명숙 교수 발령(총장)
2007. 5. 8 2007년도 기초연구과제 지원(인문사회분야) 신청:
한·러·일 여성 담론의 이입, 전유 양상 비교 연구
2007. 5. 18 제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국어국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어국문학과와 인문학적 상상력'
2007. 8. 24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
한국여성문학 연구 기반 구축
2007.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제2집 발간
2007. 9. 1 연구소 운영위원, 연구위원 발령(소장)

2007. 10. 26 제1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7. 11. 24 제1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숙명어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문학 연구와 여성’
2007. 12. 18 제1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술 문화’
2007. 1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94. 신지식>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95. 이정호>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2. 연구보고서 발간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08. 1. 2 2007년도 교외연구비 수탁실적 우수연구소 선정
2008. 1. 『한무속 문학의 지평』 발간, 예림기획
2008. 2. 29 한국어문화연구소총서 4 『문학여행』 발간, 태학사
2008. 6. 20 제1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언문화학회 공동주최 ‘축제, 그 본질과 문화적 성격’
2008. 6. 28 제1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공동주최 ‘논술 제자리 찾기’
2008. 8. 23 제1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민족문화학회와 공동주최 ‘한민족문화와 북방지역’
2008. 9. 26 초청강연회 개최: 꿈꾸는 자의 인생
2008. 10. 16 초청강연회개최: ‘다문화사회의 지도자 양성’
2008. 11. 8 제 1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국어국문학과, 숙명어문학회, 한국어문화연구소 공동주최: ‘국제화시대의 한국어문학’
2008. 12. 6 제 1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어언어문화학회 공동주최 ‘근대 공간과 영화’

2009. 2. 7 제 1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우리말교육현장학회 공동주최
‘한국교육어문정책의 이해’
2009. 6. 13 제 1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세계한국어문학회 공동주최
‘한국어문학의 세대 간 소통’
2009. 7. 1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토대연구)선정 ‘해방 이후
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여성문학 자료 수집 정리’
2009. 10. 13 초청강연회개최: ‘키워드로 풀어가는 21세기 문화’
2009. 10. 15 제2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모은 홍승희가慕雲 洪升熹家 유물 기증전』 기념 학술대회’
2009. 11. 7 제21회 정기학술대회개최: ‘세계한국어문학과 다문화주의’
2010. 2. 28 제22회 정기학술대회개최:
‘해방기부터 전쟁기까지의 한국여성문학연구’
2010. 3. 31 초청 강연회 개최 - Culturist Campus Tour
2010. 5. 15 제2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공동 주최
‘고전문학과 교육’
2010. 6. 5 초청 강연회 개최 - 한국 문학의 세계화
2010. 6. 12 제2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세계한국어문학회 공동 주최
‘한국어문학과 다문화주의’
2010. 11. 6 제2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세계한국어문학회 공동 주최
‘한국어문학과 디아스포라(다문화주의)’
2011. 2. 한국어문화연구총서 5 『여성, 문학으로 소통하다』 발간, 태학사
2011. 3. 1 연구소장 권성우 교수 발령 (총장)
2011. 5. 26 초청 강연회 개최 - 글로벌 시대의 번역과 문학(김주연)
2011. 6. 4 제2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세계한국어문학회 공동 주최
‘자유주제 학술대회’
2011. 9. 14 초청 강연회 개최 - 나의 글쓰기와 문학(서경식)

2011. 11. 5 제2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세계한국어문학회 공동 주최
'자유주제 학술대회'
2012. 1. 28 제2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고통과 기억, 슬픔의 미학:
재일 디아스포라 논객의 글쓰기
2012. 4. 14 제2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작문교육의 연구방법론
2012. 5. 3 초청 강연회 개최 - 레민퀘 선생님 초청강연
2012. 10. 12 제3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임화문학 심포지움
2012. 12. 15 제3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전쟁과 한국어문학
2013. 1. 25 제3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뉴미디어 시대의 한국어문학
2013. 3. 1 연구소장 김경령 교수 발령 (총장)
2013. 3. 26 초청 강연회 개최 - 아시아와 유럽의 궁중 문화
2014. 2. 8 제3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어 교육과정의 이해
2014. 11. 29 제3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모색과 정립
2015. 3. 1 연구소장 문금현 교수 발령(총장)
2015. 6. 3 한국학술정보(주)와의 계약 - 논문집 온라인 등재
2015. 6. 20 제3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여성문학과 문화
2015. 11. 23 초청 강연회 개최 - '국립국어원' 내게로 오다(이기연)
2015. 12. 17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와의 학술교류 합의
2015. 12. 18 교양강좌 개최 - '한국어와 한글'(문금현)
2015. 12. 19 제3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6. 1. 15 연구소 후원회 발족
2016. 2. 1 2015년 성과 발표회 개최
2016. 2. 27 연구소 워크샵 개최
2016. 3. 29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개최
2016. 5. 4 2016년 상반기 워크샵 개최
2016. 6. 18 제3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고전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2016.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0집 발간
2016. 9. 9 한국어문화연구총서 6 『시가 피는 시간』 발간, 역락
2016. 11. 12 제3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실제
2016. 11. 22 교양강좌 개최 -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최시한)
2017. 2. 20 한국어문화연구총서7 『쉽게 풀어 쓴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발간, 태학사
2017. 2. 24 2016년 성과 발표회 개최
2017.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1집 발간
2017. 3. 1 연구소장 최시한 교수 발령(총장)
2017. 6. 3 제3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원 소스 멀티유스(OSMU)의 인문학적 연구 및 일반발표
2017. 8. 23 책임연구원 임명식 및 간담회
2017.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2집 발간
2017. 11. 21 교양강연회 - 「세한도」와 스토리텔링
2017. 11. 25 제4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원 소스 멀티유스(OSMU)의 인문학적 연구(2) 및 일반발표
2018. 2. 5 연구소 발전방향 세미나
2018. 2. 9 2017년 성과발표회 개최
2018. 2. 28 한국어문화연구총서8 『문화산업 시대의 스토리텔링 - OSMU를 중심으로』 발간, 태학사
2018.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3집 발간
2018. 3. 1 연구소장 이홍식 교수 발령(총장)
2018. 6. 9 제3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1950-60년대 종합교양잡지의 문화적 의미와 역할
2018. 8. 23 학술 발표회 개최 - 일제 강점기 문화운동가 신명균 연구

2018. 8. 28 콜로키움 개최 - 연극 비평 형성에 기여한 1950-60년대 종합 교양지의 사회 문화적 맥락
2018.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4집 발간
2018. 11. 29 교양강연회 개최 - IB programme에서의 한국어교육
2018. 12. 22 제4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9. 1. 31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 예술지원 확대방안 연구(연구책임자 : 이진아)
2019.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5집 발간
2019. 7. 19 제 4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다중매체시대의 문학과 언어
2019. 8. 30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6집 발간
2019. 12. 21 제4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어문화와 시간의식
2020.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7집 발간
2020. 3. 1 연구소장 이진아 교수 발령(총장)
2020. 8. 28 제4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20.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8집 발간
2020. 12. 30 한국어문화연구소 총서 9 『한국어 동사, 형용사 활용 길잡이 - 어간 편』 발간
2021. 1. 16 제4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재난시대의 가족
2021.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29집 발간
2021. 4. 21 교양강연회 개최 (비대면 온라인 진행)
2021. 7. 30 한국어문화연구소 총서 10 『19세기 경북 봉화 양반의 딸에게 부치는 노래』 발간
2021. 8. 7 제4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언택트 시대의 국제한국어교육
2021.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0집 발간
2021. 12. 18 제4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22. 2. 28 한국어문화연구소 총서 11 『재난시대의 가족』 발간

- 2022.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1집 발간
- 2022. 3. 1 연구소장 박재민 교수 발령(총장)
- 2022. 4. 16 한국어문화연구소·열상고전연구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2. 4. 29 초청강연회 개최
- 2022. 8. 19 제49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2.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2집 발간
- 2022. 3. 1 연구소장 박재민 교수 발령(총장)
- 2022. 4. 16 한국어문화연구소·열상고전연구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2. 4. 29 초청강연회 개최
- 2022. 8. 19 제49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2.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2집 발간
- 2022. 9. 26 공개강좌 개최
- 2022. 10. 4-5 공개강연회 개최
- 2023. 1. 27 제50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3.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3집 발간
- 2022. 3. 1 연구소장 박재민 교수 발령
- 2022. 4. 16 한국어문화연구소·열상고전연구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2. 8. 19 제49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2.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2집 발간
- 2023. 1. 27 제50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3.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3집 발간
- 2023. 5. 30 공개강좌 개최
- 2023. 8. 5 제51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3. 8. 19 한국어문화연구소·한국현대문학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2. 3. 1 연구소장 박재민 교수 발령
- 2022. 4. 16 한국어문화연구소·열상고전연구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2. 8. 19 제49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2.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2집 발간
- 2023. 1. 27 제50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3.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3집 발간
- 2023. 5. 30 공개강좌 개최
- 2023. 8. 5 제51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3. 8. 19 한국어문화연구소·한국현대문학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3.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4집 발간
- 2023. 10. 20 ~ 12.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개최
- 2023. 2. 2 제52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4. 2. 2 제52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2024. 2. 28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5집 발간
- 2024. 3. 1 연구소장 권성우 교수 발령
- 2024. 5. 25 ~ 26 한국어문화연구소·판소리학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4. 7. 11 한국어문화연구소·고전여성문학회 합동발표회 개최
- 2024. 8. 31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 36집 발간
- 2024. 12. 6 공개강좌 개최
- 2025. 2. 14 한국어문화연구소 제5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Ⅰ 휘보 Ⅰ

2023년 9월 21일 정기 월례발표회 개최(수련교수회관 700호)

- <허균의 '도문대작' 의의 재고> (발표자: 한경란)

2023년 10월 20일 - 12월 1일 교양 강좌 개최 (프라임관 206호, 302호)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초청강사: 송경란 외)

2023년 10월 24일 정기 월례발표회 개최(음악대학 601호)

- <고려가요 음악회> (발표자: 신별, 소설)

2023년 12월 22일 정기 월례발표회 개최(수련교수회관 200호)

- <세책 관련 기록 및 대출 장부 해석에 관한 연구> (발표자: 전상욱)

2024년 2월 2일 제52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프라임관 203호)

- <신동엽과 김수영 시에 나타난 여성 인식> 외

2024년 5월 25-26일 한국어문화연구소·판소리학회 공동발표회 개최(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

- <판소리학 세계화의 실천적 모색>

2024년 12월 6일 공개강좌 개최 (진리관 309호)

- 인공지능과 인문학 논문 쓰기 (연사: 노대원)

Ⅰ 정기 학술 대회 Ⅰ

◎ 제5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 학술대회 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14:30 - 17:00
- ◆ 학술대회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203호
- ◆ 학술대회 진행 순서

사회: 박참희 (숙명여대)

시간	순서	발표 및 토론	사회
14:30-15:00	접수 및 개회		권성우 (한국어문화연구소장)
발표			사회: 박참희(숙명여대)
15:00-15:30	이중언어 화자의 제2언어(영어)에서 모국어(한국어)로의 전환 양상 연구: 이야기 재구성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 김혜연(숙명여대) 토론: 오가희(숙명여대)	
15:30-16:0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식 관련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떡'을 중심으로	발표: 쉬야(숙명여대) 토론: 이의(숙명여대)	
16:00-16:30	동사의 어휘상에 따른 연결어미 결합 양상 연구	발표: 윤나영(연세대) 토론: 남소현(연세대)	
16:30-16:40	중간 휴식		
16:40-17:20	종합토론		좌장: 박참희(숙명여대)
17:20-17:30	폐회		권성우 (한국어문화연구소장)

■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07.1.19)

제1장 총 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어와 문화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한국어문화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술지 『한국어와 문화』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 1) 매년 2월 28일, 8월 31일 발행한다.
 - 2) 논문접수마감은 매년 12월 31일, 6월 30일로 한다.

제2장 구 성

- 제3조 편집위원회는 세부전공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5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제4조 편집위원장은 한국어문화연구소 운영위원이 선정·추천하여 한국어문화연구소장이 임명하며, 학술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5조 편집위원회는 세부전공분야를 대표하는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어문화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회 간사는 한국어문화연구소 간사가 겸임하고, 임기는 연구소 간사의 임기와 같다. 간사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제7조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가운데서 한국어문화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 2) 세부전공영역을 한국어와 문화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각 영역에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 3) 지역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분류하여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제3장 기 능

-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한국어와 문화』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제9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회 의

- 제11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부 칙

- 제13조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15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제6장 심사 절차

제16조 접수: 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제17조 심사의뢰: 편집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3인을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동지의 투고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제18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제17조에 근거하여 소정의 '심사결과보고서'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제19조 1차 편집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제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 1)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위원 모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3) 심사위원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하면 위원장은 특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모두가 <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려야 게재될 수 있다.
- 5)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 결과를 통보해준다.

제20조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경우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21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복제권 및 전송권)은 온라인 출판에 한하여 학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권리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

제7장 투고 규정

제22조(투고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제23조(논문내용)

- 1) 한국어와 문화를 대상으로 한 이론적 연구 이외에, 기술 설명적, 응용 실험적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 2) 독창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 3) 국문〈핵심어〉 및 영문〈Key Words〉는 5개 내외로 한다.
- 4) 복수 저자의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등의 순서로 한다.

제24조(원고제출)

- 1) 논문은 원고 1부와 디스켓 혹은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2) 마감일자는 다음과 같다: 11월 30일, 5월 31일(간행일: 2월 28일, 8월 31일)
- 3) 동일 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투고 시 원고에 필자명과 소속을 기입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용지에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5) 원고 보낼 곳: 한국어문화연구소 (korean9710@sm.ac.kr)
- 6)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5조(논문 규모) 『한국어와 문화』지 기준 20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쪽을 초과하는 논문은 초과 쪽수에 대해 쪽 당 소정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26조 투고자는 게재 확정 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7조 논문 투고자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양식

- ① 아래아 한글 파일, 혹은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② 용지 크기 : A4
- ③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좌 우 각 30 (단위mm)
- ④ 줄간격 : 160
- ⑤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 각주 및 직접 인용 9, 글자는 신명조 혹은 바탕체
- ⑥ 문단 모양 : 들여쓰기 10

2) 논문의 구성

- ① 논문은 제목·필자명(약력 소개)·목차·국문 요약·국문 핵심어·본문·참고 문헌·영문 제목·영문 요약(abstract)·영문 핵심어(key words)의 순으로 작성한다.
- ② 국문 요약의 분량은 900자 내외, 영문 요약의 분량은 300단어 내외로 한다.
- ③ 국문〈핵심어〉 및 영문〈Key Words〉는 5개 내외로 한다.
- ④ 영문 제목 및 영문 요약 작성 시 작품명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예) 새벽길 → Saebuyukgil(the road at dawn) (음차와 영문 번역 괄호 병기)

3) 논문의 제목은 논점의 크기에 따라 1., 1.1., 1.1.1., ……로 표시한다.

4) 원고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1) 인용 및 강조 표시

- ① 강조·간접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 ② 인용문이 단락 이상일 때는 본문보다 한 칸 들여 쓰고 활자 크기도 본문보다(10p)보다 한 포인트 줄여 쓴다.
- ③ 직접인용의 경우, “ ”를 사용한다.
- ④ 인용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한글 괄호 문자를 사용한다.
예) (가), (나), (다), ……

(2) 출판물(논저) 표시

① 작품 및 작품집 기호 표시는 다음을 따른다.

작품	<	>
논문	「	」
신문·잡지·단행본	『	』

② 국내 논저로서 저자가 1인이거나 또는 학술지의 논저인 경우,

어학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저서명/학술지/영화명/만화명/애니메이션명』 권/호, 출판사, 인용쪽수.

예) 박영순(1995), 「21세기 국어 문장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제1호, 한국어의미학회, 29~58쪽.

문학 : 저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영화명/만화명/애니메이션명』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대중 서사와 대중성」, 『대중서사연구』 제1호, 대중사, 1995, 175쪽.

③ 저자와 번역자가 동일한 경우,

어학 : 저자(출판연도), 「논문명」,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인용쪽수.

예) John L. Saeed(2004), 「의미성분론」, 이상철 역,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323쪽.

문학 : 저자, 「논문명」,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M. Popular, 「대중문화의 수용자 의식」, 홍길동 역, 『대중서사』, 대중사, 1995, 212쪽.

④ 논문별로 번역자가 다른 번역서일 경우,

어학 : 저자(출판연도), 번역자, 「논문명」, 편저자, 『저서명』, 출판사, 인용쪽수.

예) John L. Saeed(2004), 이상철 역, 「의미성분론」, 이상철 편,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323쪽.

문학 : 저자, 번역자, 「논문명」, 편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M. Popular, 홍길동 역, 「대중문화의 수용자 의식」, 홍길동 편, 『대중서사와 대중연구』, 대중사, 1995, 212쪽.

⑤ 외국 논저일 경우,

논문은 “ ”로, 단행본·학술지·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어학의 예) Jerrold J. Katz(1966),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p. 68~69.

문학의 예) T. Bennett, “popular culture: themes and issues”, Popular Culture, Milton Keynes: Open Univ. Press, 1982, p. 6.

문학의 예) - D. Mcquil, Towards a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 London: Collier-Macmillan Publishers, 1969, pp. 19-20.

⑥ 공동 저작일 경우, 국문이름은 가운데뿔점을 사용하고 영문이름은 &을 사용한다.

예) 홍길동·문학회/ T. Bennett & D. Mcquil

5) 주석은 각주로 작성하며 각주의 작성 요령은 제27조 4)항의 원고 작성의 기호체계를 따른다.

① 어학 분야의 경우,

㉠ 박영순(1995), 「21세기 국어 문장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1호, 한국어의미학회, 29~58쪽.

㉡ Jerrold J. Katz(1966),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pp. 68~69.

㉢ ibid. p. 108.

㉣ T. Bennett(1982), p. 91.

② 문학 분야의 경우,

㉠ 홍길동, 「대중 서사와 대중성」, 『대중서사연구』 제1호, 대중사, 1995, 175쪽.

㉡ T. Bennett, “popular culture : themes and issues”, Popular Culture, Milton Keynes : Open Univ. Press, 1982, p. 6.

㉔ D. Mcquail, Towards a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
London : Collier-Macmillan Publishers, 1969, pp. 19-20.

㉕ ibid. p. 108.

㉖ T. Bennett(1982), p. 91.

- ③ 각주에서 저자명과 저서명이 동일하게 반복될 때도 모두 밝혀 적는다.
- ④ 필자의 저작물에 대한 각주는 본인의 이름을 밝혀 적는다.
- 6)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논문과 단행본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어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어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동양어권 문헌은 저자 독음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어권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7) 핵심단어를 표기할 경우, 외국어는 괄호로 명기한다.

편집위원 명단

위원장	박재민(숙명여대)
위원	권성우(숙명여대)
	김유중(서울대)
	문금현(숙명여대)
	유필재(울산대)
	이진아(숙명여대)
	이홍식(숙명여대)

한국어와 문화

제37집

2025년 2월 28일 인쇄

2025년 2월 28일 발행

발행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진리관 202호

Tel. 02)2077-7152

인쇄 신세림

ISSN 1976-0582

Korean Language and Culture

Volume 37, February, 2025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